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9. 27.(금) 12:00	 통계청
	배포일시	2019. 9. 27.(금) 09: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담당자	과 장: 이재원 (042-481-2233) 사 무 관: 이용심 (042-481-2242)	

2019 고령자 통계

일 러 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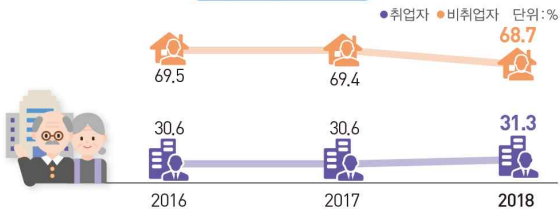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14.9%, 2025년 20.3%, 2067년 46.5%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통계청에서는 2003년 이후 매년 「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고령자 통계」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올해 「2019 고령자 통계」에서는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을 주제로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생활과 의식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 노인 인구를 전기고령자(65세~74세)와 후기고령자(75세이상)로 구분하여 좀 더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 또한, 고령화의 지역간 현황 비교, 추세분석 및 복지시설 등을 「고령화 현황보기(<https://sgis.kostat.go.kr/publicsmodel>)」에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 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고령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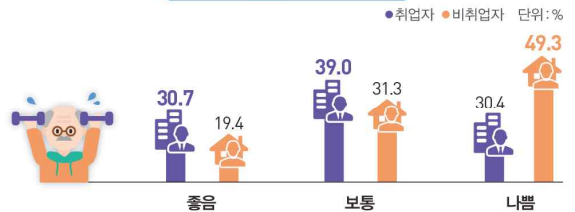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일하는 고령자 (65세 이상)



주관적 건강평가 (2018,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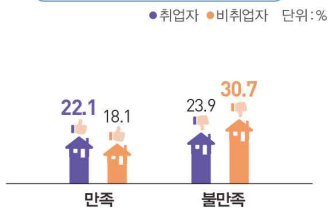
생활비 마련 방법 (2017,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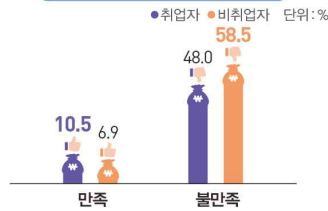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망: 도움받을 사람 있음 (2017,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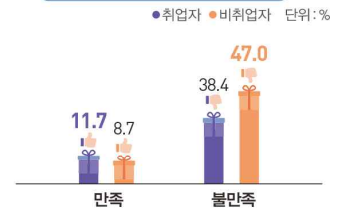
주관적 삶의 만족도 (2017, 65세 이상)



소득 만족도 (2017, 65세 이상)



소비생활 만족도 (2017,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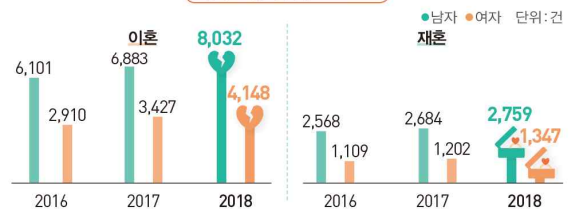


고령자 통계

인구피라미드



이혼·재혼 건수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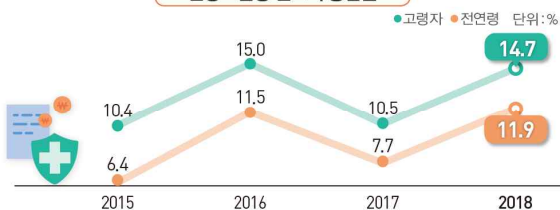
취업의사 및 원하는 이유 (55~7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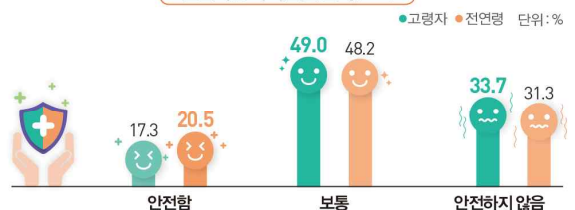
연금수령자 (55~79세)



건강보험상 진료비 증감률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 (2018)



목 차

□ 요 약

1. <기획보도>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1
2. 2019 고령자 통계 3

□ <기획보도>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6

□ 2019 고령자 통계 20

I. 인 구

1. 인구 추이 21
2. 성별 고령인구 22
3. 지역별 고령인구 23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4
5. 고령자 가구 25

II. 가 족

6. 이혼 및 재혼 26
7. 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27
8. 거처 유형 28
9.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29
10. 가족 관계 만족도 30

III. 보 건

11. 주관적 건강평가 31
12. 사망원인 32
13. 암 종류별 사망률 33
14. 건강보험 상 진료비 34

IV. 경제활동

15.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35
16. 근속기간	36
17.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37
18. 일자리 선택기준	38

V. 복 지

19. 연금 수령	39
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
21. 노인 복지시설	41

VI.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

22. 인터넷 이용률	42
23. 선거 투표율	43
24. 일반인, 기관에 대한 신뢰	44

VII. 안전 및 환경

2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45
26. 준법수준(자신, 타인)	46
27. 학대피해 노인	47
28. 현재 체감 환경	48

VIII. 통계표

	50
--	----

〈기획보도〉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요약]

2018년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 고 생각하며, 유병률은 낮으나, 흡연을 음주율 스트레스 정도는 높음

- 2018년 65세 이상 일하는(취업자) 고령자는 31.3%(2,311천명)로 '17년(30.6%, 2,166천명)보다 0.7%p(145천명) 증가함
 - 65세 이상 고용률(%): 30.6('17) → 31.3('18), 취업자(천명): 2,166('17) → 2,311('18)
- 2018년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일하는 고령자(30.7%)가 비취업 고령자(19.4%)보다 높음
 - 일하는 고령자 88.9%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 로 응답하여, 비취업 고령자(83.9%)보다 정기적 건강검진 비율이 더 높음
- 2018년 일하는 고령자의 「흡연」 과 「음주」 , 「스트레스를 느낀다」 비율은 비취업 고령자보다 높으나, 「병이 있다」 비율은 낮음

[고령자의 건강에 대한 의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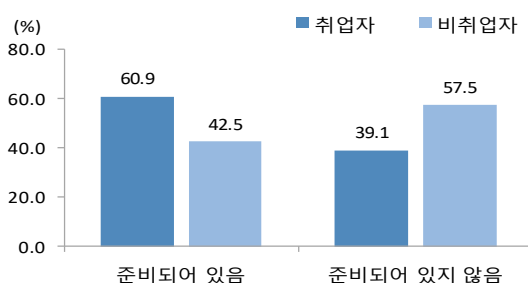
	취업자		비취업자
-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한다	30.7	>	19.4
-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	88.9	>	83.9
- 흡연을 한다	13.5	>	8.1
- 음주를 한다	47.1	>	28.7
- 스트레스를 느낀다	45.0	>	41.8
- 병이 있다	61.8	<	70.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

2017년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고,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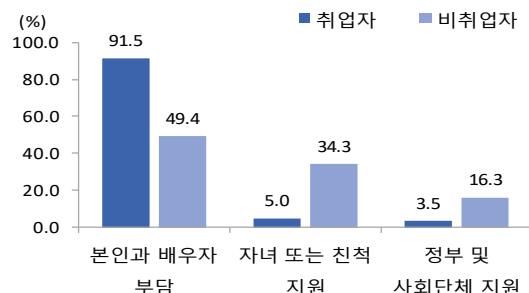
- 2017년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60.9%)가 비취업 고령자(42.5%) 보다 18.4%p 높게 나타남

[노후준비방법]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생활비 마련방법]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2017년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비율이 더 높음

- 2017년 일하는 고령자의 76.0%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비취업 고령자(70.8%)보다 5.2%p 높게 나타남
- 2017년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이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높게 나타남

【 사회적 관계망 】

(단위: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있음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있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취업자	77.2	39.4	76.6
비취업자	74.0	34.6	72.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2017년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주관적 만족감이 높고, 여가 활용·소득·소비생활에 대한 만족감도 높음

- 2017년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주관적 만족감이 일하는 고령자는 22.1%가 「만족」하다고 느끼며, 이는 비취업 고령자(18.1%)보다 4.0%p 높게 나타남
- 2017년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하여 「만족」 하는 사람은 일하는 고령자가 11.7%로 비취업 고령자(8.7%)보다 3.0%p 높게 나타남

【 고령자의 주관적 만족감 등 】

(단위: %)

	취업자		비취업자
-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만족한다	22.1	>	18.1
- 여가활용에 만족한다	19.4	>	17.2
- 소득에 만족한다.	10.5	>	6.9
- 소비생활에 만족한다	11.7	>	8.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2019 고령자 통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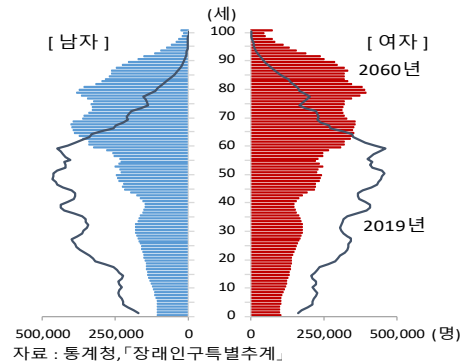
I 인 구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768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함

- 2019년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함

- 2019년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5천명으로 2050년 (1,900만 7천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2.3%)」이 가장 높고, 「세종(8.9%)」이 가장 낮음

[인구피라미드]



- 2019년 노년부양비*는 20.4명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65년에는 100.4명으로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 노령화지수*는 2016년 100.1명으로 0~14세 인구를 넘어서, 2019년 119.4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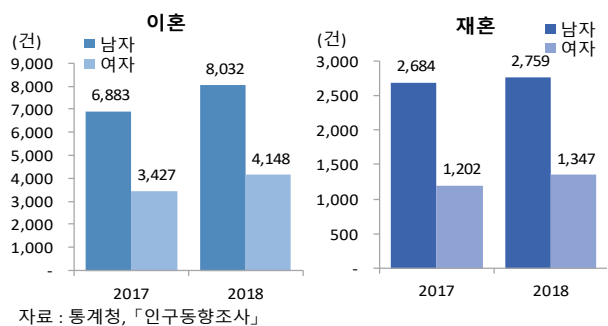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II 가 족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재혼 건수는 남녀 모두 증가함

- 2018년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에 비해 25% 증가하였는데,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각각 16.7%, 21.0% 증가함
- 2018년 전체 재혼 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남자 -1.4%, 여자 -1.3%)하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혼 건수는 남자, 여자 각각 28%, 121% 증가함

[이혼 · 재혼 건수]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0.4%는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는 2년 전(9.1%) 보다 1.3%p 증가함
 -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7.7('14) → 9.1('16) → 10.4('18)
- 2018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는 47.9%로 감소 추세이며,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50.4%)는 증가 추세로 절반을 넘어섰음
 - 공동주택 거주 비율(%): 23.0('00) → 31.1('05) → 38.1('10) → 45.6('15) → 48.7('17) → 50.4('18)

Ⅲ 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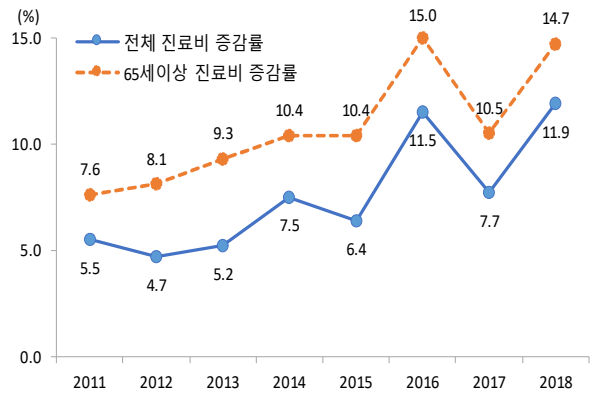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 22.8%가 건강하다고 평가함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 22.8%가 건강하다고 평가하며, 2년 전(22.3%)보다 0.5%p 증가함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상 진료비 증감률은 14.7%로 전체 증감률 (11.9%)보다 2.8%p 높음

-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438만 7천원으로 전년(398만 7천원)보다 10.0% 증가함
: 343만 3천원('15) → 381만 1천원('16) → 398만 7천원('17) → 438만 7천원('18)

[건강보험 상 진료비 증감률]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Ⅳ 경제활동

2019년 장래에 일하기 원하는 고령자(55~79세)는 64.9%로 증가 추세임

○ 2019년 55세~79세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6.4%)이 가장 많고, 직업별 취업자는 단순노무종사자 직종(24.3%)이 가장 많음

- 산업별 취업자 비중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6.4%) > 도소매·음식숙박업(19.8%) > 농림어업(13.8%)

- 직업별 취업자 비중

: 단순노무종사자(24.3%) > 서비스·판매종사자(23.0%) >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0%)

○ 2019년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로 전년(64.1%)보다 0.8%p 증가함

- 취업을 원하는 이유

: 생활비 보탬(60.2%) > 일하는 즐거움(32.8%)

-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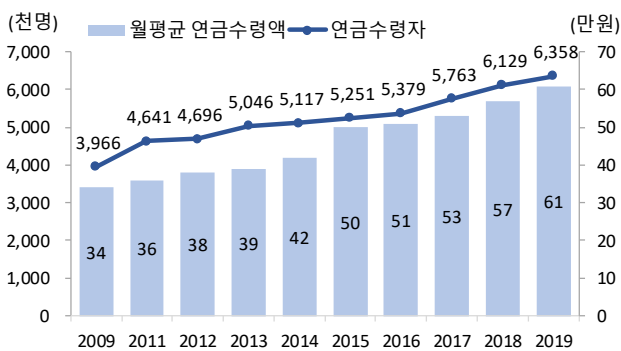
: 일의 양과 시간대(28.4%) > 임금수준(23.8%) > 계속근로 가능성(16.6%)

V 목 지

2019년 고령자(55~79세)의 연금 수령 비율은 45.9%,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61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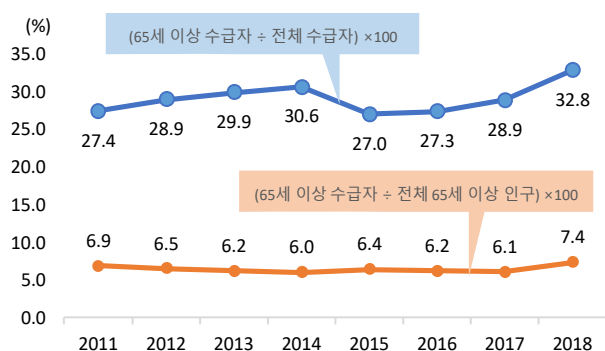
- 2019년 고령자(55~79세)의 연금 수령 비율은 45.9%이며,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61만원으로 전년(45.6%, 57만원)보다 각각 0.3%p, 4만원 증가함
- 2018년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7.4%로 전년(6.1%)보다 1.3%p 증가함
- 2018년 노인 복지시설은 77,382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임
 - 노인 복지시설 수(개소): 73,774('14) → 75,029('15) → 75,708('16) → 76,371('17) → 77,382('18)

[연금수령자 및 연금수령액(65세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VI 여가, 사회참여, 안전, 환경

60대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임

- 2018년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60대는 88.8%, 70대 이상은 38.6%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60대 인터넷 이용률(%) : 59.6('15) → 74.5('16) → 82.5('17) → 88.8('18)
 - 70대 이상 인터넷 이용률(%) : 17.9('15) → 25.9('16) → 31.8('17) → 38.6('18)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령자 투표율(60대 72.5%, 70대 74.5%)이 전체 투표율(60.2%)보다 높음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3.7%로 전체연령대(31.3%)보다 24%p 높게 나타남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44.4%가 현재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좋다」고 체감하며, 이는 전체연령대(35.8%)보다 8.6%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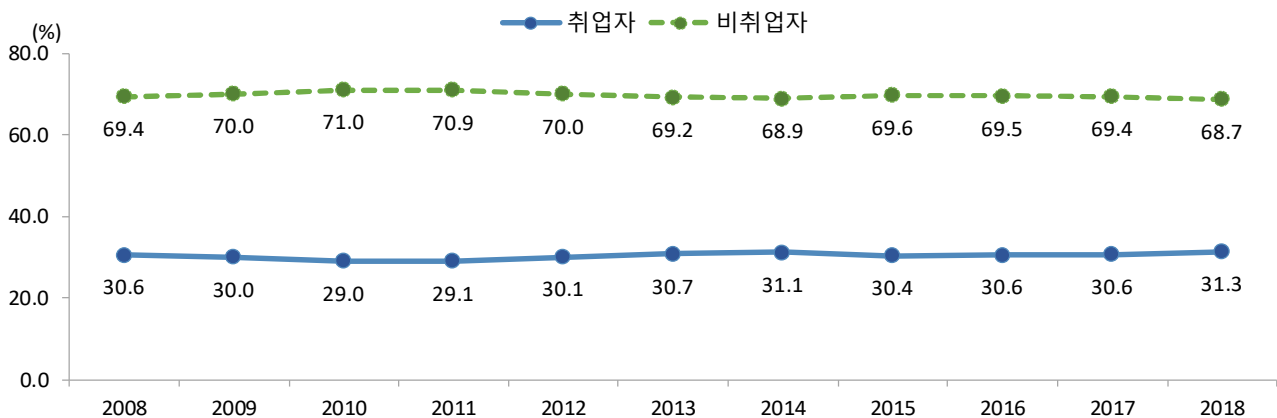
〈기획보도〉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은 「사회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생활과 의식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1. 고용

- (고용률)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하는(취업자) 고령자는 31.3%, 비취업 고령자는 68.7%를 차지함
-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1.3%로 전년(30.6%)보다 0.7%p 상승함
-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231만 1천명으로 전년(216만 6천명)보다 145천명 (6.7%)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 추이(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 추이(65세 이상) 】

(단위: %, 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율	취업자	30.6	30.0	29.0	29.1	30.1	30.7	31.1	30.4	30.6	30.6	31.3
	비취업자 ¹⁾	69.4	70.0	71.0	70.9	70.0	69.2	68.9	69.6	69.5	69.4	68.7
인구	취업자	1,523	1,553	1,553	1,606	1,733	1,851	1,954	1,985	2,068	2,166	2,311
	비취업자	3,460	3,624	3,808	3,921	4,034	4,170	4,324	4,549	4,700	4,905	5,075
	65세 이상 전체	4,983	5,177	5,361	5,527	5,766	6,022	6,277	6,534	6,767	7,071	7,38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1) 비취업자에는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포함

2. 주관적 건강평가

□ (건강평가) 2018년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일하는 고령자는 30.7%이며, 이는 비취업 고령자(19.4%)보다 11.3%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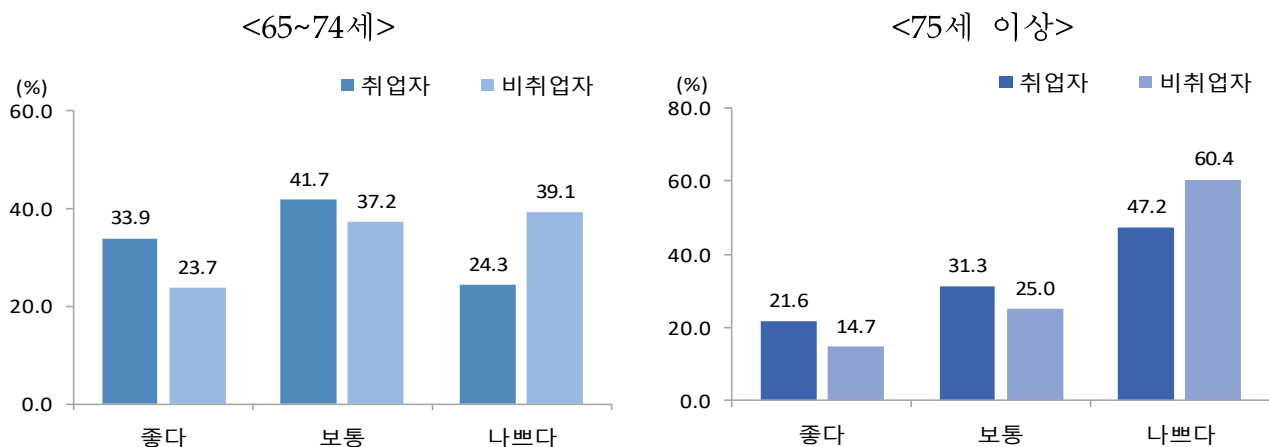
○ 65~74세 중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일하는 고령자는 33.9%이고, 비취업 고령자는 23.7%임

- 건강상태가 「나쁘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일하는 고령자는 24.3%이고, 비취업 고령자는 39.1%임

○ 75세 이상 중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일하는 고령자는 21.6%이며, 비취업 고령자는 14.7%임

- 건강상태가 「나쁘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일하는 고령자는 47.2%이며, 비취업 고령자는 60.4%임

< 주관적 건강평가(65세 이상, 2018)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 주관적 건강평가(65세 이상, 2018) 】

(단위: %)

	취업여부 ¹⁾	합계	좋다	보통	나쁘다
65세 이상	취업자	100.0	30.7	39.0	30.4
	비취업자	100.0	19.4	31.3	49.3
65~74세	취업자	100.0	33.9	41.7	24.3
	비취업자	100.0	23.7	37.2	39.1
75세 이상	취업자	100.0	21.6	31.3	47.2
	비취업자	100.0	14.7	25.0	60.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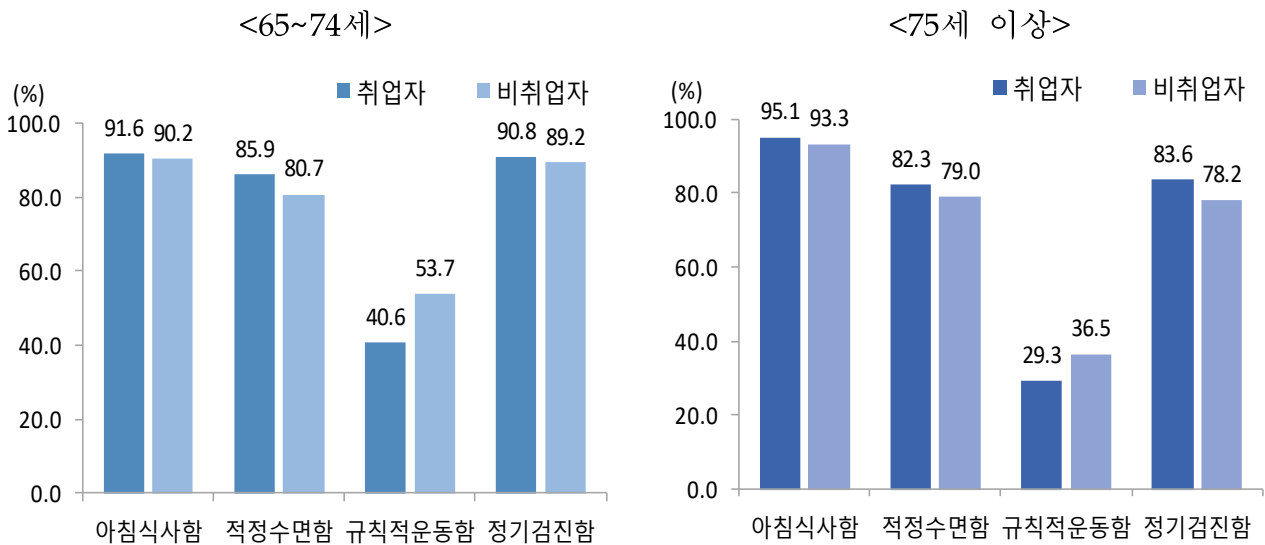
3. 건강관리

□ (건강관리) 2018년 「아침 식사하기」, 「적정 수면」, 「정기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가 높으며, 「규칙적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비취업 고령자에서 높게 나타남

○ 일하는 고령자는 「아침 식사하기」(92.5%), 「적정 수면」(85.0%), 「정기 건강검진」(88.9%)을 실천하고 있음

- 「규칙적 운동」 실천은 비취업 고령자가 45.4%로 일하는 고령자(37.6%)보다 더 높음

< 건강관리(65세 이상, 2018)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 건강관리(65세 이상, 2018) 】

(단위: %)

	취업여부 ¹⁾	아침식사 한다	적정수면 한다	규칙적운동 한다	정기검진 한다
65세 이상	취업자	92.5	85.0	37.6	88.9
	비취업자	91.7	79.9	45.4	83.9
65~74세	취업자	91.6	85.9	40.6	90.8
	비취업자	90.2	80.7	53.7	89.2
75세 이상	취업자	95.1	82.3	29.3	83.6
	비취업자	93.3	79.0	36.5	78.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

주: 1)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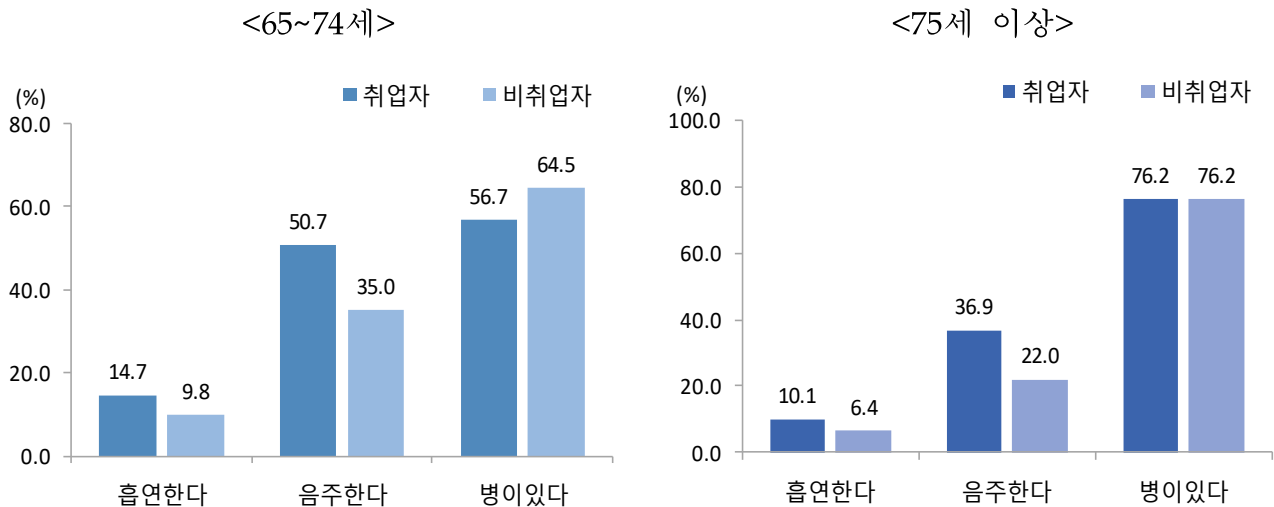
4. 흡연, 음주 및 유병여부

□ (흡연·음주 및 유병) 2018년 일하는 고령자의 「흡연」 과 「음주」 비율은 비취업 고령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병이 있다」 는 낮음

○ 유병률은 65~74세의 일하는 고령자는 56.7%로 비취업 고령자(64.5%) 보다 7.8%p 낮게 나타났음

- 75세 이상에서는 일하는 고령자와 비취업 고령자의 유병률이 76.2%로 같음

< 흡연, 음주 및 유병여부(65세 이상, 2018)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 흡연, 음주 및 유병여부(65세 이상, 2018) 】

(단위: %)

	취업여부 ¹⁾	흡연		음주		유병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있다	없다
65세 이상	취업자	13.5	86.5	47.1	52.9	61.8	38.2
	비취업자	8.1	91.9	28.7	71.3	70.1	29.9
65~74세	취업자	14.7	85.3	50.7	49.3	56.7	43.3
	비취업자	9.8	90.2	35.0	65.0	64.5	35.5
75세 이상	취업자	10.1	89.9	36.9	63.1	76.2	23.8
	비취업자	6.4	93.6	22.0	78.0	76.2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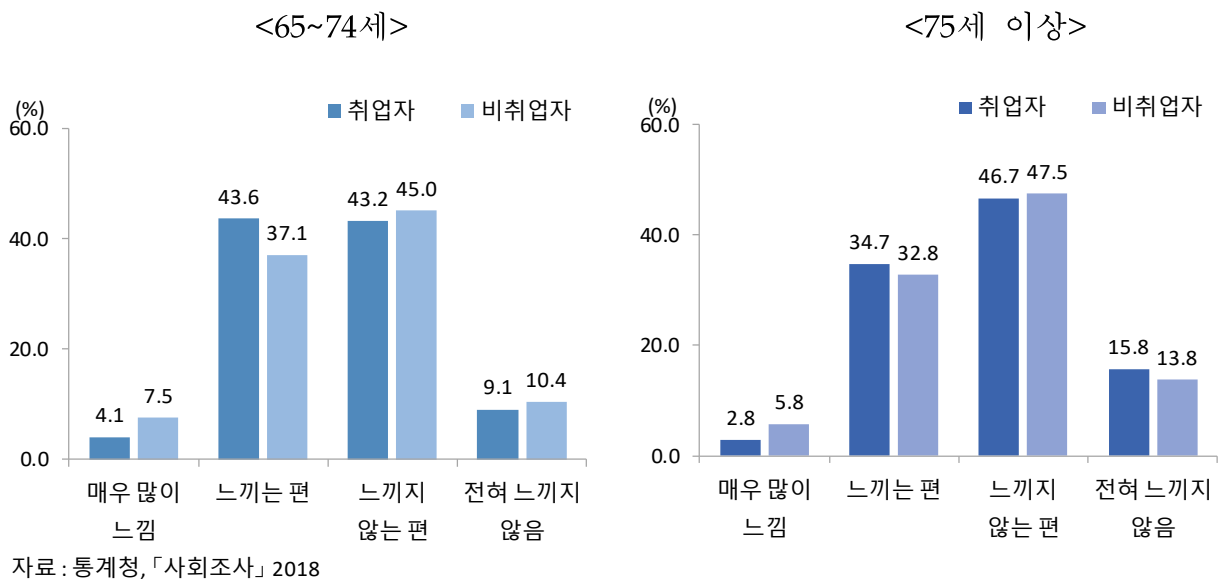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5. 스트레스 정도

- (스트레스 정도) 2018년 일하는 고령자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는 비중이 45.0%로 비취업 고령자(41.8%) 보다 3.2%p 높게 나타남
- 65~74세의 일하는 고령자는 「스트레스를 느낀다(47.7%)」 는 비중이 비취업 고령자(44.6%) 보다 3.1%p 높게 나타났음
- 75세 이상 취업자는 「스트레스를 느낀다(37.5%)」 는 비중이 비취업 고령자(38.6%)보다 1.1%p 낮게 나타남

< 전반적인 스트레스(65세 이상, 2018) >



【 전반적인 스트레스(65세 이상, 2018) 】

(단위: %)

	취업여부 ¹⁾	합계	느낀다	느끼는 편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 편	
				매우 많이 느꼈다	편이다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65세 이상	취업자	100.0	45.0	3.7	41.3	54.9	44.1	10.8
	비취업자	100.0	41.8	6.7	35.1	58.3	46.2	12.1
65~74세	취업자	100.0	47.7	4.1	43.6	52.3	43.2	9.1
	비취업자	100.0	44.6	7.5	37.1	55.4	45.0	10.4
75세 이상	취업자	100.0	37.5	2.8	34.7	62.5	46.7	15.8
	비취업자	100.0	38.6	5.8	32.8	61.3	47.5	13.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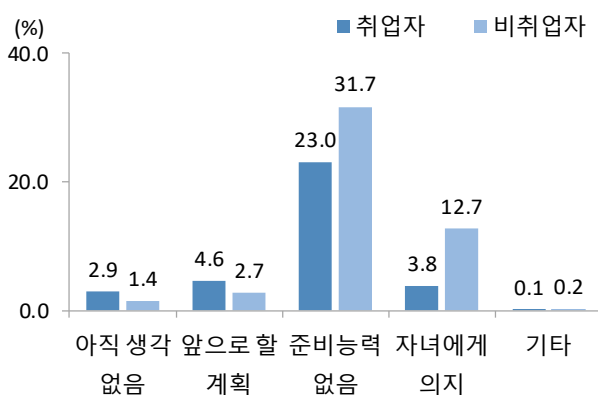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6. 노후준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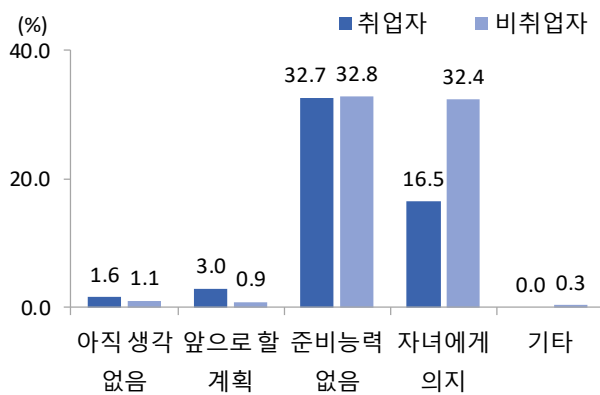
- (노후준비) 2017년 일하는 고령자 60.9%는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비취업 고령자 42.5%보다 18.4%p 높게 나타남
- 노후준비가 안 되어(하고) 있는 고령자의 「자녀에게 의지」 하는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는 6.8%인 반면, 비취업 고령자는 21.9%로 비취업 고령자가 높게 나타남
- 65~74세 중 「자녀에게 의지」 비율: 일하는 고령자(3.8%) < 비취업 고령자(12.7%)
 - 75세 이상 중 「자녀에게 의지」 비율: 일하는 고령자(16.5%) < 비취업 고령자(32.4%)

< 노후준비 방법(65세 이상, 2017) >

<65~74세>



<75세 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 노후준비 방법(65세 이상, 2017) 】

(단위: %)

	취업 여부 ¹⁾	합계	노후준비 방법						
			준비되어 있음	준비되어 있지 않음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할 능력 없다	자녀에게 의지한다	기타
65세이상	취업자	100.0	60.9	39.1	2.6	4.2	25.4	6.8	0.1
	비취업자	100.0	42.5	57.5	1.3	1.9	32.2	21.9	0.2
65~74세	취업자	100.0	65.6	34.4	2.9	4.6	23.0	3.8	0.1
	비취업자	100.0	51.2	48.8	1.4	2.7	31.7	12.7	0.2
75세이상	취업자	100.0	46.1	53.9	1.6	3.0	32.7	16.5	-
	비취업자	100.0	32.5	67.5	1.1	0.9	32.8	32.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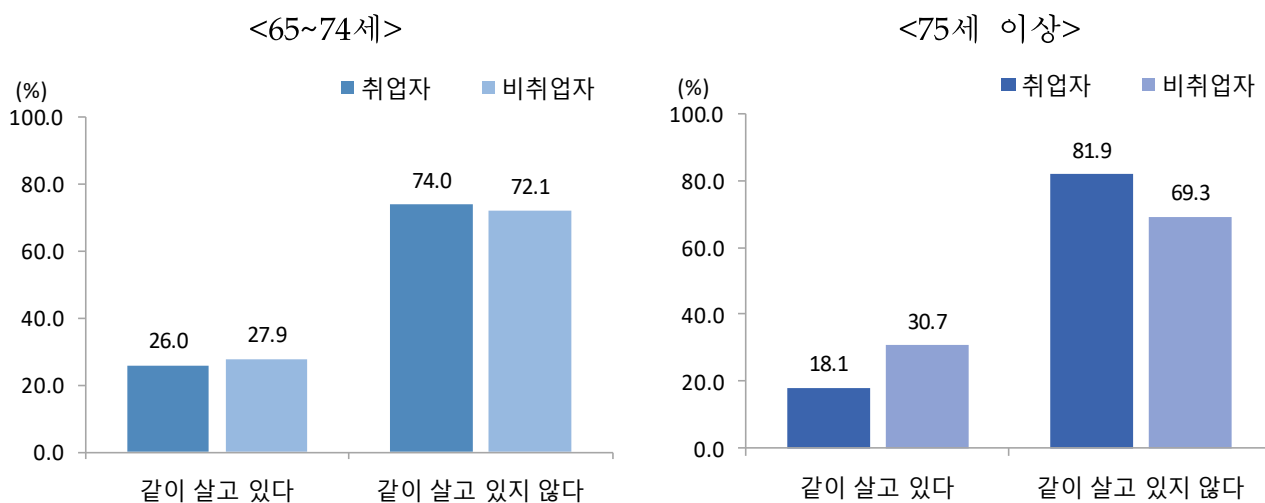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7.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

- (자녀와 동거여부) 2017년 일하는 고령자의 76.0%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비취업 고령자(70.8%)보다 5.2%p 높게 나타남
- 65~74세의 고령자 중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가 74.0%, 비취업 고령자는 72.1%임
-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81.9%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비취업 고령자(69.3%)보다 12.6%p 더 높게 나타남

<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65세 이상, 2017)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7

【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65세 이상, 2017) 】

(단위: %)

	취업여부 ¹⁾	합계	같이 살고 있다	같이 살고 있지 않다
65세 이상	취업자	100.0	24.0	76.0
	비취업자	100.0	29.2	70.8
65~74세	취업자	100.0	26.0	74.0
	비취업자	100.0	27.9	72.1
75세 이상	취업자	100.0	18.1	81.9
	비취업자	100.0	30.7	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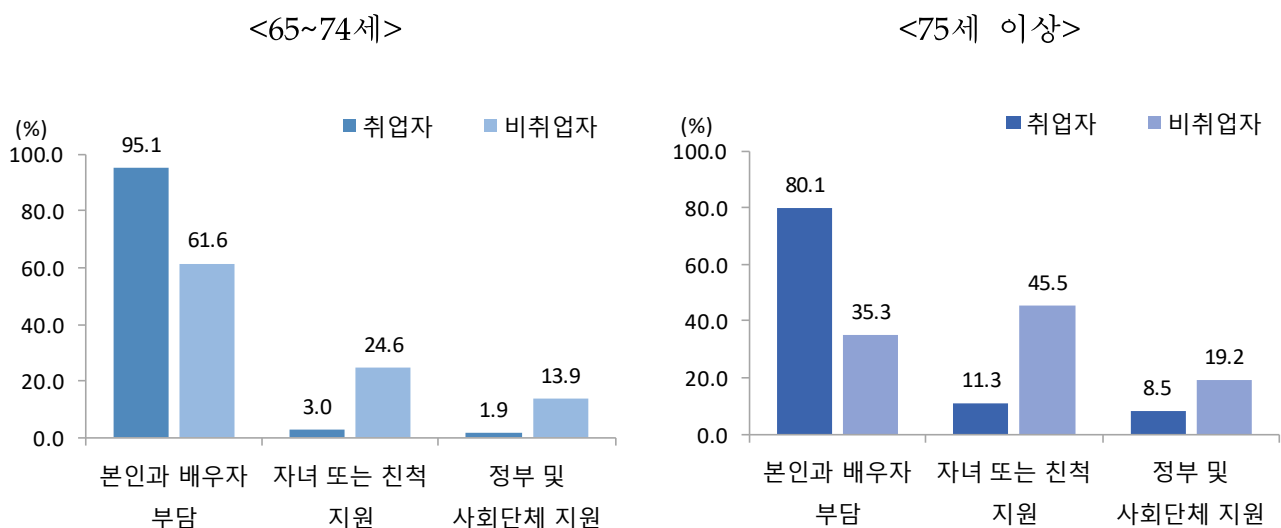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8. 생활비 마련방법

- (생활비 마련방법) 2017년 일하는 고령자 91.5%는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고 응답하여 비취업 고령자(49.4%)보다 42.1%p 높게 나타남
- 65~74세의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이 95.1%로 취업자 대부분이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 75세 이상의 일하는 고령자는 80.1%가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취업 고령자는 35.3%임

< 생활비 마련방법(65세 이상, 2017)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7

【 생활비 마련방법(65세 이상, 2017) 】

(단위: %)

	취업여부 ¹⁾	합계	본인과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
65세 이상	취업자	100.0	91.5	5.0	3.5
	비취업자	100.0	49.4	34.3	16.3
65~74세	취업자	100.0	95.1	3.0	1.9
	비취업자	100.0	61.6	24.6	13.9
75세 이상	취업자	100.0	80.1	11.3	8.5
	비취업자	100.0	35.3	45.5	19.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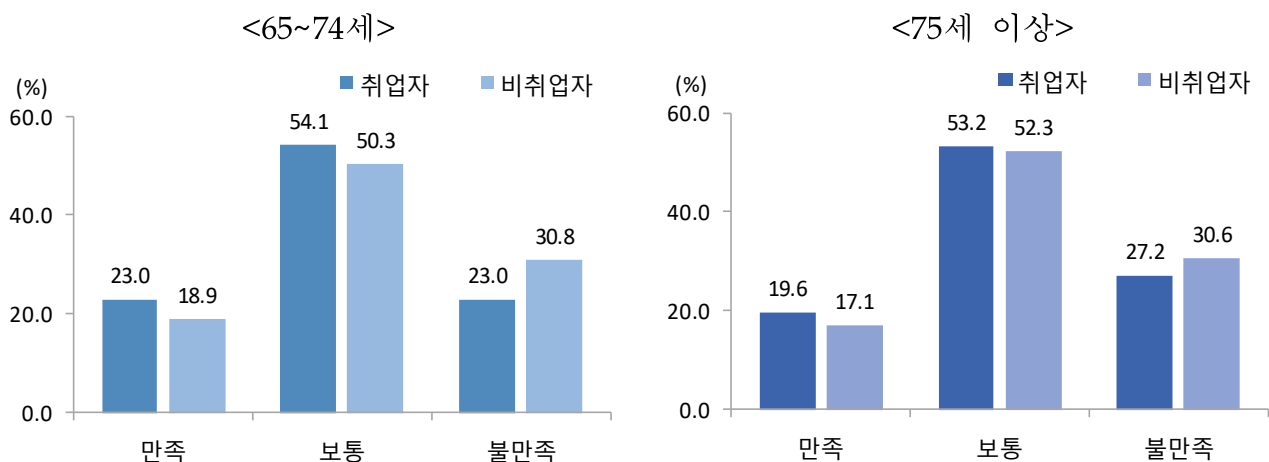
9. 주관적 만족감

□ (주관적 만족감) 2017년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주관적 만족감이 일하는 고령자는 22.1%가 「만족」 하다고 느끼며, 이는 비취업 고령자(18.1%)보다 4.0%p 높게 나타남

○ 65~74세 중 「만족」 한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의 23.0%, 비취업 고령자는 18.9%임

○ 75세 이상 중 「만족」 한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가 19.6%, 비취업 고령자는 17.1%임

< 주관적 만족감(65세 이상, 2017)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7

【 주관적 만족감(65세 이상, 2017) 】

(단위: %)

	취업여부 ¹⁾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65세 이상	취업자	100.0	22.1	53.9	23.9
	비취업자	100.0	18.1	51.2	30.7
65~74세	취업자	100.0	23.0	54.1	23.0
	비취업자	100.0	18.9	50.3	30.8
75세 이상	취업자	100.0	19.6	53.2	27.2
	비취업자	100.0	17.1	52.3	30.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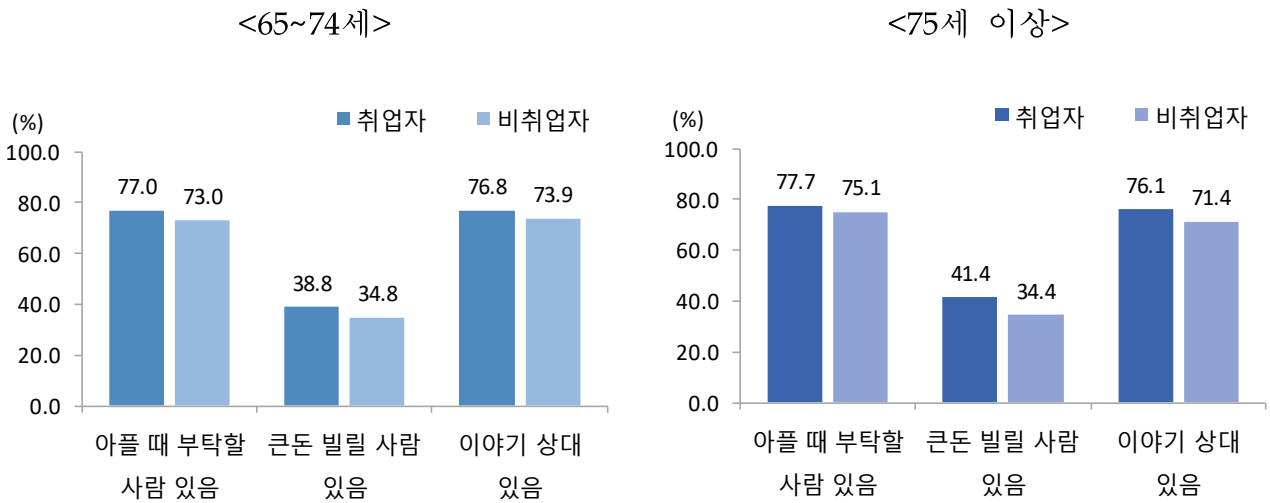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10.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관계망) 2017년 고령자 중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이 일하는 고령자가 비취업 고령자보다 높게 나타남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 일하는 고령자(77.2%) > 비취업 고령자(74.0%)
-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 일하는 고령자(39.4%) > 비취업 고령자(34.6%)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 일하는 고령자(76.6%) > 비취업 고령자(72.7%)

< 사회적 관계망(65세 이상, 2017)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7

【 사회적 관계망(65세 이상, 2017) 】

(단위: %, 명)

	취업여부 ¹⁾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 수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 수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 수
65세 이상	취업자	77.2	2.1	39.4	2.0	76.6	2.5
	비취업자	74.0	2.1	34.6	2.0	72.7	2.3
65~74세	취업자	77.0	2.1	38.8	2.0	76.8	2.5
	비취업자	73.0	2.1	34.8	2.0	73.9	2.4
75세 이상	취업자	77.7	2.2	41.4	2.1	76.1	2.4
	비취업자	75.1	2.1	34.4	2.0	71.4	2.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11. 여가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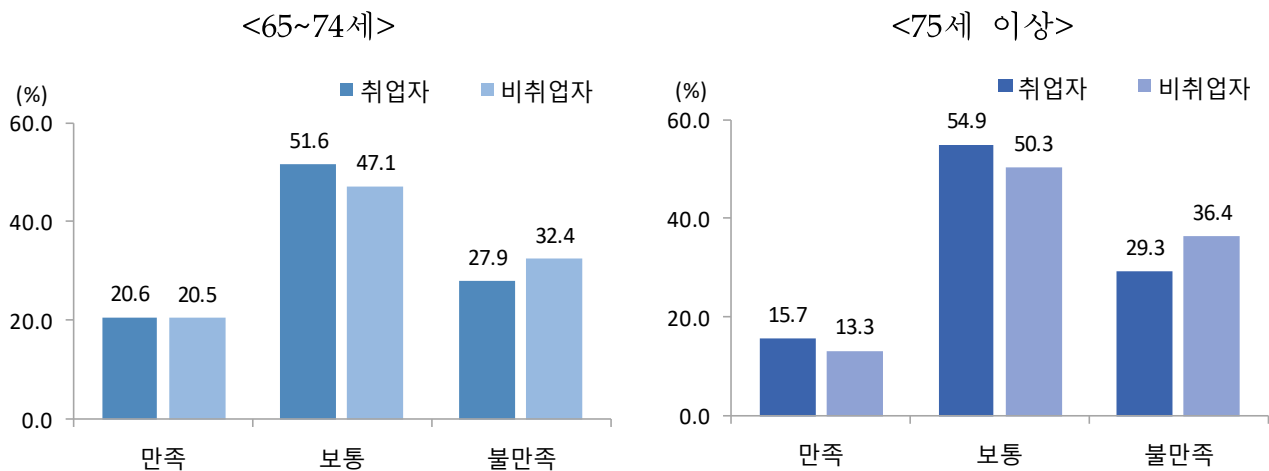
□ (여가활동 만족도) 2017년 여가활동에 대하여 「만족」 하는 사람의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가 19.4%로 비취업 고령자(17.2%)보다 2.2%p 높음

○ 또한,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 하는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는 28.2%로 비취업 고령자(34.2%)보다 6.0%p 낮게 나타남

- 65세~74세 일하는 고령자의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 일하는 고령자(27.9%) < 비취업 고령자(32.4%)

- 7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 일하는 고령자(29.3%) < 비취업 고령자(36.4%)

< 여가활동 만족도(65세 이상, 2017)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7

【 여가활동 만족도(65세 이상, 2017) 】

(단위: %)

	취업여부 ¹⁾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65세 이상	취업자	100.0	19.4	52.4	28.2
	비취업자	100.0	17.2	48.6	34.2
65~74세	취업자	100.0	20.6	51.6	27.9
	비취업자	100.0	20.5	47.1	32.4
75세 이상	취업자	100.0	15.7	54.9	29.3
	비취업자	100.0	13.3	50.3	36.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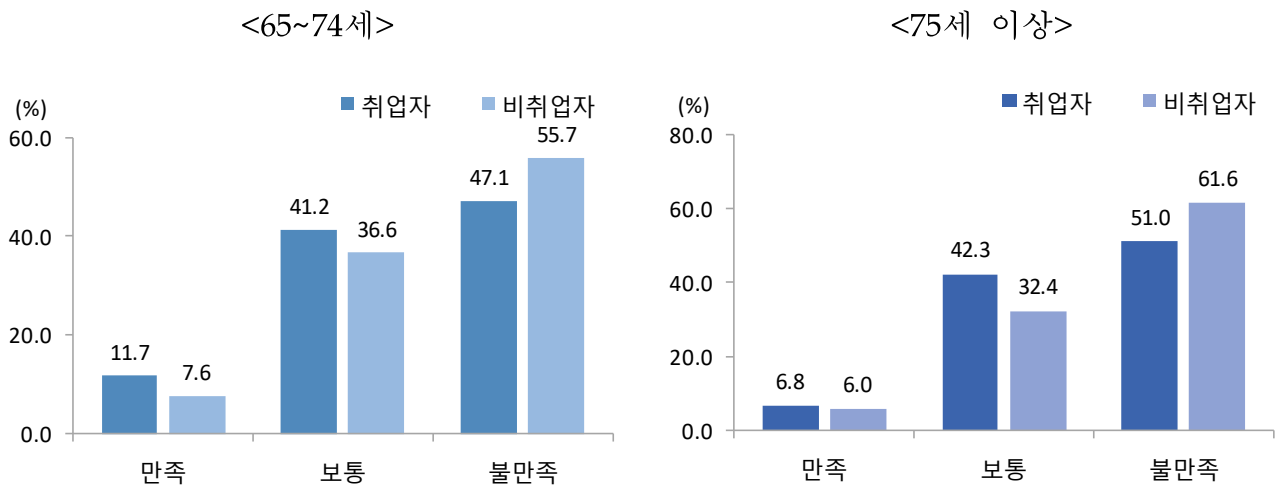
12. 소득 만족도

□ (소득 만족도) 2017년 소득에 대해 「만족」 하는 사람의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가 10.5%로 비취업 고령자(6.9%)보다 3.6%p 높음

○ 또한, 비취업 고령자는 소득에 대해 「불만족」 하는 사람의 비율은 58.5%로 일하는 고령자(48.0%)보다 10.5%p 높게 나타남

- 75세 이상 비취업 고령자가 소득에 대해 「불만족」 정도가 61.6%로 가장 높고, 「만족」 하는 비율(6.0%)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소득 만족도(65세 이상, 2017)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7

【 소득 만족도(65세 이상, 2017) 】

(단위: %)

	취업여부 ¹⁾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65세 이상	취업자	100.0	10.5	41.5	48.0
	비취업자	100.0	6.9	34.6	58.5
65~74세	취업자	100.0	11.7	41.2	47.1
	비취업자	100.0	7.6	36.6	55.7
75세 이상	취업자	100.0	6.8	42.3	51.0
	비취업자	100.0	6.0	32.4	61.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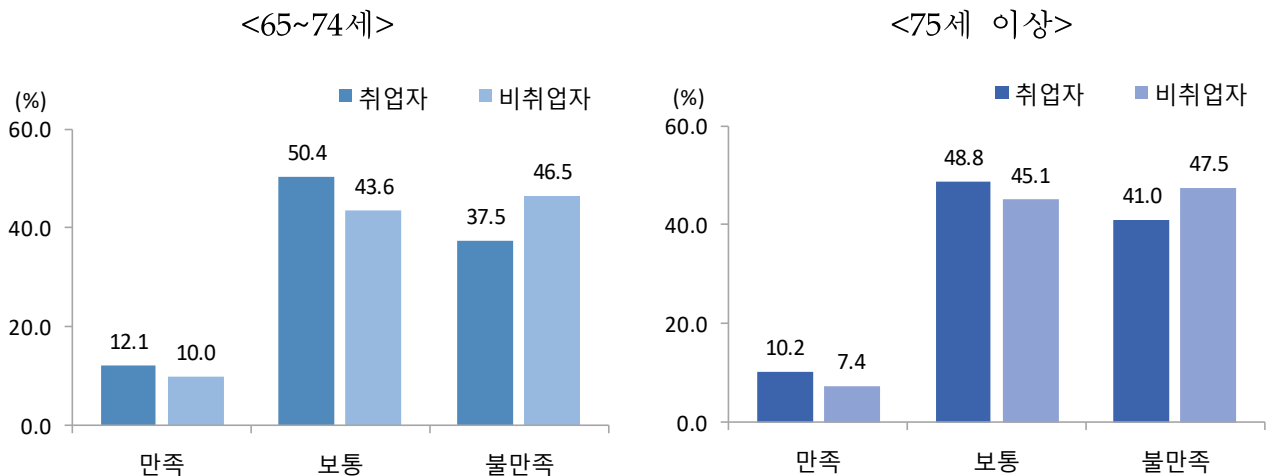
13. 소비생활 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 2017년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하여 「만족」 하는 사람은 일하는 고령자가 11.7%로 비취업 고령자(8.7%)보다 3.0%p 높음

○ 또한, 개인의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 하는 비율은 일하는 고령자는 38.4%로 비취업 고령자(47.0%)보다 8.6%p 낮게 나타남

- 65세~74세 소비생활 「불만족」 비율: 일하는 고령자(37.5%) < 비취업 고령자(46.5%)
- 75세 이상 소비생활 「불만족」 비율: 일하는 고령자(41.0%) < 비취업 고령자(47.5%)

< 소비생활 만족도(65세 이상, 2017)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7

【 소비생활 만족도(65세 이상, 2017) 】

(단위: %)

	취업여부 ¹⁾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65세 이상	취업자	100.0	11.7	50.0	38.4
	비취업자	100.0	8.7	44.3	47.0
65~74세	취업자	100.0	12.1	50.4	37.5
	비취업자	100.0	10.0	43.6	46.5
75세 이상	취업자	100.0	10.2	48.8	41.0
	비취업자	100.0	7.4	45.1	47.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2019 고령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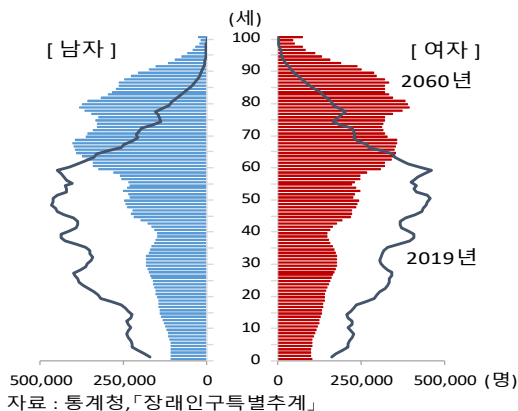
I. 인 구

1.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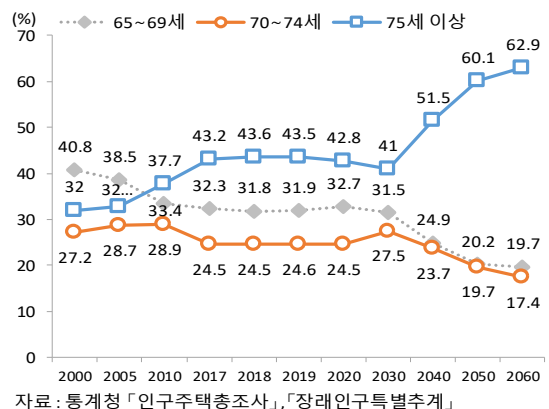
2019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함

-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70만 9천명으로 2028년까지 계속 증가 후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5천명으로 2050년(1,900만 7천명)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2019년 인구 피라미드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 형태이며, 2060년에는 고령화로 인하여 60대 이상이 두터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4.9%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060년에는 43.9%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 중 65~69세와 70~74세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9년 이후 증가하다 감소하는 반면 75세 이상의 구성비는 증가 추세임

< 인구 피라미드 >



< 고령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



【 인구 추이¹⁾ 】

(단위: 천명, %)

	총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65~69세	구성비 ²⁾	70~74세	구성비 ²⁾	75세 이상	구성비 ²⁾
2000	46,136	3,375	7.3	1,377	40.8	919	27.2	1,078	32.0
2005	47,279	4,372	9.2	1,683	38.5	1,255	28.7	1,434	32.8
2010	48,580	5,434	11.2	1,817	33.4	1,569	28.9	2,049	37.7
2017	51,423	7,171	13.9	2,315	32.3	1,756	24.5	3,100	43.2
2018	51,630	7,455	14.4	2,372	31.8	1,829	24.5	3,254	43.6
2019 ³⁾	51,709	7,685	14.9	2,450	31.9	1,888	24.6	3,346	43.5
2020	51,781	8,125	15.7	2,660	32.7	1,991	24.5	3,475	42.8
2030	51,927	12,980	25.0	4,094	31.5	3,566	27.5	5,319	41.0
2040	50,855	17,224	33.9	4,284	24.9	4,074	23.7	8,866	51.5
2050	47,745	19,007	39.8	3,848	20.2	3,744	19.7	11,415	60.1
2060	42,838	18,815	43.9	3,698	19.7	3,278	17.4	11,838	62.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 3.

주: 1) 외국인 포함

2)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

3) 2018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019년 이후는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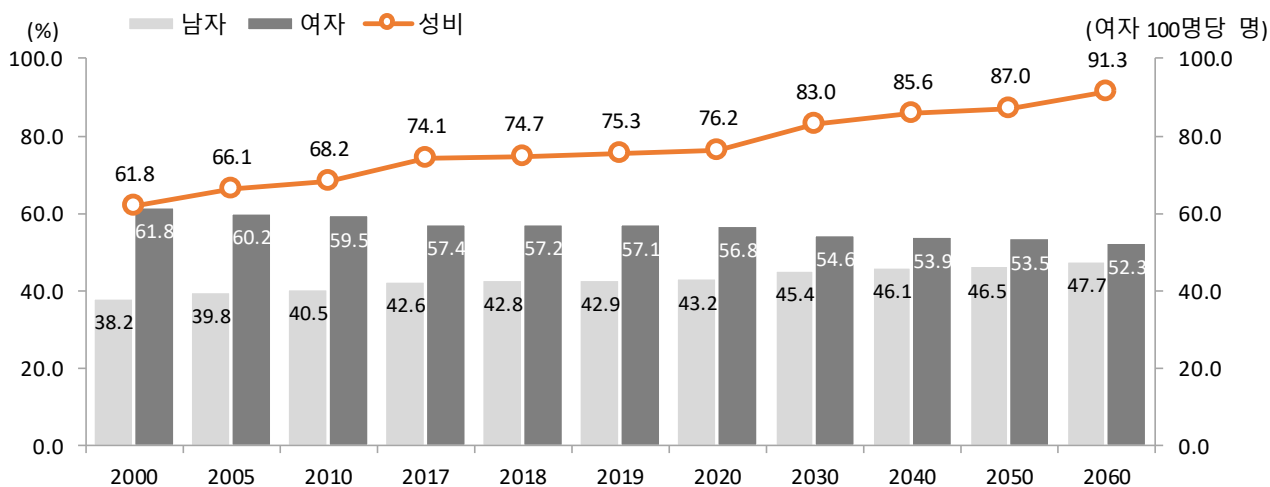
2. 성별 고령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남녀의 비중 차이는 점차 적어질 전망이다

□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여자의 비중은 57.1%로 남자 42.9%보다 14.2%p 많지만, 지속적으로 여자 비중은 감소하고 남자 비중은 증가하여 2060년에는 그 차이가 4.6%p로 적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75.3명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91.3명이 될 것으로 보임

<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성비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특별추계」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명, %, 여자 100명당 명)

	65세 이상	남 자	비 중 ¹⁾	구성비 ²⁾	여 자	비 중 ¹⁾	구성비 ²⁾	성 비 ³⁾
2000	3,375	1,289	38.2	5.6	2,086	61.8	9.1	61.8
2005	4,372	1,740	39.8	7.4	2,632	60.2	11.1	66.1
2010	5,434	2,202	40.5	9.1	3,232	59.5	13.2	68.2
2017	7,171	3,052	42.6	11.8	4,119	57.4	16.1	74.1
2018	7,455	3,188	42.8	12.3	4,267	57.2	16.6	74.7
2019 ⁴⁾	7,685	3,300	42.9	12.7	4,385	57.1	17.0	75.3
2020	8,125	3,513	43.2	13.5	4,613	56.8	17.9	76.2
2030	12,980	5,889	45.4	22.7	7,091	54.6	27.3	83.0
2040	17,224	7,942	46.1	31.4	9,282	53.9	36.3	85.6
2050	19,007	8,841	46.5	37.4	10,166	53.5	42.2	87.0
2060	18,815	8,980	47.7	42.4	9,835	52.3	45.4	91.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외국인 포함),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 3.

주: 1) 비중 = (65세 이상 남자(여자)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00

2) 구성비 = (65세 이상 남자(여자) 인구 / 총 남자(여자) 인구) × 100

3) 65세 이상 여자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남자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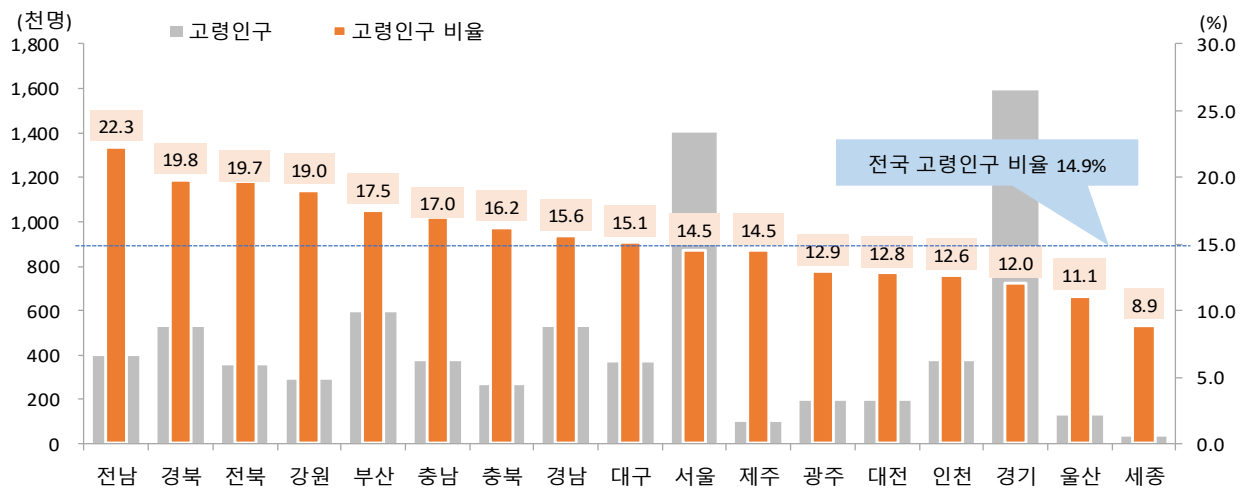
4) 2018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019년 이후는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

3. 지역별 고령인구

2019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22.3%)이 가장 높고, 세종(8.9%)이 가장 낮음

- 2019년 지역별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북(19.8%), 전북(19.7%) 순이며, 세종(8.9%), 울산(11.1%), 경기(12.0%) 순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 전남, 경북, 전북, 강원 4개 지역은 앞으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45년에는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고령인구 및 비율(2019년) >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명, %)

	2019			2025			2035			2045		
	인구	비율	비율순위	인구	비율	비율순위	인구	비율	비율순위	인구	비율	비율순위
전국	7,685	14.9	-	10,511	20.3	-	15,237	29.5	-	18,329	37.0	-
서울	1,402	14.5	10	1,862	19.9	10	2,540	28.4	10	2,980	35.3	12
부산	591	17.5	5	784	24.4	5	1,004	33.4	5	1,089	39.7	6
대구	368	15.1	9	494	21.1	9	691	31.2	8	784	38.4	8
인천	370	12.6	14	550	18.4	12	867	28.4	10	1,080	36.3	10
광주	193	12.9	12	261	18.0	14	377	27.3	14	452	35.2	13
대전	193	12.8	13	270	18.4	12	392	27.7	13	471	35.0	14
울산	127	11.1	16	193	17.3	15	302	28.2	12	352	35.6	11
세종	30	8.9	17	49	11.6	17	97	18.3	17	153	26.0	17
경기	1,590	12.0	15	2,379	17.0	16	3,792	26.2	16	4,783	33.8	16
강원	287	19.0	4	387	25.6	3	546	35.9	3	649	43.6	3
충북	263	16.2	7	357	21.6	6	529	31.4	7	646	39.1	7
충남	372	17.0	6	488	21.5	7	714	30.4	9	897	38.4	8
전북	355	19.7	3	441	25.2	4	587	34.7	4	683	42.5	4
전남	396	22.3	1	475	27.4	1	630	37.1	1	740	45.3	1
경북	527	19.8	2	673	25.7	2	922	36.1	2	1,064	43.9	2
경남	524	15.6	8	716	21.4	8	1,039	31.7	6	1,230	39.8	5
제주	96	14.5	10	132	18.5	11	208	26.9	15	275	34.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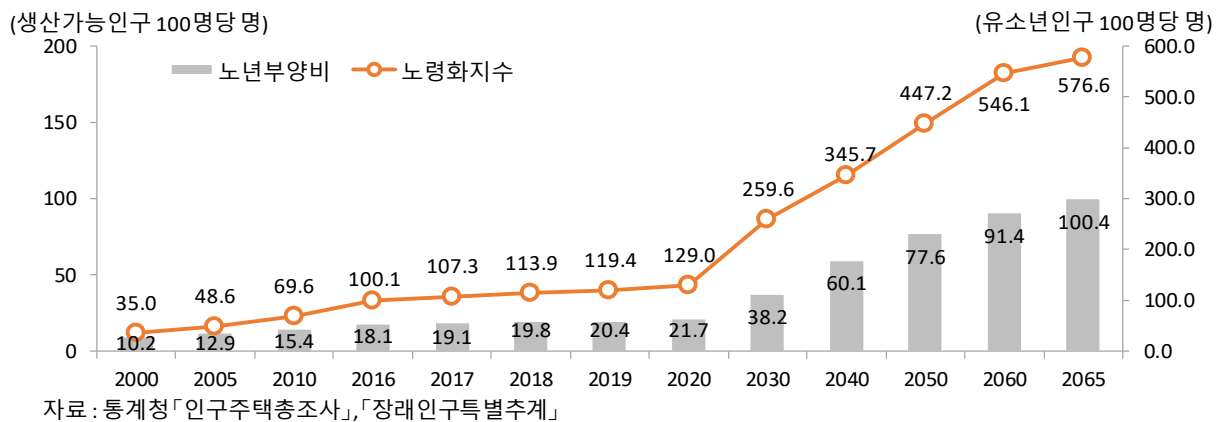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 6.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생산연령인구(15~64세) 4.9명이 부양함

- 2019년 노년부양비는 20.4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명에 대해 생산연령인구 4.9명이 부양함
 -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노년부양비 증가속도가 빨라져 2065년에는 100.4명으로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 노령화지수는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로 2016년 100.1명으로 0~14세 인구를 넘어서, 2019년 119.4명으로 나타남
 -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현재의 4.6배 수준인 546.1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단위: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노년부양비 ¹⁾	노령화지수 ²⁾	고령자 1명당 생산연령인구 ³⁾
2000	10.2	35.0	9.8
2005	12.9	48.6	7.8
2010	15.4	69.6	6.5
2016	18.1	100.1	5.5
2017	19.1	107.3	5.2
2018	19.8	113.9	5.0
2019⁴⁾	20.4	119.4	4.9
2020	21.7	129.0	4.6
2030	38.2	259.6	2.6
2040	60.1	345.7	1.7
2050	77.6	447.2	1.3
2060	91.4	546.1	1.1
2065	100.4	576.6	1.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외국인 포함),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 3.

주: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3) 고령자 1명당 생산연령인구 = 15~64세 인구 / 65세 이상 인구

4) 2018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019년 이후는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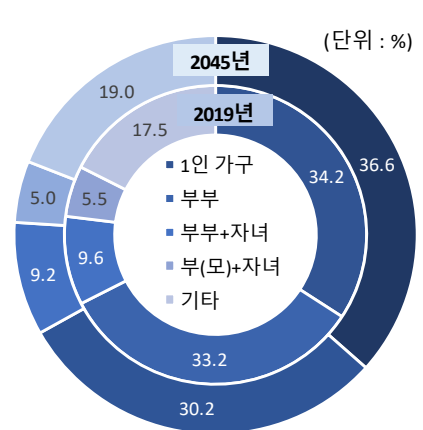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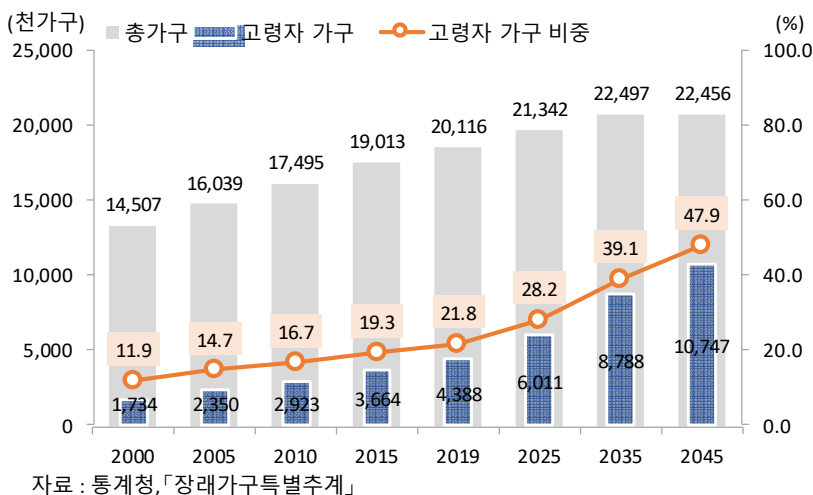
5. 고령자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2045년에 전체 가구의 47.9%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고령자 가구(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는 438만8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8%를 차지하며, 이는 계속 증가하여 2045년에는 47.9%가 될 전망이다
- 2019년 고령자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3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부(33.2%), 부부+자녀(9.6%), 부(모)+자녀(5.5%) 순임

< 고령자 가구 추이 >

<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



【 고령자 가구¹⁾ 추이 】

(단위: 천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	비중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부부	구성비	부부+ 자녀	구성비	부(모) +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2005	16,039	2,350	14.7	796	33.9	243	10.3	116	4.9	746	31.7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2015	19,013	3,664	19.3	1,215	33.2	367	10	206	5.6	1,203	32.8
2019	20,116	4,388	21.8	1,455	33.2	423	9.6	241	5.5	1,500	34.2
2020	20,350	4,642	22.8	1,536	33.1	450	9.7	255	5.5	1,589	34.2
2025	21,342	6,011	28.2	1,967	32.7	594	9.9	328	5.5	2,064	34.3
2030	22,036	7,438	33.8	2,420	32.5	729	9.8	400	5.4	2,586	34.8
2035	22,497	8,788	39.1	2,821	32.1	842	9.6	459	5.2	3,131	35.6
2040	22,651	10,012	44.2	3,136	31.3	943	9.4	510	5.1	3,623	36.2
2045	22,456	10,747	47.9	3,251	30.2	990	9.2	533	5.0	3,933	36.6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9. 9.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II. 가 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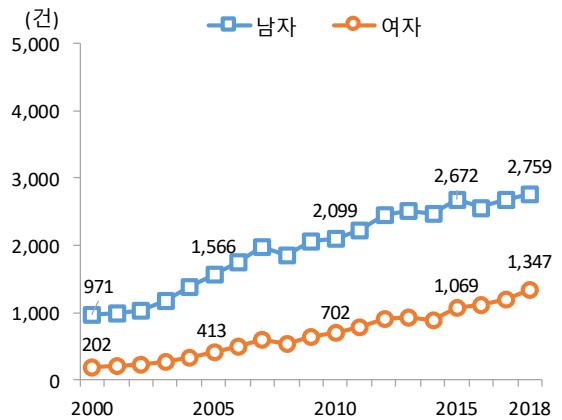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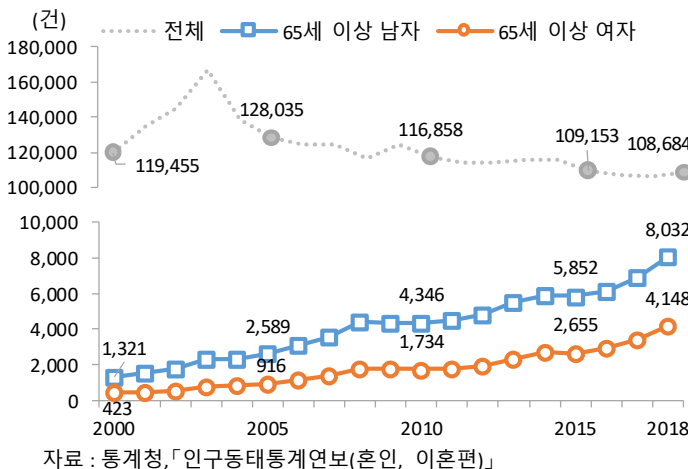
6. 이혼 및 재혼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재혼 건수는 남녀 모두 증가함

- 2018년 전체 이혼 건수는 2.5% 증가하였는데,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각각 16.7%, 21.0% 증가함
- 2018년 전체 남녀 재혼 건수는 전년도보다 모두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재혼 건수는 남자 2,759건, 여자 1,347건으로 각각 2.8%, 12.1% 증가함
- 65세 이상 재혼 건수는 남녀 모두 이혼 후 재혼이 사별 후 재혼보다 많음

< 이혼 건수 >

< 고령자 재혼 건수(65세이상) >



【 이혼 및 재혼 】

(단위: 건, %)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65세 이상	사별 후	이혼 후	전체	65세 이상	사별 후	이혼 후
2000	119,455	1,321	423	43,370	971	607	364	48,132	202	109	93
2005	128,035	2,589	916	59,662	1,566	687	879	66,587	413	171	242
2008	116,535	4,409	1,738	57,217	1,855	606	1,249	62,758	548	169	379
2010	116,858	4,346	1,734	53,043	2,099	624	1,475	57,451	702	186	516
2015	109,153	5,852	2,655	46,388	2,672	501	2,171	52,747	1,069	184	885
2016	107,328	6,101	2,910	43,286	2,568	436	2,132	48,899	1,109	184	925
2017	106,032	6,883	3,427	41,712	2,684	461	2,223	47,374	1,202	173	1,029
2018	108,684	8,032	4,148	41,115	2,759	444	2,315	46,747	1,347	213	1,134
증감	2.5	16.7	21.0	-1.4	2.8	-3.7	4.1	-1.3	12.1	23.1	10.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7. 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2018년 고령자는 이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재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함

- 고령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19.9%)」 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23.3%) 보다 3.4%p 감소함
- 반면,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10.4%)」 는 2년 전(9.1%) 보다 1.3%p 증가함
- 재혼에 대해서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49.2%로 가장 많음

【 이혼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

(단위: %)

	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2014	100.0	29.1	39.8	20.2	7.7	3.2
2016	100.0	23.3	40.8	24.6	9.1	2.2
2018	100.0	19.9	39.9	26.7	10.4	3.1
남자	100.0	20.0	41.0	27.1	9.7	2.3
여자	100.0	19.9	39.1	26.5	11.0	3.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재혼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

(단위: %)

	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2014	100.0	2.0	21.6	44.3	16.8	7.3	8.0
2016	100.0	2.1	19.8	49.2	16.2	6.8	5.9
2018	100.0	2.1	18.4	49.2	16.1	6.3	7.8
남자	100.0	2.6	22.3	51.0	11.7	5.0	7.5
여자	100.0	1.8	15.5	47.9	19.4	7.3	8.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8. 거처 유형

2018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는 50.4%로 절반을 넘어섰음

- 2018년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는 47.9%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39.7%), 연립·다세대(10.7%) 순으로 나타남

* 고령자 가구: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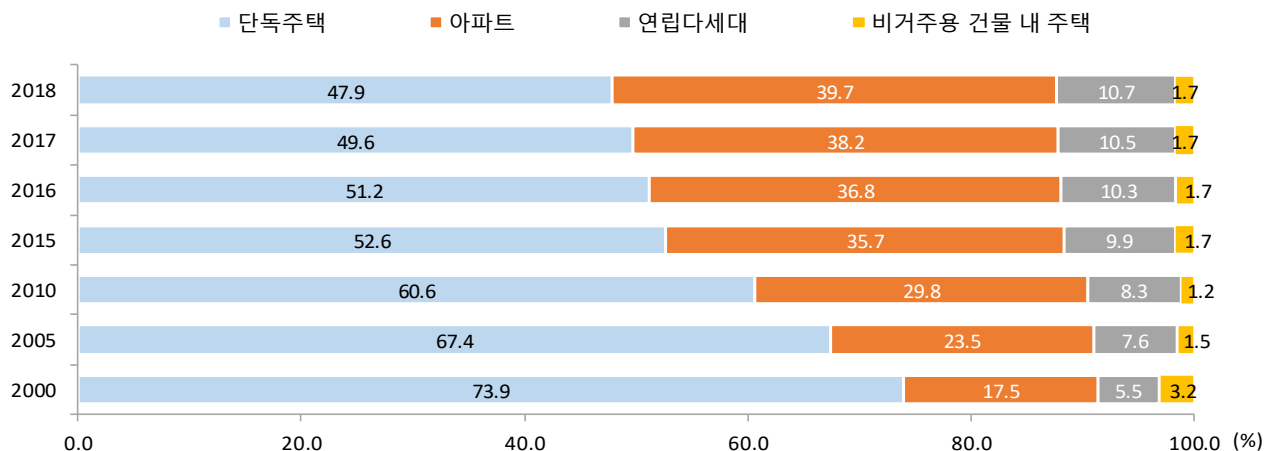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이며,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로서 2018년 50.4%로 절반을 넘어섰음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73.9('00) → 67.4('05) → 60.6('10) → 52.6('15) → 47.9('18)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23.0('00) → 31.1('05) → 38.1('10) → 45.6('15) → 50.4('18)

*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 : 17.5('00) → 23.5('05) → 29.8('10) → 35.7('15) → 39.7('18)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비율(%) : 5.5('00) → 7.6('05) → 8.3('10) → 9.9('15) → 10.7('18)

- 2018년 전체 가구는 아파트(52.5%), 단독주택(33.7%) 순으로 많이 거주하여 고령자 가구와 차이를 보임

< 고령자 가구의 주택 유형 구성비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고령자 가구의 거처 유형 】

(단위: 천 가구, %)

		일반 가구	주택	소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주택 이외의 거처
전체 가구(2018)		19,979	19,059	100.0	33.7	52.5	12.1	1.7	920
고령자 가구 ¹⁾	2000	1,734	1,726	100.0	73.9	17.5	5.5	3.2	8
	2005	2,448	2,436	100.0	67.4	23.5	7.6	1.5	13
	2010	3,111	3,089	100.0	60.6	29.8	8.3	1.2	22
	2015	3,720	3,644	100.0	52.6	35.7	9.9	1.7	76
	2016	3,867	3,786	100.0	51.2	36.8	10.3	1.7	82
	2017	4,065	3,976	100.0	49.6	38.2	10.5	1.7	89
	2018	4,238	4,142	100.0	47.9	39.7	10.7	1.7	9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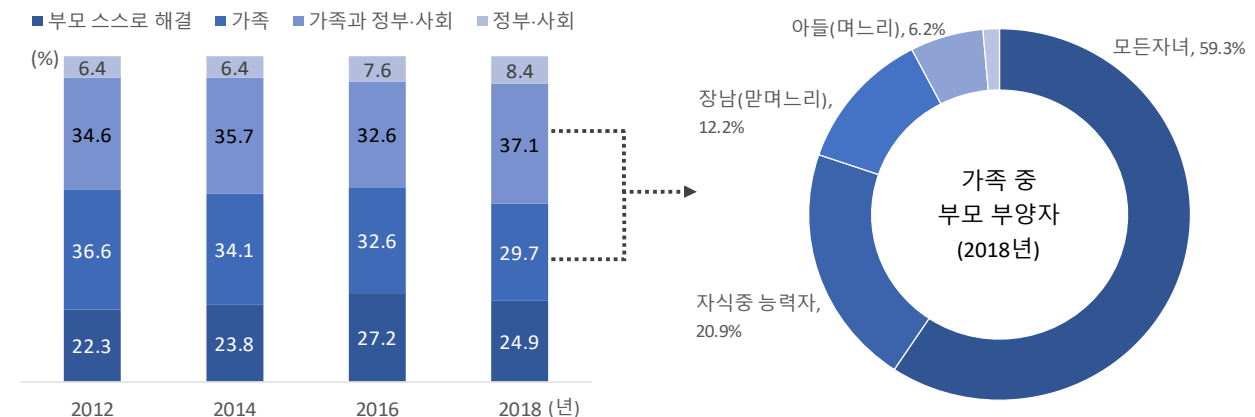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9.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부모의 노후 생계는 「스스로 해결」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감소하고, 「가족과 정부·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증가함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부모의 노후를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족(29.7%)」, 「부모 스스로 해결(24.9%)」 순으로 나타남
- 가족 중에는 「모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가 5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식 중 능력 있는 자」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9%임
- 부모 부양을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자(27.2%)가 여자(23.1%)보다 높고,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31.2%)가 남자(27.5%)보다 높게 나타남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

(단위: %)

	계	부 스 스 결 해	가족	가족과 정 부 사 회	정 부 사 회	가족 중 부모 부양자					
						소계 ¹⁾	장남 (만 며 느 리)	아 들 (며 느 리)	딸 (사 위)	모 든 자 녀	자 식 중 능 력 있 는 자
2012	100.0	22.3	36.6	34.6	6.4	100.0	16.7	5.5	0.6	60.8	16.4
2014	100.0	23.8	34.1	35.7	6.4	100.0	14.2	5.0	0.7	62.4	17.8
2016	100.0	27.2	32.6	32.6	7.6	100.0	12.4	5.4	1.0	60.0	21.1
2018	100.0	24.9	29.7	37.1	8.4	100.0	12.2	6.2	1.4	59.3	20.9
남자	100.0	27.2	27.5	37.9	7.4	100.0	11.6	5.7	0.7	59.6	22.4
여자	100.0	23.1	31.2	36.5	9.1	100.0	12.6	6.6	1.8	59.1	19.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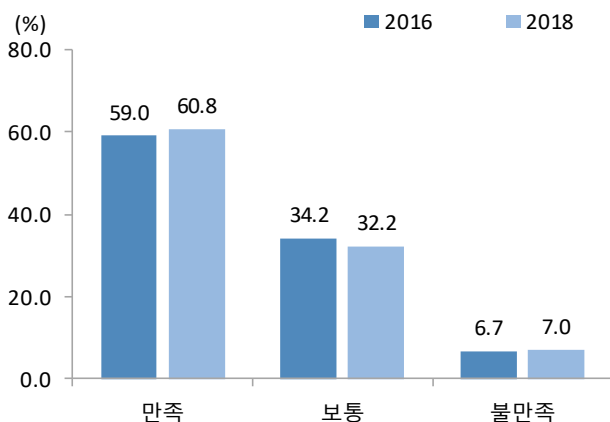
주: 1)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자임

10. 가족 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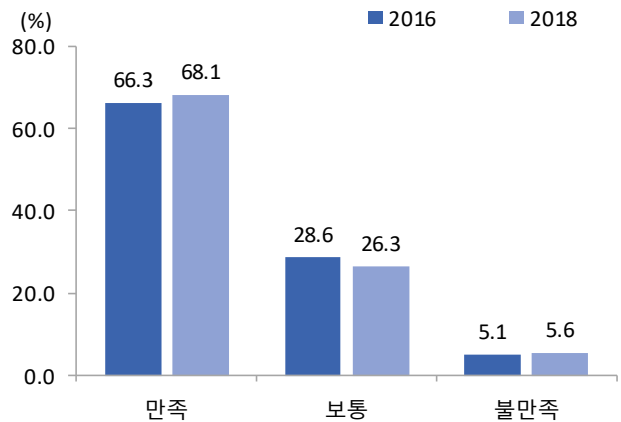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족관계에 대해 배우자와는 60.8%, 자녀와는 68.1%가 만족함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0.8%로 2년 전(59.0%)보다 1.8%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3%, 여자는 50.6%가 만족하여 부인보다 남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17.7%p 높게 나타남
- 고령자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또한 68.1%로 2년 전(66.3%)보다 1.8%p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7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5~69세가 69.4%, 70~79세는 66.3%로 나타남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65세 이상)>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65세 이상)>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가족관계 만족도(65세 이상)】

(단위: %)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2016	59.0	34.2	6.7	66.3	28.6	5.1
2018	60.8	32.2	7.0	68.1	26.3	5.6
남 자	68.3	27.7	4.0	67.7	26.1	6.2
여 자	50.6	38.3	11.1	68.4	26.4	5.1
65~69세	62.2	31.1	6.7	69.4	25.5	5.1
70~79세	58.5	33.5	8.0	66.3	27.4	6.3
80세 이상	65.5	30.7	3.8	70.5	24.9	4.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2)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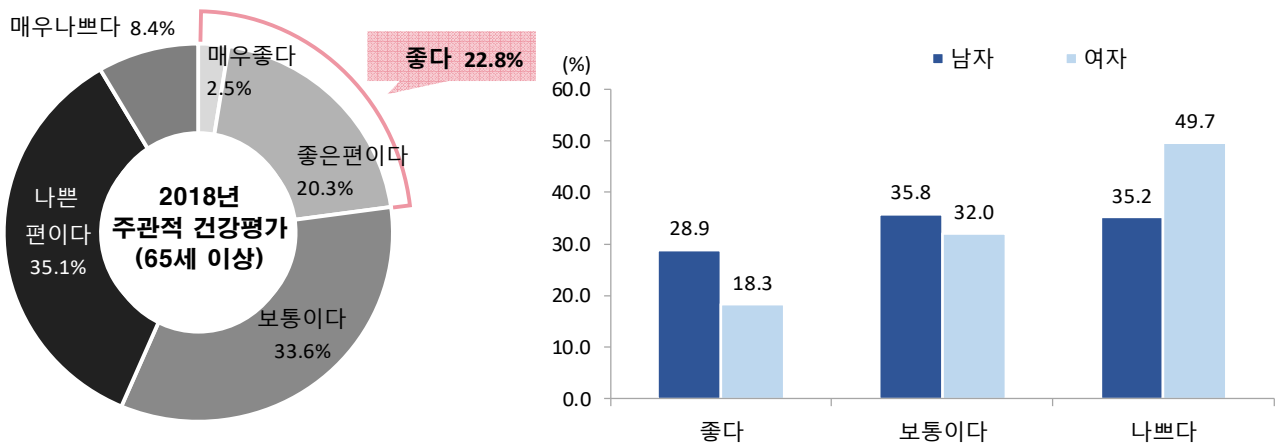
III. 보 건

11. 주관적 건강평가

2018년 본인이 평소 「건강이 좋다」 는 고령자는 22.8%로 2016년(22.3%)보다 0.5%p 증가함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이 좋다」 22.8%, 「건강이 나쁘다」 는 43.5%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20.7%p 더 높음
- 2년 전보다 「건강이 좋다」 는 0.5%p 증가하였고, 「건강이 나쁘다」 는 2년 전과 동일한 수준임
- 자신이 평소 「건강이 나쁘다」 고 평가하는 비율은 65세 이상 여자(49.7%)가 남자(35.2%)보다 상대적으로 14.5%p 높음

< 주관적 건강상태(65세 이상, 2018)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

【 주관적 건강평가(65세 이상) 】

(단위: %)

	계	좋다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보통이다	나쁘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2012	100.0	19.5	3.2	16.3	31.1	49.4	38.4	11.0
2014	100.0	20.9	2.7	18.2	31.4	47.7	38.4	9.4
2016	100.0	22.3	3.1	19.2	34.2	43.5	35.5	7.9
2018	100.0	22.8	2.5	20.3	33.6	43.5	35.1	8.4
남 자	100.0	28.9	2.9	26.0	35.8	35.2	28.0	7.3
여 자	100.0	18.3	2.2	16.1	32.0	49.7	40.4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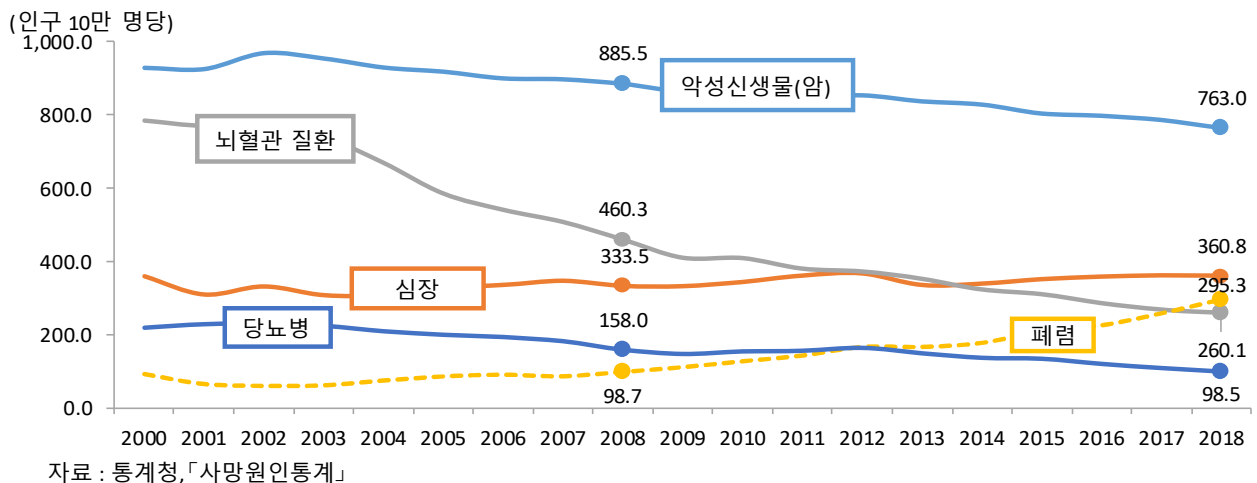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12. 사망원인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763.0명)」, 「심장 질환(360.8명)」, 「폐렴(295.3명)」 순임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763.0명이 사망하였고, 그 다음은 심장 질환(360.8명), 폐렴(295.3명) 순임
- 악성신생물(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2010년 5순위에 진입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망원인 5순위 중 심장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특히 남자의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자보다 587.2명 높아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65세 이상) >



【 사망원인 및 사망률(65세 이상) 】

(단위: 인구 10만 명당)

	1위	2위	3위	4위	5위
2000	악성신생물(암) (929.7)	뇌혈관 질환 (785.3)	심장 질환 ¹⁾ (358.9)	당뇨병 (218.4)	만성 하기도 질환 ²⁾ (209.1)
2008	악성신생물(암) (885.5)	뇌혈관 질환 (460.3)	심장 질환 (333.5)	당뇨병 (158.0)	만성 하기도 질환 (136.1)
2010	악성신생물(암) (882.4)	뇌혈관 질환 (409.4)	심장 질환 (344.0)	당뇨병 (153.1)	폐렴 (127.6)
2015	악성신생물(암) (803.0)	심장 질환 (351.0)	뇌혈관 질환 (311.1)	폐렴 (209.1)	당뇨병 (133.2)
2016	악성신생물(암) (796.2)	심장 질환 (357.7)	뇌혈관 질환 (286.9)	폐렴 (225.1)	당뇨병 (119.5)
2017	악성신생물(암) (784.4)	심장 질환 (361.3)	뇌혈관 질환 (268.6)	폐렴 (257.6)	당뇨병 (108.2)
2018	악성신생물(암) (763.0)	심장 질환 (360.8)	폐렴 (295.3)	뇌혈관 질환 (260.1)	당뇨병 (98.5)
남 자	악성신생물(암) (1,099.6)	심장 질환 (356.1)	폐렴 (347.7)	뇌혈관 질환 (264.3)	만성 하기도 질환 (124.7)
여 자	악성신생물(암) (512.4)	심장 질환 (364.2)	뇌혈관 질환 (257.1)	폐렴 (256.2)	알츠하이머병 (102.7)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주: 1)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기타 심장 질환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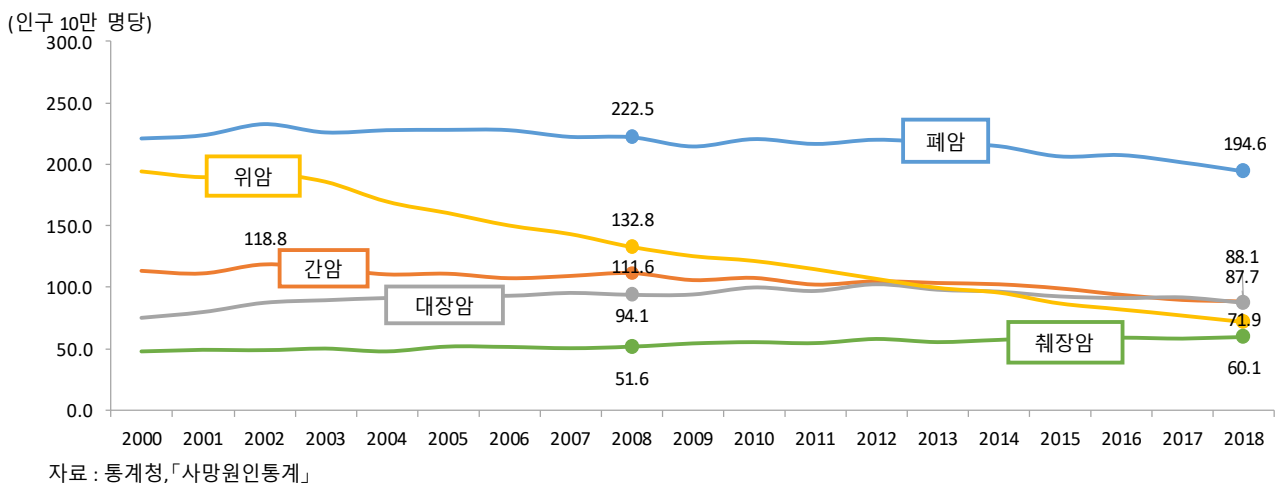
2) 만성 하기도 질환: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13. 암 종류별 사망률

2018년 암 종류별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률은 「폐암(194.6명)」, 「대장암(88.1명)」, 「간암(87.7명)」 순임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암 종류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이 인구 10만 명당 194.6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장암(88.1명), 간암(87.7명) 순임
- 주요 암 종류별 사망률은 대부분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췌장암(60.1명) 및 전립선암(25.2명) 사망률은 각각 전년보다 1.4명, 1.6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남자는 간암, 여자는 대장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남

< 고령자 암 종류별 사망률(65세 이상) >



【 암 종류별 사망률(65세 이상) 】

(단위: 인구 10만 명당)

	폐 암	대 장 암	간 암	위 암	췌 장 암	전립선암	식도암	백혈병	유방암	자궁암
2000	221.6	75.4	113.5	194.1	47.5	14.4	24.3	11.4	8.0	8.9
2008	222.5	94.1	111.6	132.8	51.6	21.4	19.7	12.1	10.0	9.8
2010	221.1	100.0	107.6	121.5	55.6	22.5	18.3	14.4	9.7	10.0
2015	206.7	92.8	99.1	86.8	59.3	24.2	16.3	14.1	11.2	7.6
2016	207.8	91.4	93.6	82.1	59.5	23.7	15.5	14.8	11.8	6.5
2017	201.9	91.9	89.5	77.1	58.7	23.6	13.9	15.5	12.3	9.1
2018	194.6	88.1	87.7	71.9	60.1	25.2	13.2	14.6	11.7	8.5
남자	338.3	110.1	134.6	108.0	68.7	59.1	28.5	19.8	0.3	-
여자	87.6	71.7	52.8	45.0	53.6	-	1.9	10.7	20.2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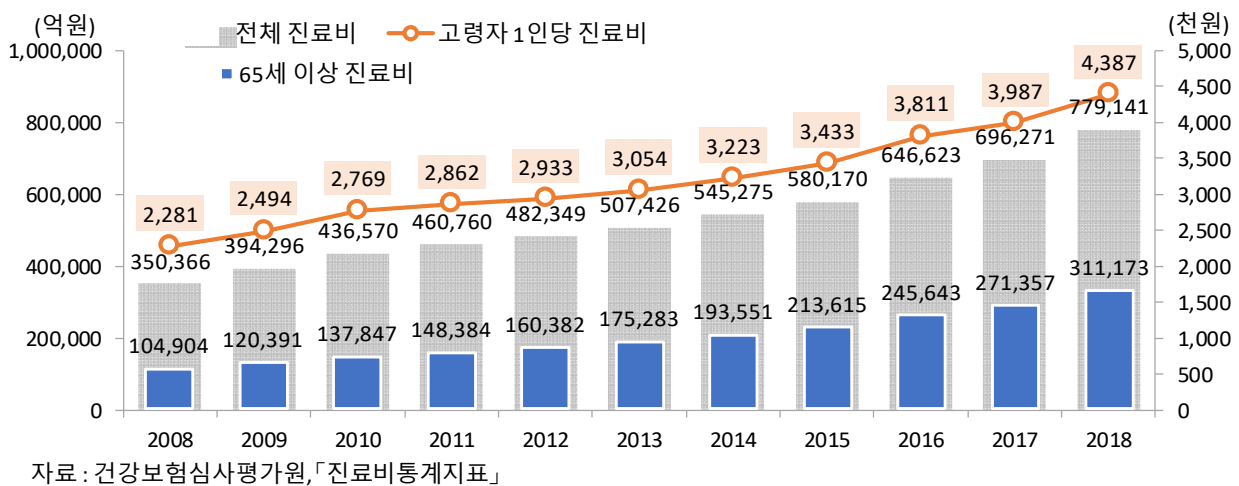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14. 건강보험 상 진료비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438만 7천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임

- 2018년 건강보험 상 전체 진료비는 77조 9,141억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의 39.9%인 31조 1,173억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함
-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438만 7천원으로 전년(398만 7천원)보다 10.0% 증가 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임

< 건강보험 상 진료비 >



【 건강보험 상 진료비¹⁾ 】

(단위: 억원, 천원, %)

	전체	증감률	1인당 진료비 ²⁾	증감률	65세 이상	증감률	구성비 ³⁾	1인당 진료비 ²⁾	증감률
2008	350,366	8.6	728	7.8	104,904	15.5	29.9	2,281	10.2
2009	394,296	12.5	811	11.5	120,391	14.8	30.5	2,494	9.4
2010	436,570	10.7	893	10.1	137,847	14.5	31.6	2,769	11.0
2011	460,760	5.5	935	4.7	148,384	7.6	32.2	2,862	3.4
2012	482,349	4.7	971	3.9	160,382	8.1	33.3	2,933	2.5
2013	507,426	5.2	1,015	4.5	175,283	9.3	34.5	3,054	4.1
2014	545,275	7.5	1,084	6.8	193,551	10.4	35.5	3,223	5.5
2015	580,170	6.4	1,149	6.0	213,615	10.4	36.8	3,433	6.5
2016	646,623	11.5	1,274	10.9	245,643	15.0	38.0	3,811	11.0
2017	696,271	7.7	1,367	7.3	271,357	10.5	39.0	3,987	4.6
2018	779,141	11.9	1,526	11.6	311,173	14.7	39.9	4,387	1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각년도

주: 1) 진료비는 심사실적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보험자부담금+환자본인부담금) 비용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적용대상자(해당년도 12월말 기준)

3) 구성비 =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 / 전체 진료비) × 100

IV. 경제활동

15.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2019년 고령층(55~79세)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직업별 취업자는 단순노무종사자 직종이 가장 많음

- 2019년 고령층(55~79세)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19.8%)」, 「농림어업(13.8%)」 순임
-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은 각각 0.8%p, 0.2%p 상승한 반면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비중은 각각 0.6%p, 0.2%p 하락함
- 전체 취업자보다 고령층(13.8%)의 「농림어업」 비중이 8.3%p 더 높음

【 산업별¹⁾ 취업자 분포(55~79세) 】

(단위: 천명, %)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통신 금융업
전 체 ²⁾ (2019년)	27,322	100.0	5.5	16.3	16.2	78.2	7.5	22.1	37.3	11.4
55~ 79세	2015	6,376	100.0	16.5	10.7	72.7	7.8	20.6	34.4	9.9
	2016	6,715	100.0	14.8	11.4	73.8	8.2	20.2	34.9	10.5
	2017	7,117	100.0	14.3	11.8	73.9	8.7	19.9	35.3	10.0
	2018	7,421	100.0	14.4	11.8	73.8	8.7	19.6	35.6	10.0
	2019	7,739	100.0	13.8	11.6	74.6	8.6	19.8	36.4	9.8
	55~64세	5,350	100.0	8.6	14.1	77.3	10.7	22.1	33.6	10.9
	65~79세	2,389	100.0	25.3	6.2	68.5	3.9	14.6	42.8	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 2019년 55~79세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24.3%)」, 「서비스·판매종사자(23.0%)」,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55~64세는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5.5%)」, 「서비스·판매종사자(25.1%)」 비중이 높고, 65~79세는 「단순노무종사자(35.4%)」, 「농림어업숙련 종사자(24.0%)」 비중이 높음

【 직업별¹⁾ 취업자 분포(55~79세) 】

(단위: 천명, %)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전 체 ²⁾ (2019년)	27,322	100.0	21.8	17.3	22.6	5.2	19.8	13.3
55~ 79세	2015	6,376	100.0	9.1	5.8	20.9	15.2	27.0
	2016	6,715	100.0	9.2	6.5	21.3	13.8	26.1
	2017	7,117	100.0	9.6	6.9	21.9	13.5	25.2
	2018	7,421	100.0	10.5	7.0	22.1	13.7	24.4
	2019	7,739	100.0	10.5	7.1	23.0	13.2	24.3
	55~64세	5,350	100.0	12.7	9.0	25.1	8.4	19.3
	65~79세	2,389	100.0	5.6	2.8	18.2	24.0	3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16. 근속기간

2019년 취업 경험자(55~64세)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5.7개월임

- 2019년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5.7개월로 전년(15년 4.9개월)보다 0.8개월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19년 2.2개월)가 여자 (11년 8.1개월)보다 평균 근속기간이 7년 6.1개월 더 김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¹⁾(55~64세)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 체	16년 11.7개월	16년 4.4개월	16년 5.8개월	16년 4.2개월	15년 10.4개월	15년 4.3개월	14년 9.5개월	14년 11개월	15년 3.5개월	15년 4.9개월	15년 5.7개월
남 자	20년 5개월	20년 0.5개월	20년 0.9개월	19년 11.2개월	19년 5.2개월	19년 0.4개월	18년 7.9개월	18년 10.1개월	19년 3.5개월	19년 3개월	19년 2.2개월
여 자	13년 4.5개월	12년 6.7개월	12년 9.3개월	12년 7.7개월	12년 1.7개월	11년 6.9개월	10년 10.2개월	10년 11.1개월	11년 2.4개월	11년 5.7개월	11년 8.1개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현재 취업자(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 포함)와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

- 2019년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이 3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19.8%)」,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3.8%)」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원고사작 명예퇴직, 정리해고」, 「정년퇴직」 비율이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비율이 높음

【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55세~64세, 2019년) 】

(단위: %)

	계 ¹⁾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 다고 생각해서	기타 ²⁾
전 체	100.0	7.1	12.2	33.0	13.8	19.8	1.9	12.1
(이직연령)	49.4세	58.8세	51.8세	50.9세	38.2세	51.4세	51.1세	46.3세
남 자	100.0	11.9	18.9	39.1	1.1	14.0	1.0	14.0
여 자	100.0	2.9	6.3	27.6	25.0	25.0	2.8	1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19. 5월

주: 1)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

2)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자영업을 하기 위해', '기타' 포함

17.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2019년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고령자는 64.9%로 증가 추세임

□ 2019년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로 전년 (64.1%)보다 0.8%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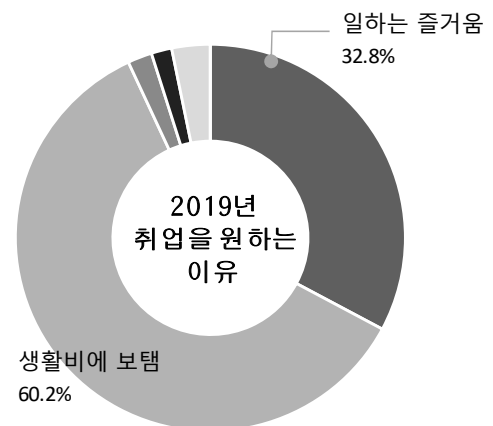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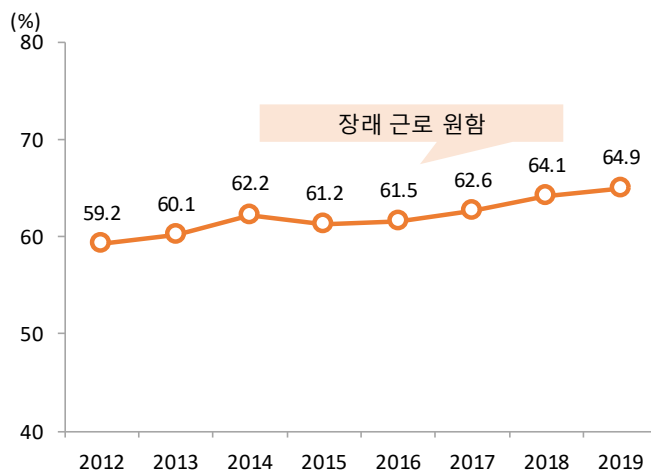
○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60.2%)」 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32.8%)」 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동안 「생활비 보탬」 은 증가 추세이며, 「일하는 즐거움」 은 감소 추세임

○ 성별로 보면, 남자(75.5%)가 여자(55.2%)보다 장래에 일하기를 더 원했으며, 근로 희망 사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 보탬」 , 「일하는 즐거움」 순으로 나타남

< 장래 근로 원함(55세~79세) >

< 취업을 원하는 이유(55세~79세, 2019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

(단위: %)

	장래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로 해서	기타
2009	57.7	100.0	33.6	56.6	2.0	2.6	5.0	0.2
2012	59.2	100.0	36.5	54.5	1.9	2.1	4.7	0.2
2013	60.1	100.0	36.9	54.8	1.9	1.7	4.5	0.2
2014	62.2	100.0	38.8	54.1	1.6	1.5	3.8	0.1
2015	61.2	100.0	35.9	57.1	1.8	1.6	3.6	0.1
2016	61.5	100.0	34.8	58.1	2.2	1.5	3.3	0.0
2017	62.6	100.0	34.4	58.3	2.3	1.6	3.3	0.1
2018	64.1	100.0	33.9	59.0	2.2	1.5	3.3	0.0
2019	64.9	100.0	32.8	60.2	2.0	1.7	3.2	0.0
남 자	75.5	100.0	35.4	57.6	2.8	1.7	2.5	0.0
여 자	55.2	100.0	29.6	63.4	1.0	1.8	4.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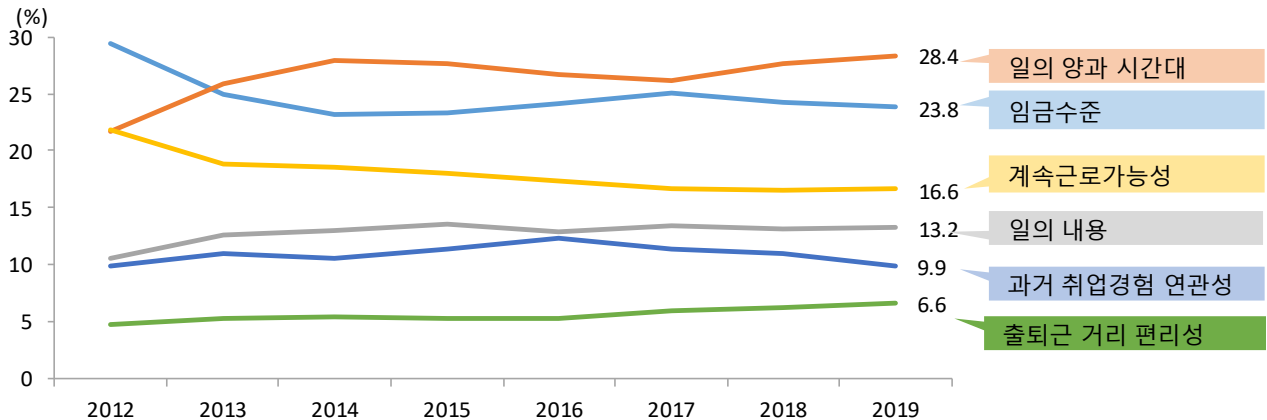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18. 일자리 선택기준

2019년 55~79세 고령자는 일자리 선택 시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고려함

- 2019년 55~79세 고령자 중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28.4%)」, 「임금수준(23.8%)」, 「계속근로 가능성(16.6%)」 순으로 나타남
- 전년보다 「일의 양과 시간대」, 「계속근로 가능성」, 「일의 내용」, 「출퇴근의 편리성」은 증가한 반면, 「임금수준」, 「과거 취업경험 연관성」은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임금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순으로, 여자는 「일의 양과 시간대」, 「임금수준」 순으로 나타남

<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일자리 선택기준(55~79세) 】

(단위: %)

	계 ¹⁾	임금수준	일의 양과 시간대	일의 내용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계속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경험 연관성	기타 ²⁾
2009	100.0	38.6	17.3	8.0	3.5	21.7	8.9	2.1
2012	100.0	29.4	21.7	10.6	4.7	21.8	9.9	1.9
2013	100.0	24.9	25.9	12.6	5.3	18.8	11.0	1.6
2014	100.0	23.2	27.9	13.0	5.4	18.6	10.5	1.4
2015	100.0	23.3	27.6	13.5	5.3	18.0	11.3	1.0
2016	100.0	24.1	26.7	12.9	5.2	17.4	12.3	1.4
2017	100.0	25.1	26.2	13.4	6.0	16.6	11.4	1.4
2018	100.0	24.2	27.6	13.1	6.2	16.5	11.0	1.4
2019	100.0	23.8	28.4	13.2	6.6	16.6	9.9	1.5
남 자	100.0	25.9	22.2	14.2	4.4	18.9	12.3	2.2
여 자	100.0	21.3	36.0	11.9	9.4	13.7	7.0	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장래근로 희망자

2) '사업장 규모', '사회적 지위유지 가능성', '기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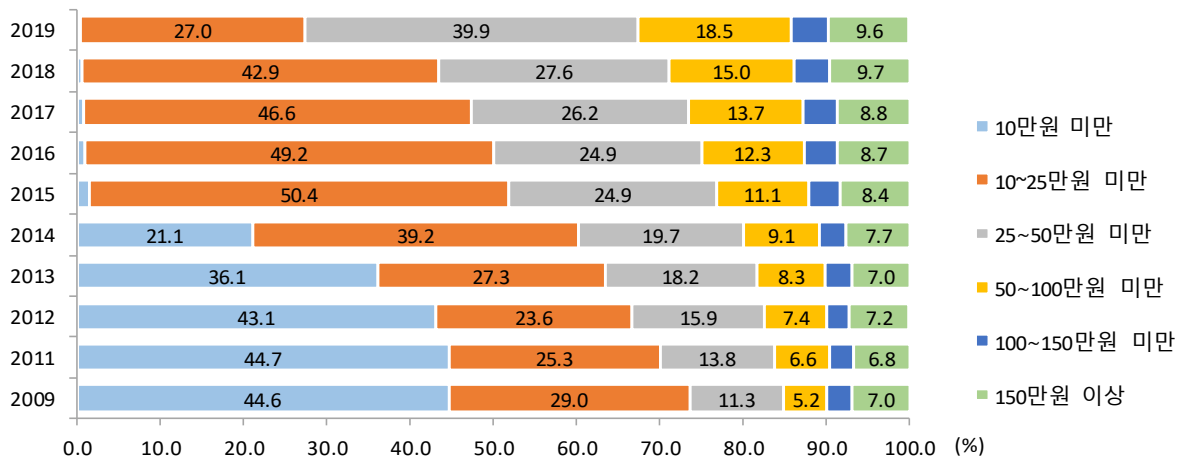
V. 복 지

19. 연금 수령

2019년 고령자(55~79세) 중 연금 수령자는 45.9%이고,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61만원으로 전년(45.6%, 57만원)보다 각각 0.3%p, 4만원 증가함

- 지난 1년간 55~79세 고령자 중 연금수령자는 45.9%인 635만 8천명으로 전년(45.6%)보다 0.3%p 증가함
- 55~79세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전년보다 4만원 증가한 평균 6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 79만원, 여자 41만원으로 남자는 10~100만원에 78.2%가 분포되어있는 반면, 여자는 10~50만원 연금을 받는 구성비가 83.4%로 가장 많음

< 금액대별 연금 수령 구성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연금¹⁾ 수령(55~79세) 】

(단위: 천명, %, 만원)

	연금 수령자	구성비 ²⁾	금액대별 구성비							월 평균 수령액
			소계	10만원 미만	10~25만원 미만	25~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9	3,966	43.9	100.0	44.6	29.0	11.3	5.2	2.9	7.0	34
2011	4,641	46.9	100.0	44.7	25.3	13.8	6.6	2.8	6.8	36
2012	4,696	45.4	100.0	43.1	23.6	15.9	7.4	2.7	7.2	38
2013	5,046	46.5	100.0	36.1	27.3	18.2	8.3	3.1	7.0	39
2014	5,117	45.2	100.0	21.1	39.2	19.7	9.1	3.3	7.7	42
2015	5,251	44.5	100.0	1.5	50.4	24.9	11.1	3.7	8.4	50
2016	5,379	43.2	100.0	0.9	49.2	24.9	12.3	4.0	8.7	51
2017	5,763	44.6	100.0	0.7	46.6	26.2	13.7	4.0	8.8	53
2018	6,129	45.6	100.0	0.6	42.9	27.6	15.0	4.3	9.7	57
2019	6,358	45.9	100.0	0.4	27.0	39.9	18.5	4.5	9.6	61
남 자	3,283	49.8	100.0	0.2	16.3	35.2	26.7	7.0	14.6	79
여 자	3,075	42.4	100.0	0.5	38.4	45.0	9.7	1.9	4.4	4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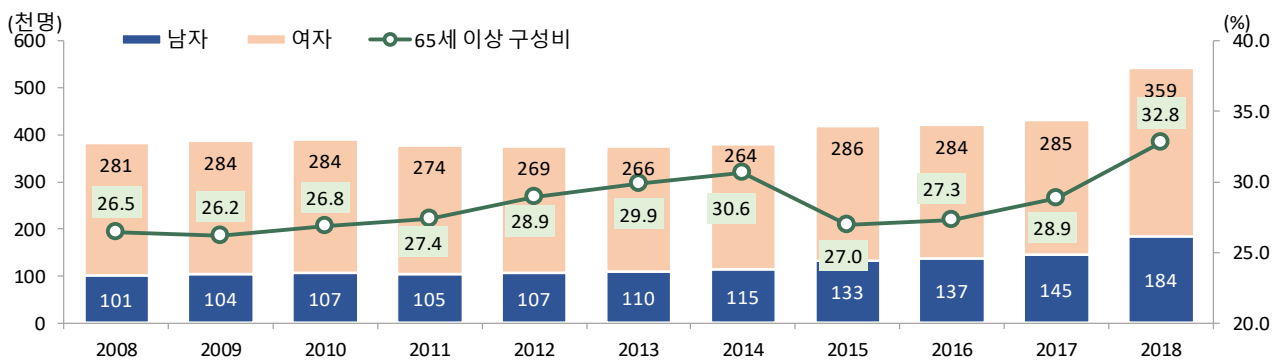
2) 55~79세 인구 중 연금수령자 구성비

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7.4%로 전년 (6.1%)보다 1.3%p 증가함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일반수급자 165만 4천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54만 3천명으로 32.8%를 차지함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7.4%로 전년 (6.1%)보다 1.3%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 수급자(18만4천명)보다 여자 수급자(35만9천명)가 약 2배 많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65세 이상)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단위: 명, %, %p)

	전 체 (일반수급자)	65세 이상	구성비 ¹⁾	남 자	여 자	65세 이상 인구 ³⁾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⁴⁾
2008	1,444,010	382,050	26.5	100,772	281,278	4,988,592	7.7
2011	1,379,865	378,411	27.4	104,901	273,510	5,515,179	6.9
2012	1,300,499	376,098	28.9	107,156	268,942	5,766,729	6.5
2013	1,258,582	376,112	29.9	110,189	265,923	6,022,659	6.2
2014	1,237,386	379,048	30.6	114,731	264,317	6,277,126	6.0
2015 ²⁾	1,554,484	419,452	27.0	133,292	286,160	6,541,168	6.4
2016	1,539,539	420,731	27.3	137,078	283,653	6,757,083	6.2
2017	1,491,650	430,549	28.9	145,164	285,385	7,066,060	6.1
2018	1,653,781	543,256	32.8	184,047	359,209	7,372,160	7.4
증감	162,131	112,707	3.9	38,883	73,824	306,100	1.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주: 1) 구성비 = (65세 이상 수급자 / 전체 수급자) × 100

2) 2015년 상대 빈곤선 도입,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 후 전체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3)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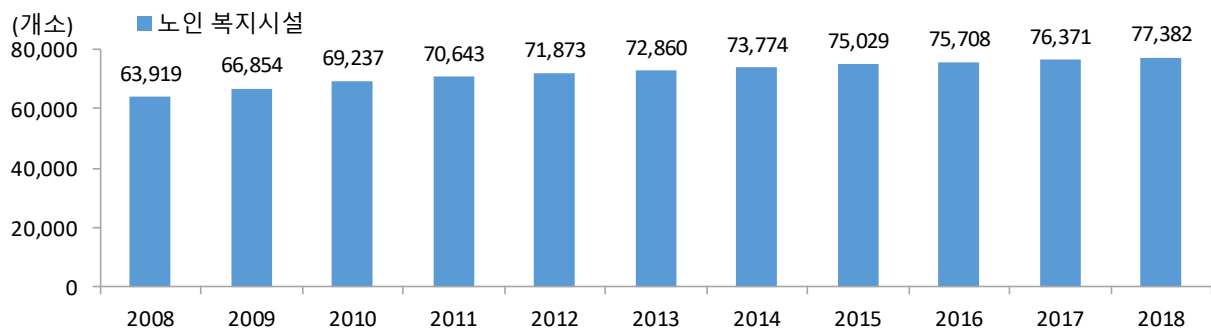
4) 비율 = (65세 이상 수급자 / 65세 이상 인구) × 100

21. 노인 복지시설

2018년 노인 복지시설은 77,382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임

- 2018년 12월말 현재 노인 복지시설은 77,382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임
- 노인 복지시설 중 여가복지시설은 68,013개소로 87.9%를 차지하였고, 그 중에는 경로당이 66,286개소로 가장 많음
- 노인요양시설, 보인복지관, 경로당,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노인 복지시설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 복지시설 】

(단위: 개소)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
총계		71,873	72,860	73,774	75,029	75,708	76,371	77,382	1,011
노인주거복지시설	소계	416	435	443	427	425	404	390	-14
	양로시설	285	285	272	265	265	252	238	-14
	노인공동생활가정	108	125	142	131	128	119	117	-2
	노인복지주택	23	25	29	31	32	33	35	2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4,352	4,585	4,841	5,063	5,163	5,242	5,287	45
	노인요양시설	2,610	2,497	2,707	2,933	3,136	3,261	3,390	12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742	2,088	2,134	2,130	2,027	1,981	1,897	-84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계	64,077	64,983	65,665	66,292	66,787	67,324	68,013	689
	노인복지관	300	319	344	347	350	364	385	21
	경로당	62,442	63,251	63,960	64,568	65,044	65,604	66,286	682
	노인교실	1,335	1,413	1,361	1,377	1,393	1,356	1,342	-14
재가노인복지시설	소계	3,003	2,832	2,797	3,089	3,168	3,216	3,494	278
	방문요양서비스	1,113	1,042	992	1,021	1,009	1,001	1,051	50
	주야간보호서비스	840	848	913	1,007	1,086	1,174	1,312	138
	단기보호서비스	94	110	96	112	95	80	73	-7
	방문목욕서비스	633	603	588	617	588	609	650	41
	방문간호서비스	-	-	-	-	-	10	21	1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¹⁾	323	229	208	332	390	342	387	45
노인보호전문기관		25	25	28	29	29	32	33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²⁾		-	-	-	129	136	153	165	12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각년도

주: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재가노인복지시설) 신설('10. 2. 24.)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신설('13. 12. 5.)

VI. 문화 · 여가 및 사회참여

22. 인터넷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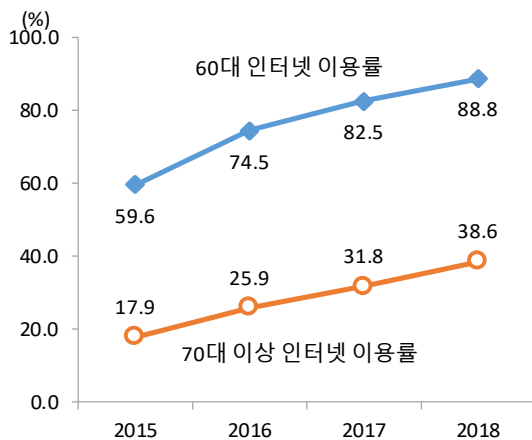
60대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임

□ 2018년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60대는 88.8%, 70대 이상은 38.6%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60대 인터넷 이용률(%) : 59.6('15) → 74.5('16) → 82.5('17) → 88.8('18)
70대 이상 인터넷 이용률(%) : 17.9('15) → 25.9('16) → 31.8('17) → 38.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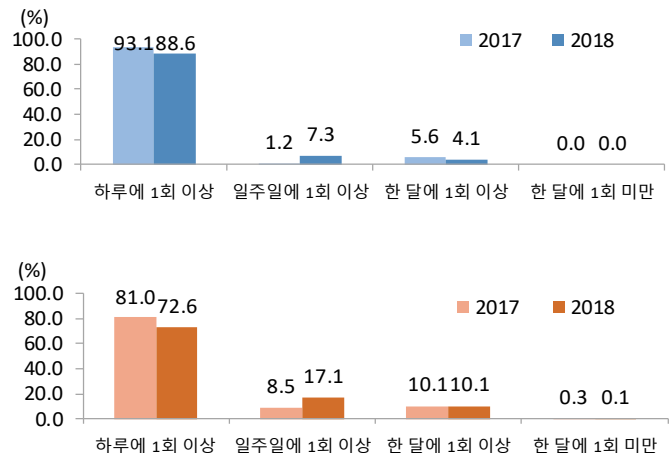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 중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는 60대가 88.6%, 70대 이상은 72.6%임

< 인터넷 이용률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인터넷 이용빈도(60대^상, 70대이상^하) >



【 인터넷 이용률(60, 70대) 】

(단위: %)

		인터넷 이용률	계	하루 1회 이상	일주일 1회 이상	한 달 1회 이상	한 달 1회 미만
2015	60대	59.6	100.0	76.8	17.9	5.0	0.3
	70대 이상	17.9	100.0	45.5	32.6	21.6	0.2
2016	60대	74.5	100.0	73.2	23.0	3.6	0.1
	70대 이상	25.9	100.0	50.8	37.3	11.6	0.3
2017	60대	82.5	100.0	93.1	1.2	5.6	0.0
	70대 이상	31.8	100.0	81.0	8.5	10.1	0.3
2018	60대	88.8	100.0	88.6	7.3	4.1	0.0
	70대 이상	38.6	100.0	72.6	17.1	1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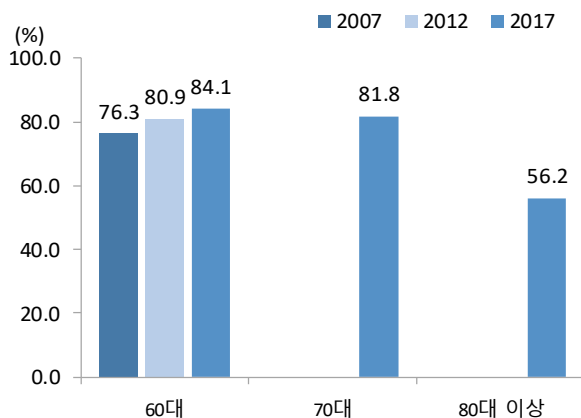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년도

23. 선거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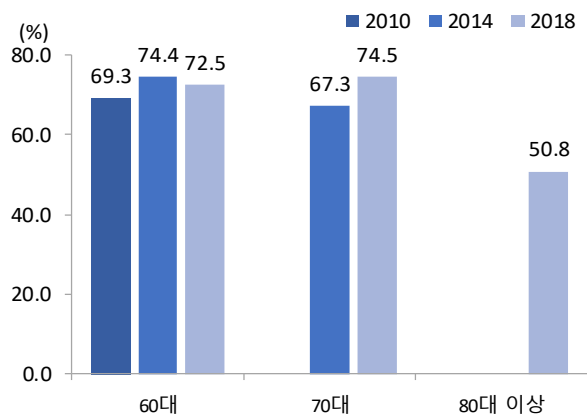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60대, 70대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보다 높음

- 2017년 대통령선거 전체 투표율(77.2%)에 비해 60대는 84.1%, 70대는 81.8%로 투표율이 높으나, 80대 이상 투표율은 56.2%로 낮음
-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투표율(60.2%)에 비해 60대는 72.5%, 70대는 74.5%로 투표율이 높으나, 80대 이상 투표율은 50.8%로 낮음

< 대통령선거 >



< 동시지방선거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지방의원선거총람」

【 선거 투표율 】

(단위: %, %p)

	대통령				지방선거			
	2007	2012	2017	증감	2010	2014	2018	증감
전 체	63.0	75.8	77.2	1.4	54.5	56.8	60.2	3.4
60대	76.3	80.9	84.1	3.2	69.3	74.4	72.5	-1.9
70대	-	-	81.8	-	-	67.3 ¹⁾	74.5	'14년도는 70대 이상 모두 포함
80대 이상	-	-	56.2	-	-	-	50.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지방의원선거총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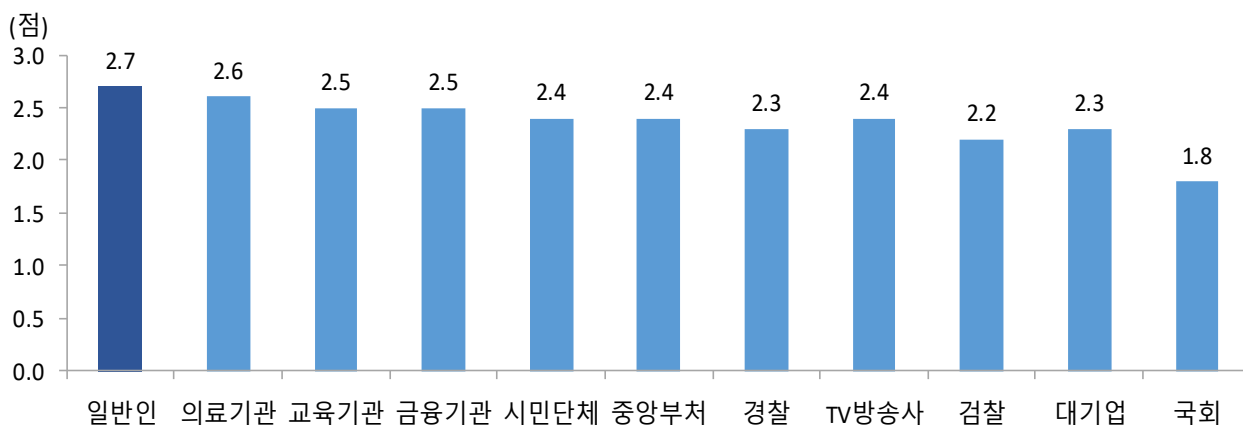
주: 1) 2014년 지방선거는 70대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임

24. 일반인, 기관에 대한 신뢰

2018년 60~69세 고령층의 기관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낮은 경향임

- 2018년 60~69세 고령층이 가족, 이웃, 지인 등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4점 만점에 2.7점으로 전년에 비해 0.1점 상승함
- 고령층의 기관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낮은 경향이 있음. 기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낸 곳은 의료기관으로 4점 만점에 2.6점 수준임
- 중앙부처(2.4점)에 대한 신뢰는 2017년 보다 0.1점 상승, 교육기관(2.5점)과 경찰(2.3점)은 0.1점씩 하락함

< 일반인과 기관에 대한 신뢰(60대, 2018년) >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

【 일반인과 기관에 대한 신뢰(60대)¹⁾ 】

(단위: %)

	일반인	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중앙부처	경찰	TV방송사	검찰	대기업	국회
2015	2.6	2.6	2.6	2.6	2.4	2.3	2.4	2.5	2.3	2.4	1.9
2016	2.7	2.6	2.6	2.5	2.4	2.1	2.3	2.5	2.1	2.3	1.8
2017	2.6	2.6	2.6	2.5	2.4	2.3	2.4	2.4	2.2	2.3	1.8
2018	2.7	2.6	2.5	2.5	2.4	2.4	2.3	2.4	2.2	2.3	1.8
증감	0.1	0.0	-0.1	0.0	0.0	0.1	-0.1	0.0	0.0	0.0	0.0
'18 전연령	2.7	2.5	2.5	2.5	2.4	2.4	2.3	2.4	2.2	2.2	1.9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년도

주: 1) 60대의 신뢰도 평균점수. 1~4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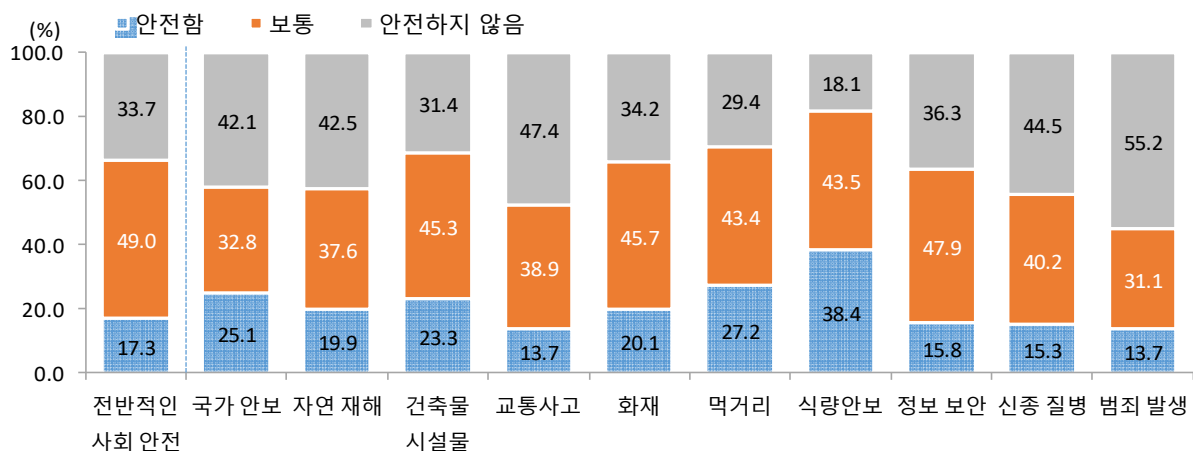
VII. 안전 및 환경

2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33.7%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는 전체연령대(31.3%)보다 높게 나타남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33.7%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7.3%임
- 사회 안전에 대하여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범죄발생(55.2%)」이고 「교통사고(47.4%)」, 「신종질병(44.5%)」 순임
- 「식량 안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비율이 「안전하다」보다 높게 나타남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65세 이상, 2018년)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65세 이상) 】

(단위: %)

		계	안전함			보통	안전하지 않음		전 혀
			아	주	비교적		비교적	전 혀	
전반적인 사회 안전	2016년	100.0	13.4	1.1	12.3	44.1	42.4	37.2	5.2
	2018년	100.0	17.3	1.0	16.4	49.0	33.7	31.1	2.7
	전연령	100.0	20.5	1.3	19.2	48.2	31.3	27.6	3.7
국가 안보(전쟁가능성, 북핵문제 등)		100.0	25.1	2.0	23.0	32.8	42.1	34.8	7.4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100.0	19.9	1.4	18.4	37.6	42.5	37.3	5.2
건축물 및 시설물(붕괴, 폭발 등)		100.0	23.3	2.1	21.2	45.3	31.4	28.1	3.3
교통사고		100.0	13.7	1.0	12.7	38.9	47.4	39.8	7.6
화재(산불포함)		100.0	20.1	1.9	18.2	45.7	34.2	29.5	4.7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100.0	27.2	2.4	24.8	43.4	29.4	25.8	3.6
식량안보(곡물가 폭등, 식량부족 등)		100.0	38.4	6.0	32.3	43.5	18.1	16.2	1.9
정보 보안(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		100.0	15.8	1.2	14.5	47.9	36.3	30.7	5.6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등)		100.0	15.3	1.0	14.2	40.2	44.5	37.6	6.9
범죄 발생		100.0	13.7	1.1	12.6	31.1	55.2	44.3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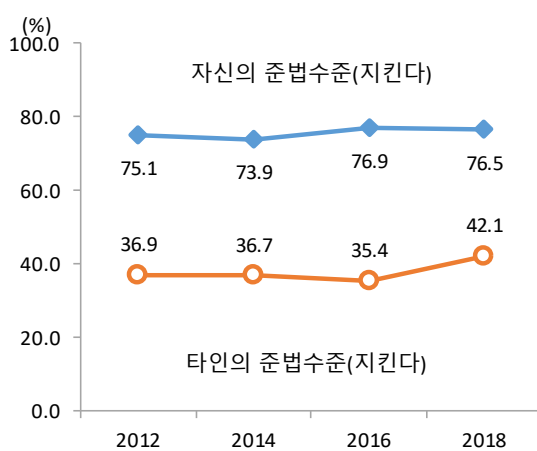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6. 준법수준(자신, 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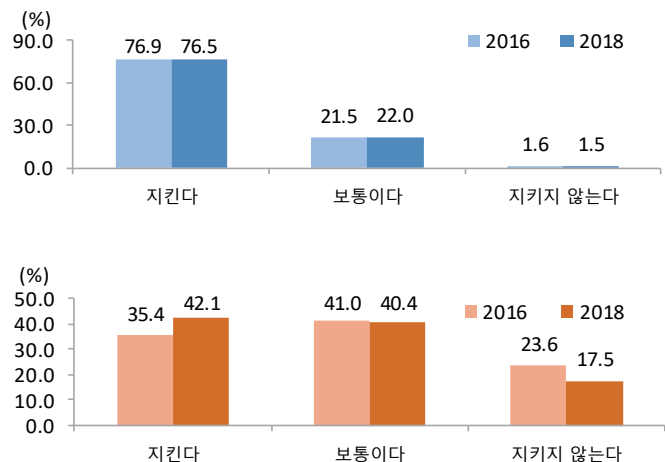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자기 자신이 타인보다 평소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함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자기 자신이 평소에 법을 지키는 정도에 대해 76.5%가 「지킨다」 고 응답하여 모든 연령대(72.4%)보다 4.1%p 높게 나타남
-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생각은 「지킨다」 가 42.1%, 「지키지 않는다」 가 17.5%로 나타남

< 자신과 타인의 준법수준(지킨다), 65세 이상 > < 자신^상과 타인^하의 준법수준, 65세 이상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자신의 준법수준(65세 이상) 】

(단위: %)

	계	지킨다	아주	비교적	보통이다	지키지 않는다	비교적	전혀
2012	100.0	75.1	22.1	53.1	22.9	2.0	2.0	0.0
2014	100.0	73.9	21.7	52.2	24.7	1.4	1.4	0.0
2016	100.0	76.9	21.8	55.1	21.5	1.6	1.6	0.0
2018	100.0	76.5	21.4	55.2	22.0	1.5	1.3	0.1
'18 전연령	100.0	72.4	16.4	56.0	26.1	1.6	1.5	0.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타인의 준법수준(65세 이상) 】

(단위: %)

	계	지킨다	아주	비교적	보통이다	지키지 않는다	비교적	전혀
2012	100.0	36.9	3.0	33.9	36.0	27.1	25.3	1.8
2014	100.0	36.7	3.8	32.9	34.7	28.6	25.8	2.8
2016	100.0	35.4	4.5	30.9	41.0	23.6	22.0	1.6
2018	100.0	42.1	5.3	36.8	40.4	17.5	16.6	0.9
'18 전연령	100.0	41.0	4.9	36.1	42.5	16.5	15.6	0.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7. 학대피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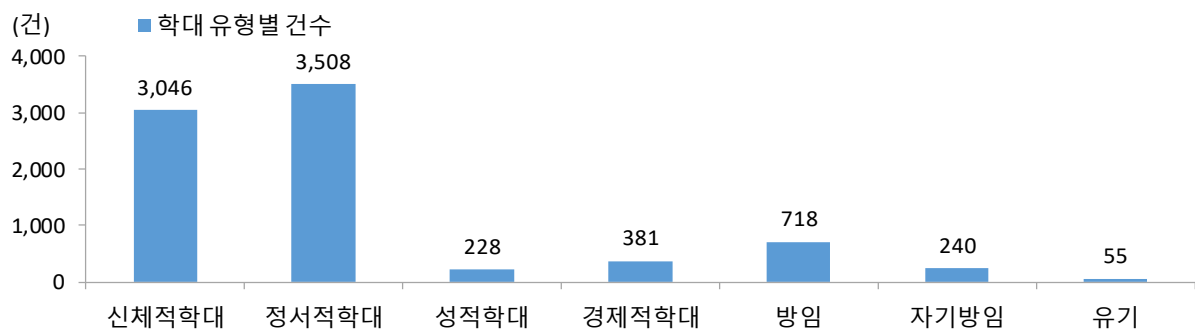
2018년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의 신고 건수는 8,17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2018년 학대피해노인의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2.9%로 가장 높음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2018년 학대피해노인의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508건(42.9%), 「신체적 학대」 3,046건(37.3%), 「방임」 718건(8.8%) 순으로 나타남

< 노인 학대 유형별 건수(65세 이상, 2018년)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2018

【 학대 유형별 건수¹⁾(65세 이상) 】

(단위: 건, %)

	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2010	5,076	1,304	1,981	39	574	891	196	91
구성비	100.0	25.7	39.0	0.8	11.3	17.6	3.9	1.8
2011	5,765	1,419	2,307	72	607	1,038	236	86
구성비	100.0	24.6	40.0	1.2	10.5	18.0	4.1	1.5
2012	5,570	1,326	2,134	63	540	1,042	394	71
구성비	100.0	23.8	38.3	1.1	9.7	18.7	7.1	1.3
2013	5,832	1,430	2,235	90	526	1,087	375	89
구성비	100.0	24.5	38.3	1.5	9.0	18.6	6.4	1.5
2014	5,772	1,426	2,169	131	521	984	463	78
구성비	100.0	24.7	37.6	2.3	9.0	17.0	8.0	1.4
2015	6,154	1,591	2,330	102	542	919	622	48
구성비	100.0	25.9	37.9	1.7	8.8	14.9	10.1	0.8
2016	6,811	2,132	2,730	91	491	778	523	66
구성비	100.0	31.3	40.1	1.3	7.2	11.4	7.7	1.0
2017	7,287	2,651	3,064	150	411	649	291	71
구성비	100.0	36.4	42.0	2.1	5.6	8.9	4.0	1.0
2018	8,176	3,046	3,508	228	381	718	240	55
구성비	100.0	37.3	42.9	2.8	4.7	8.8	2.9	0.7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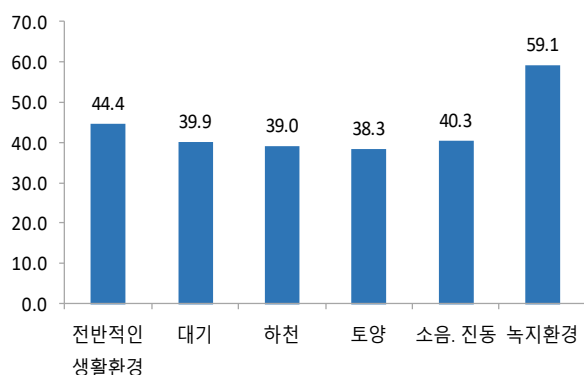
주: 1) 학대피해노인이 경험한 한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을 중복하여 집계

28. 현재 체감 환경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44.4%가 현재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좋다」 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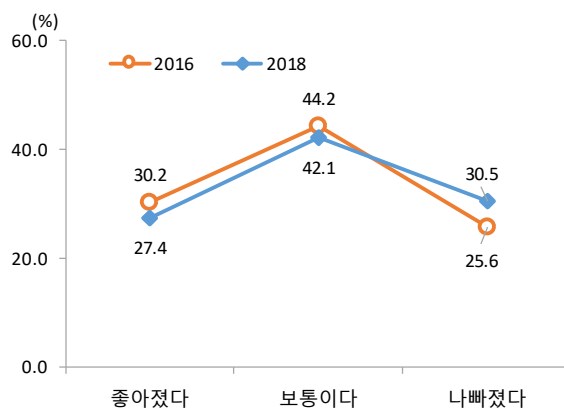
-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44.4%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좋다」 고 생각하고 있음
- 생활환경이 「좋다」 고 느끼는 정도는 부문 중 「녹지환경」 이 5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소음·진동(40.3%)」, 「대기(39.9%)」, 「하천(39.0%)」 순임
- 65세 이상 고령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해서 44.4%가 「좋다」 고 체감하며, 이는 전연령대(35.8%)보다 8.6%p 높게 나타남
- 5년 전에 비해 현재의 환경은 「좋아졌다(27.4%)」 보다 「나빠졌다(30.5%)」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음

< 체감 환경 좋다(65세 이상, 2018년)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환경상황 변화(5년 전 비교, 65세 이상)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현재 체감 환경(65세 이상, 2018년) 】

(단위: %)

	계	좋다	매 우	약 간	보통이다	나쁘다	약 간	매 우
전반적인 생활환경	100.0	44.4	13.4	31.0	42.4	13.2	12.0	1.3
'18 전연령	100.0	35.8	7.5	28.3	48.0	16.2	14.0	2.1
대기	100.0	39.9	13.8	26.0	31.2	28.9	21.8	7.2
하천	100.0	39.0	12.1	26.9	43.3	17.7	15.2	2.5
토양	100.0	38.3	11.4	26.9	41.5	20.2	17.1	3.1
소음·진동	100.0	40.3	14.2	26.0	34.6	25.1	20.1	5.0
녹지환경	100.0	59.1	21.6	37.5	31.3	9.6	8.3	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8년

【 환경 상황 변화(5년 전 비교, 65세 이상) 】

(단위: %)

	계	좋아졌다	매 우	약 간	보통이다	나빠졌다	약 간	매 우
2016	100.0	30.2	3.2	27.0	44.2	25.6	23.7	1.9
2018	100.0	27.4	2.7	24.6	42.1	30.5	26.7	3.9
'18 전연령	100.0	25.4	2.4	23.0	38.2	36.4	28.4	8.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VIII. 통 계 표

I. 인 구

1. 인구추이	52
2. 성별 고령인구	53
3. 지역별 고령인구	54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55
5. 고령자 가구	56

II. 가 족

6. 이혼 및 재혼	57
7. 이혼·재혼에 대한 견해	
7-1. 이혼에 대한 견해	58
7-2. 재혼에 대한 견해	59
8. 거처 유형	60
9.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61
10. 가족 관계 만족도	62

III. 보 건

11. 주관적 건강평가	63
12. 사망원인	64
13. 암 종류별 사망률	66
14. 건강보험 상 진료비	67

IV. 경제활동

15.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15-1. 산업별 취업자 분포	68
15-2. 직업별 취업자 분포	69

16. 근속기간	
16-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	70
16-2.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71
17.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72
18. 일자리 선택기준	73

V. 복 지

19. 연금 수령	74
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5
21. 노인 복지시설	76

VI. 문화·여가 및 사회참여

22. 인터넷 이용률	77
23. 선거 투표율	78
24. 일반인, 기관에 대한 신뢰	79

VII. 안전 및 환경

2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80
26. 준법수준(자신, 타인)	
26-1. 자신의 준법수준	81
26-2. 타인의 준법수준	82
27. 학대피해 노인	83
28. 현재 체감 환경	84

1. 인구 추이¹⁾

(단위: 명, %)

	총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65~69세	구성비 ²⁾	70~74세	구성비 ²⁾	75세 이상	구성비 ²⁾
2000	46,136,101	3,374,561	7.3	1,377,316	40.8	918,878	27.2	1,078,367	32.0
2005	47,278,951	4,372,262	9.2	1,683,265	38.5	1,254,536	28.7	1,434,461	32.8
2010	48,580,293	5,434,298	11.2	1,817,086	33.4	1,568,552	28.9	2,048,660	37.7
2015	51,069,375	6,617,378	13.0	2,144,023	32.4	1,770,741	26.8	2,702,614	40.8
2016	51,269,554	6,826,568	13.3	2,208,535	32.4	1,746,223	25.6	2,871,810	42.1
2017	51,422,507	7,171,227	13.9	2,315,195	32.3	1,756,166	24.5	3,099,866	43.2
2018	51,629,512	7,455,149	14.4	2,372,155	31.8	1,829,392	24.5	3,253,602	43.6
2019 ³⁾	51,709,098	7,684,919	14.9	2,450,291	31.9	1,888,275	24.6	3,346,353	43.5
2020	51,780,579	8,125,432	15.7	2,659,790	32.7	1,990,720	24.5	3,474,922	42.8
2021	51,821,669	8,537,023	16.5	2,898,287	33.9	2,092,647	24.5	3,546,089	41.5
2022	51,846,339	8,974,643	17.3	3,074,784	34.3	2,169,887	24.2	3,729,972	41.6
2023	51,868,100	9,447,274	18.2	3,293,655	34.9	2,242,197	23.7	3,911,422	41.4
2024	51,887,623	9,944,702	19.2	3,530,282	35.5	2,333,646	23.5	4,080,774	41.0
2025	51,905,126	10,511,160	20.3	3,713,701	35.3	2,538,413	24.1	4,259,046	40.5
2026	51,920,462	11,114,363	21.4	3,962,272	35.7	2,769,179	24.9	4,382,912	39.4
2027	51,933,215	11,589,115	22.3	4,057,501	35.0	2,942,032	25.4	4,589,582	39.6
2028	51,941,946	12,117,527	23.3	4,172,870	34.4	3,155,102	26.0	4,789,555	39.5
2029	51,940,598	12,517,340	24.1	4,135,757	33.0	3,385,120	27.0	4,996,463	39.9
2030	51,926,953	12,979,573	25.0	4,094,210	31.5	3,566,417	27.5	5,318,946	41.0
2040	50,855,376	17,223,537	33.9	4,283,614	24.9	4,073,642	23.7	8,866,281	51.5
2050	47,744,500	19,007,129	39.8	3,848,413	20.2	3,744,208	19.7	11,414,508	60.1
2060	42,837,900	18,814,555	43.9	3,698,049	19.7	3,278,075	17.4	11,838,431	62.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 3.

주: 1) 외국인 포함

2)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

3) 2018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019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자료

2. 성별 고령인구

(단위: 명, %, 여자 100명당 명)

	65세 이상	남 자	비중 ¹⁾	구성비 ²⁾	여 자	비중 ¹⁾	구성비 ²⁾	성 비 ³⁾
2000	3,374,561	1,289,038	38.2	5.6	2,085,523	61.8	9.1	61.8
2005	4,372,262	1,740,406	39.8	7.4	2,631,856	60.2	11.1	66.1
2010	5,434,298	2,202,495	40.5	9.1	3,231,803	59.5	13.2	68.2
2015	6,617,378	2,784,775	42.1	10.9	3,832,603	57.9	15.1	72.7
2016	6,826,568	2,885,530	42.3	11.2	3,941,038	57.7	15.4	73.2
2017	7,171,227	3,052,484	42.6	11.8	4,118,743	57.4	16.1	74.1
2018	7,455,149	3,188,342	42.8	12.3	4,266,807	57.2	16.6	74.7
2019 ⁴⁾	7,684,919	3,300,354	42.9	12.7	4,384,565	57.1	17.0	75.3
2020	8,125,432	3,512,661	43.2	13.5	4,612,771	56.8	17.9	76.2
2021	8,537,023	3,712,757	43.5	14.3	4,824,266	56.5	18.7	77.0
2022	8,974,643	3,926,874	43.8	15.1	5,047,769	56.2	19.5	77.8
2023	9,447,274	4,160,813	44.0	16.0	5,286,461	56.0	20.4	78.7
2024	9,944,702	4,403,304	44.3	17.0	5,541,398	55.7	21.4	79.5
2025	10,511,160	4,674,911	44.5	18.0	5,836,249	55.5	22.5	80.1
2026	11,114,363	4,966,289	44.7	19.1	6,148,074	55.3	23.7	80.8
2027	11,589,115	5,200,385	44.9	20.0	6,388,730	55.1	24.6	81.4
2028	12,117,527	5,465,517	45.1	21.0	6,652,010	54.9	25.6	82.2
2029	12,517,340	5,663,312	45.2	21.8	6,854,028	54.8	26.4	82.6
2030	12,979,573	5,888,754	45.4	22.7	7,090,819	54.6	27.3	83.0
2040	17,223,537	7,941,949	46.1	31.4	9,281,588	53.9	36.3	85.6
2050	19,007,129	8,840,704	46.5	37.4	10,166,425	53.5	42.2	87.0
2060	18,814,555	8,979,777	47.7	42.4	9,834,778	52.3	45.4	91.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외국인 포함),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 3.

주: 1) 비중 = (65세 이상 남자(여자)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00

2) 구성비 = (65세 이상 남자(여자) 인구 / 총 남자(여자) 인구) × 100

3) 65세 이상 여자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남자인구 수

4) 2018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019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자료

3. 지역별 고령인구

(단위: 천명, %)

	2019	비율	비율 순위	2025	비율	비율 순위	2035	비율	비율 순위	2045	비율	비율 순위
전국	7,685	14.9	-	10,511	20.3	-	15,237	29.5	-	18,329	37.0	-
서울	1,402	14.5	10	1,862	19.9	10	2,540	28.4	10	2,980	35.3	12
부산	591	17.5	5	784	24.4	5	1,004	33.4	5	1,089	39.7	6
대구	368	15.1	9	494	21.1	9	691	31.2	8	784	38.4	8
인천	370	12.6	14	550	18.4	12	867	28.4	10	1,080	36.3	10
광주	193	12.9	12	261	18.0	14	377	27.3	14	452	35.2	13
대전	193	12.8	13	270	18.4	12	392	27.7	13	471	35.0	14
울산	127	11.1	16	193	17.3	15	302	28.2	12	352	35.6	11
세종	30	8.9	17	49	11.6	17	97	18.3	17	153	26.0	17
경기	1,590	12.0	15	2,379	17.0	16	3,792	26.2	16	4,783	33.8	16
강원	287	19.0	4	387	25.6	3	546	35.9	3	649	43.6	3
충북	263	16.2	7	357	21.6	6	529	31.4	7	646	39.1	7
충남	372	17.0	6	488	21.5	7	714	30.4	9	897	38.4	8
전북	355	19.7	3	441	25.2	4	587	34.7	4	683	42.5	4
전남	396	22.3	1	475	27.4	1	630	37.1	1	740	45.3	1
경북	527	19.8	2	673	25.7	2	922	36.1	2	1,064	43.9	2
경남	524	15.6	8	716	21.4	8	1,039	31.7	6	1,230	39.8	5
제주	96	14.5	10	132	18.5	11	208	26.9	15	275	34.9	15

자료: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 6.

4.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해당인구 100명당 명, 명)

	노년부양비 ¹⁾	노령화지수 ²⁾	고령자 1명당 생산연령인구 ³⁾
2000	10.2	35.0	9.8
2005	12.9	48.6	7.8
2010	15.4	69.6	6.5
2015	17.6	95.2	5.7
2016	18.1	100.1	5.5
2017	19.1	107.3	5.2
2018	19.8	113.9	5.0
2019 ⁴⁾	20.4	119.4	4.9
2020	21.7	129.0	4.6
2021	23.0	138.8	4.3
2022	24.3	150.0	4.1
2023	25.8	162.9	3.9
2024	27.4	175.7	3.6
2025	29.3	189.7	3.4
2026	31.4	206.0	3.2
2027	33.0	220.0	3.0
2028	35.0	234.8	2.9
2029	36.5	246.2	2.7
2030	38.2	259.6	2.6
2040	60.1	345.7	1.7
2050	77.6	447.2	1.3
2060	91.4	546.1	1.1
2065	100.4	576.6	1.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외국인 포함), 「장래인구특별추계」 2019.3.

주: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3) 고령자 1명당 생산연령인구 = 15~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4) 2018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019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자료

5. 고령자 가구

(단위: 가구, %)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²⁾										
	총가구	고령자 가구 ¹⁾	구성비	부부가구	구성비	부부+ 자녀 가구	구성비	부(모)+ 자녀 가구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2000	14,507,010	1,733,525	11.9	573,137	33.1	183,771	10.6	78,867	4.5	543,787	31.4
2001	14,775,329	1,849,177	12.5	615,244	33.3	196,072	10.6	86,148	4.7	580,049	31.4
2002	15,109,514	1,971,573	13.0	659,584	33.5	208,385	10.6	93,568	4.7	619,334	31.4
2003	15,433,649	2,094,723	13.6	704,211	33.6	220,436	10.5	100,942	4.8	659,291	31.5
2004	15,732,068	2,220,625	14.1	749,551	33.8	232,010	10.4	108,275	4.9	701,275	31.6
2005	16,038,858	2,350,386	14.7	796,094	33.9	243,137	10.3	115,625	4.9	745,507	31.7
2006	16,322,100	2,463,170	15.1	834,069	33.9	252,643	10.3	122,460	5.0	792,020	32.2
2007	16,601,723	2,590,957	15.6	876,855	33.8	264,054	10.2	130,113	5.0	843,189	32.5
2008	16,883,417	2,715,688	16.1	918,220	33.8	274,639	10.1	137,504	5.1	894,423	32.9
2009	17,167,884	2,816,410	16.4	950,737	33.8	280,303	10.0	143,062	5.1	941,590	33.4
2010	17,494,884	2,922,752	16.7	984,754	33.7	286,431	9.8	148,849	5.1	991,135	33.9
2011	17,879,317	3,022,477	16.9	1,015,077	33.6	296,129	9.8	157,374	5.2	1,018,462	33.7
2012	18,118,513	3,169,676	17.5	1,061,675	33.5	311,511	9.8	168,584	5.3	1,060,300	33.5
2013	18,388,488	3,331,349	18.1	1,112,719	33.4	328,829	9.9	180,701	5.4	1,106,699	33.2
2014	18,704,975	3,491,732	18.7	1,161,910	33.3	347,307	9.9	192,977	5.5	1,152,673	33.0
2015	19,012,895	3,664,081	19.3	1,214,814	33.2	366,974	10.0	205,906	5.6	1,202,854	32.8
2016	19,281,443	3,817,756	19.8	1,260,969	33.0	372,523	9.8	211,602	5.5	1,275,316	33.4
2017	19,570,670	3,998,472	20.4	1,338,586	33.5	391,338	9.8	222,615	5.6	1,346,677	33.7
2018	19,871,152	4,205,246	21.2	1,399,000	33.3	406,478	9.7	232,208	5.5	1,430,748	34.0
2019	20,115,725	4,387,910	21.8	1,454,776	33.2	422,846	9.6	241,173	5.5	1,500,413	34.2
2020	20,349,567	4,641,561	22.8	1,535,556	33.1	449,858	9.7	254,819	5.5	1,589,371	34.2
2021	20,573,060	4,880,324	23.7	1,611,602	33.0	477,536	9.8	268,150	5.5	1,670,416	34.2
2022	20,786,706	5,131,820	24.7	1,688,500	32.9	501,754	9.8	281,044	5.5	1,761,594	34.3
2023	20,985,904	5,404,539	25.8	1,773,072	32.8	529,703	9.8	295,453	5.5	1,857,365	34.4
2024	21,170,635	5,690,615	26.9	1,863,942	32.8	560,570	9.9	311,044	5.5	1,954,702	34.3
2025	21,342,220	6,011,170	28.2	1,967,200	32.7	593,641	9.9	328,144	5.5	2,063,836	34.3
2026	21,501,347	6,356,460	29.6	2,081,932	32.8	633,040	10.0	347,611	5.5	2,175,690	34.2
2027	21,647,983	6,630,550	30.6	2,163,954	32.6	657,788	9.9	361,076	5.4	2,274,084	34.3
2028	21,785,425	6,935,541	31.8	2,262,226	32.6	688,047	9.9	377,188	5.4	2,386,554	34.4
2029	21,914,937	7,167,390	32.7	2,335,962	32.6	707,816	9.9	388,033	5.4	2,477,750	34.6
2030	22,036,338	7,437,711	33.8	2,420,336	32.5	729,488	9.8	400,083	5.4	2,586,092	34.8
2035	22,496,855	8,787,540	39.1	2,821,159	32.1	842,094	9.6	459,484	5.2	3,131,373	35.6
2040	22,650,641	10,011,595	44.2	3,136,173	31.3	943,169	9.4	509,782	5.1	3,623,032	36.2
2045	22,456,121	10,747,418	47.9	3,250,922	30.2	990,141	9.2	532,501	5.0	3,933,289	36.6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9. 9.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고령자 가구 중 유형별 구성비

6. 이혼 및 재혼

(단위: 건)

65세 이상	이혼		재혼					
	남자	여자	남자	사별 후	이혼 후	여자	사별 후	이혼 후
2000	1,321	423	971	607	364	202	109	93
2001	1,502	467	999	563	436	205	91	114
2002	1,768	537	1,042	503	539	242	109	133
2003	2,332	778	1,177	588	589	277	121	156
2004	2,340	816	1,394	652	742	332	141	191
2005	2,589	916	1,566	687	879	413	171	242
2006	3,061	1,120	1,746	674	1,072	502	170	332
2007	3,581	1,412	1,992	800	1,192	606	245	361
2008	4,409	1,738	1,855	606	1,249	548	169	379
2009	4,370	1,739	2,065	665	1,400	641	189	452
2010	4,346	1,734	2,099	624	1,475	702	186	516
2011	4,484	1,789	2,234	596	1,638	799	204	595
2012	4,836	1,955	2,449	559	1,890	912	187	725
2013	5,464	2,317	2,515	591	1,924	938	178	760
2014	5,914	2,721	2,467	498	1,969	902	182	720
2015	5,852	2,655	2,672	501	2,171	1,069	184	885
2016	6,101	2,910	2,568	436	2,132	1,109	184	925
2017	6,883	3,427	2,684	461	2,223	1,202	173	1,029
2018	8,032	4,148	2,759	444	2,315	1,347	213	1,134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7-1. 이혼에 대한 견해

(단위: %)

65세 이상	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 안 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 2014 >	100.0	29.1	39.8	20.2	7.7	3.2
남자	100.0	29.8	39.1	21.1	7.4	2.6
여자	100.0	28.6	40.3	19.5	7.8	3.7
< 2016 >	100.0	23.3	40.8	24.6	9.1	2.2
남자	100.0	22.4	42.6	25.1	8.3	1.6
여자	100.0	24.0	39.5	24.1	9.7	2.7
< 2018 >	100.0	19.9	39.9	26.7	10.4	3.1
남자	100.0	20.0	41.0	27.1	9.7	2.3
여자	100.0	19.9	39.1	26.5	11.0	3.6
65~69세	100.0	13.8	40.6	30.9	12.9	1.8
70~79세	100.0	20.6	39.5	27.3	9.8	2.9
80세 이상	100.0	28.5	39.8	18.3	7.7	5.6
중졸 이하	100.0	23.3	38.5	24.4	10.2	3.7
고졸	100.0	13.1	42.2	31.9	10.6	2.2
대졸 이상	100.0	11.7	44.4	31.5	11.5	1.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7-2. 재혼에 대한 견해

(단위: %)

65세 이상	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 2014 >	100.0	2.0	21.6	44.3	16.8	7.3	8.0
남자	100.0	2.1	26.0	46.8	13.1	5.4	6.6
여자	100.0	1.9	18.5	42.5	19.6	8.6	8.9
< 2016 >	100.0	2.1	19.8	49.2	16.2	6.8	5.9
남자	100.0	2.4	24.0	50.7	12.1	5.6	5.2
여자	100.0	2.0	16.7	48.1	19.1	7.6	6.4
< 2018 >	100.0	2.1	18.4	49.2	16.1	6.3	7.8
남자	100.0	2.6	22.3	51.0	11.7	5	7.5
여자	100.0	1.8	15.5	47.9	19.4	7.3	8.1
65~69세	100.0	1.8	17.7	52.6	15.8	4.9	7.3
70~79세	100.0	2.1	19.0	48.6	16.5	6.4	7.3
80세 이상	100.0	2.8	18.1	45.2	15.7	8.3	9.9
중졸 이하	100.0	2.1	18.0	47.0	16.9	7.0	9.0
고졸	100.0	2.3	18.6	54.0	14.8	5.2	5.2
대졸 이상	100.0	1.8	20.8	54.2	13.6	3.7	5.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8. 거처 유형

(단위: 가구, %)

65세 이상	일반 가구 ¹⁾	주택	소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주택이외의 거처
< 2000 >	1,734,402	1,726,321	100.0	73.9	17.5	5.5	3.2	8,081
남자	1,083,956	1,079,272	100.0	71.6	18.7	6.1	3.6	4,684
여자	650,446	647,049	100.0	77.8	15.4	4.4	2.5	3,397
< 2005 >	2,448,348	2,435,542	100.0	67.4	23.5	7.6	1.5	12,806
남자	1,519,866	1,511,936	100.0	65.2	25.0	8.1	1.7	7,930
여자	928,482	923,606	100.0	71.1	21.1	6.7	1.1	4,876
< 2010 >	3,111,011	3,088,538	100.0	60.6	29.8	8.3	1.2	22,473
남자	1,904,119	1,890,256	100.0	58.6	31.4	8.6	1.4	13,863
여자	1,206,892	1,198,282	100.0	63.7	27.3	8.0	1.0	8,610
< 2015 >	3,719,624	3,643,564	100.0	52.6	35.7	9.9	1.7	76,060
남자	2,296,748	2,249,531	100.0	51.3	36.8	9.9	2.0	47,217
여자	1,422,876	1,394,033	100.0	54.8	33.9	10.0	1.3	28,843
< 2016 >	3,867,406	3,785,820	100.0	51.2	36.8	10.3	1.7	81,586
남자	2,380,691	2,331,451	100.0	50.0	37.9	10.2	1.9	49,240
여자	1,486,715	1,454,369	100.0	53.2	35.0	10.5	1.2	32,346
< 2017 >	4,065,109	3,975,876	100.0	49.6	38.2	10.5	1.7	89,233
남자	2,507,361	2,450,068	100.0	48.5	39.2	10.3	2.0	57,293
여자	1,557,748	1,525,808	100.0	51.4	36.5	10.9	1.3	31,940
< 2018 >	4,237,675	4,141,978	100.0	47.9	39.7	10.7	1.7	95,697
남자	2,608,740	2,546,586	100.0	47.0	40.7	10.4	1.9	62,154
여자	1,628,935	1,595,392	100.0	49.4	38.2	11.2	1.2	33,54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주: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9.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65세 이상	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 사회	정부와 사회	기타	가족 중 부모 부양자					
							소계 ¹⁾	장남 (만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든 자녀	자식중 능력 있는자
< 2016 >	100.0	27.2	32.6	32.6	7.6	0.0	100.0	12.4	5.4	1.0	60.0	21.1
남자	100.0	31.3	30.6	31.9	6.2	0.0	100.0	11.9	5.3	1.1	61.0	20.7
여자	100.0	24.3	34.1	33.0	8.6	0.0	100.0	12.7	5.5	1.0	59.4	21.4
65~69세	100.0	30.6	27.7	34.8	6.8	0.0	100.0	8.3	5.2	0.9	63.5	22.2
70~79세	100.0	27.1	33.4	32.0	7.6	-	100.0	12.4	5.3	1.0	60.3	21.0
80세 이상	100.0	21.2	40.0	29.7	9.2	-	100.0	19.6	6.1	1.5	53.2	19.6
중졸이하	100.0	26.2	34.6	30.9	8.2	0.0	100.0	13.8	5.6	1.1	59.1	20.5
고졸	100.0	30.3	28.0	35.4	6.3	-	100.0	8.6	4.8	1.1	62.5	23.0
대졸이상	100.0	28.3	27.4	38.6	5.6	0.1	100.0	9.5	5.3	0.7	62.3	22.3
< 2018 >	100.0	24.9	29.7	37.1	8.4	0.0	100.0	12.2	6.2	1.4	59.3	20.9
남자	100.0	27.2	27.5	37.9	7.4	0.0	100.0	11.6	5.7	0.7	59.6	22.4
여자	100.0	23.1	31.2	36.5	9.1	0.1	100.0	12.6	6.6	1.8	59.1	19.9
65~69세	100.0	25.0	27.0	41.1	6.9	0.0	100.0	7.1	4.8	2.1	63.4	22.7
70~79세	100.0	26.9	28.9	34.7	9.4	0.0	100.0	12.9	6.8	0.9	58.5	20.9
80세 이상	100.0	19.6	35.9	36.2	8.2	0.1	100.0	18.7	7.2	1.1	54.7	18.3
중졸이하	100.0	22.8	32.1	36.2	8.8	0.1	100.0	14.1	7.0	1.2	58.1	19.6
고졸	100.0	29.6	25.3	38.1	7.0	-	100.0	8.2	4.7	2.2	60.9	24.0
대졸이상	100.0	28.7	22.5	40.7	8.0	-	100.0	6.5	3.7	1.0	65.0	23.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자임

10.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65세 이상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 배우자와의 관계 >						
< 2016 >	100.0	23.1	35.9	34.2	5.2	1.6
남자	100.0	27.6	37.3	30.9	3.5	0.7
여자	100.0	16.9	34.1	38.8	7.4	2.8
< 2018 >	100.0	25.3	35.5	32.2	5.6	1.4
남자	100.0	30.2	38.1	27.7	3.4	0.6
여자	100.0	18.7	32.0	38.3	8.6	2.4
65~69세	100.0	25.3	36.9	31.1	5.5	1.2
70~79세	100.0	23.7	34.7	33.5	6.5	1.5
80세 이상	100.0	31.4	34.1	30.7	2.7	1.1
< 자녀와의 관계 >						
< 2016 >	100.0	25.4	40.8	28.6	4.2	0.9
남자	100.0	26.2	40.0	29.0	4.0	0.8
여자	100.0	24.9	41.4	28.3	4.4	1.0
< 2018 >	100.0	27.6	40.5	26.3	4.4	1.2
남자	100.0	28.2	39.5	26.1	5.0	1.3
여자	100.0	27.2	41.2	26.4	3.9	1.2
65~69세	100.0	27.9	41.5	25.5	4.2	0.9
70~79세	100.0	26.5	39.8	27.4	4.8	1.5
80세 이상	100.0	30.1	40.4	24.9	3.6	1.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11. 주관적 건강평가

(단위: %)

65세 이상	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 2014 >	100.0	2.7	18.2	31.4	38.4	9.4
남자	100.0	3.8	24.0	33.7	30.8	7.7
여자	100.0	2.0	14.0	29.7	43.8	10.6
65~69세	100.0	3.9	24.5	38.8	27.9	4.9
70~79세	100.0	2.3	16.4	30.0	41.1	10.2
80세 이상	100.0	2.1	12.0	21.9	49.2	14.9
< 2016 >	100.0	3.1	19.2	34.2	35.5	7.9
남자	100.0	4.5	25.7	34.8	28.0	6.9
여자	100.0	2.1	14.5	33.8	41.0	8.6
65~69세	100.0	4.1	24.0	40.5	27.4	3.9
70~79세	100.0	2.6	18.1	32.8	38.1	8.4
80세 이상	100.0	2.4	12.9	25.6	44.6	14.5
< 2018 >	100.0	2.5	20.3	33.6	35.1	8.4
남자	100.0	2.9	26.0	35.8	28.0	7.3
여자	100.0	2.2	16.1	32.0	40.4	9.3
65~69세	100.0	3.2	28.0	40.6	23.6	4.6
70~79세	100.0	2.3	18.8	32.0	38.0	8.9
80세 이상	100.0	1.7	11.3	25.9	47.3	13.7
중졸 이하	100.0	1.8	15.6	31.2	41.0	10.4
고졸	100.0	3.7	26.1	39.5	25.6	5.1
대졸 이상	100.0	4.5	38.9	37.6	16.2	2.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12. 사망원인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1위	2위	3위	4위	5위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2000	악성신생물(암) 30,384 (929.7)	뇌혈관 질환 25,663 (785.3)	심장 질환 11,728 (358.9)	당뇨병 7,139 (218.4)	만성 하기도 질환 6,835 (209.1)
2001	악성신생물(암) 31,900 (926.1)	뇌혈관 질환 26,572 (771.4)	심장 질환 10,682 (310.1)	만성 하기도 질환 7,957 (231.0)	당뇨병 7,833 (227.4)
2002	악성신생물(암) 35,149 (970.1)	뇌혈관 질환 28,429 (784.7)	심장 질환 12,024 (331.9)	만성 하기도 질환 9,696 (267.6)	당뇨병 8,336 (230.1)
2003	악성신생물(암) 36,400 (955.7)	뇌혈관 질환 28,270 (742.2)	심장 질환 11,744 (308.3)	당뇨병 8,504 (223.3)	만성 하기도 질환 8,239 (216.3)
2004	악성신생물(암) 37,372 (930.8)	뇌혈관 질환 26,885 (669.6)	심장 질환 12,412 (309.1)	당뇨병 8,376 (208.6)	만성 하기도 질환 7,480 (186.3)
2005	악성신생물(암) 38,807 (918.6)	뇌혈관 질환 24,748 (585.8)	심장 질환 13,861 (328.1)	당뇨병 8,405 (198.9)	만성 하기도 질환 6,793 (160.8)
2006	악성신생물(암) 39,965 (900.0)	뇌혈관 질환 24,050 (541.6)	심장 질환 14,906 (335.7)	당뇨병 8,552 (192.6)	만성 하기도 질환 6,320 (142.3)
2007	악성신생물(암) 42,275 (897.7)	뇌혈관 질환 23,923 (508.0)	심장 질환 16,330 (346.8)	당뇨병 8,521 (180.9)	만성 하기도 질환 6,876 (146.0)
2008	악성신생물(암) 43,970 (885.5)	뇌혈관 질환 22,858 (460.3)	심장 질환 16,559 (333.5)	당뇨병 7,845 (158.0)	만성 하기도 질환 6,756 (136.1)
2009	악성신생물(암) 44,728 (865.4)	뇌혈관 질환 21,226 (410.7)	심장 질환 17,192 (332.6)	당뇨병 7,577 (146.6)	만성 하기도 질환 6,430 (124.4)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주: "만성 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심장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기타 심장 질환을 포함

12. 사망원인(계속)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1위	2위	3위	4위	5위
65세 이상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사망자 (사망률)
2010	악성신생물(암) 47,193 (882.4)	뇌혈관 질환 21,898 (409.4)	심장 질환 18,399 (344.0)	당뇨병 8,187 (153.1)	폐렴 6,826 (127.6)
2011	악성신생물(암) 46,849 (847.8)	뇌혈관질환 21,057 (381.1)	심장 질환 19,956 (361.2)	당뇨병 8,585 (155.4)	폐렴 7,915 (143.2)
2012	악성신생물(암) 49,123 (852.9)	뇌혈관질환 21,478 (372.9)	심장 질환 21,143 (367.1)	폐렴 9,587 (166.4)	당뇨병 9,390 (163.0)
2013	악성신생물(암) 50,453 (836.6)	뇌혈관질환 21,289 (353.0)	심장 질환 20,241 (335.6)	폐렴 10,047 (166.6)	당뇨병 8,955 (148.5)
2014	악성신생물(암) 52,098 (827.4)	심장 질환 21,348 (339.0)	뇌혈관 질환 20,378 (323.6)	폐렴 11,175 (177.5)	당뇨병 8,570 (136.1)
2015	악성신생물(암) 52,616 (803.0)	심장 질환 23,002 (351.0)	뇌혈관 질환 20,384 (311.1)	폐렴 13,701 (209.1)	당뇨병 8,731 (133.2)
2016	악성신생물(암) 53,989 (796.2)	심장 질환 24,259 (357.7)	뇌혈관 질환 19,457 (286.9)	폐렴 15,263 (225.1)	당뇨병 8,102 (119.5)
2017	악성신생물(암) 55,427 (784.4)	심장 질환 25,530 (361.3)	뇌혈관 질환 18,978 (268.6)	폐렴 18,202 (257.6)	당뇨병 7,644 (108.2)
2018	악성신생물(암) 56,383 (763.0)	심장 질환 26,658 (360.8)	폐렴 21,820 (295.3)	뇌혈관 질환 19,223 (260.1)	당뇨병 7,276 (98.5)
남 자	악성신생물(암) 34,681 (1,099.6)	심장 질환 11,230 (356.1)	폐렴 10,967 (347.7)	뇌혈관 질환 8,335 (264.3)	만성 하기도 질환 3,932 (124.7)
여 자	악성신생물(암) 21,702 (512.4)	심장 질환 15,428 (364.2)	뇌혈관 질환 10,888 (257.1)	폐렴 10,853 (256.2)	알츠하이머병 4,348 (102.7)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주: "만성 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심장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기타 심장 질환을 포함

13. 암 종류별 사망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전체	폐암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전립선암	식도암	백혈병	유방암	자궁암
2000	929.7	221.6	75.4	113.5	194.1	47.5	14.4	24.3	11.4	8.0	8.9
2001	926.1	224.0	80.0	111.3	189.3	48.9	16.2	23.9	12.3	8.1	10.5
2002	970.1	233.2	87.6	118.8	192.2	48.6	18.1	24.8	12.8	8.9	12.8
2003	955.7	226.4	89.8	115.4	185.6	50.0	17.9	25.2	13.0	9.3	15.3
2004	930.8	228.3	91.5	110.6	169.5	47.5	20.4	24.1	12.6	9.2	13.6
2005	918.6	228.7	93.4	111.0	160.2	51.8	19.3	22.2	11.8	8.6	13.3
2006	900.0	228.3	93.3	107.4	150.2	51.3	20.3	22.1	12.5	9.7	11.8
2007	897.7	222.9	95.5	109.3	143.2	50.3	21.2	21.8	13.4	9.2	10.8
2008	885.5	222.5	94.1	111.6	132.8	51.6	21.4	19.7	12.1	10.0	9.8
2009	865.4	214.9	94.4	105.9	125.4	54.4	22.0	19.0	13.3	10.1	9.7
2010	882.4	221.1	100.0	107.6	121.5	55.6	22.5	18.3	14.4	9.7	10.0
2011	847.8	217.0	97.2	102.1	114.6	54.7	23.2	18.4	13.8	10.7	9.0
2012	852.9	220.5	102.7	104.9	106.9	58.2	23.3	17.4	14.2	10.1	7.8
2013	836.6	217.7	98.2	103.5	99.5	55.7	24.8	16.8	13.3	10.7	7.4
2014	827.4	215.1	96.6	102.3	95.7	57.6	24.7	16.5	14.1	10.7	7.5
2015	803.0	206.7	92.8	99.1	86.8	59.3	24.2	16.3	14.1	11.2	7.6
2016	796.2	207.8	91.4	93.6	82.1	59.5	23.7	15.5	14.8	11.8	6.5
2017	784.4	201.9	91.9	89.5	77.1	58.7	23.6	13.9	15.5	12.3	9.1
2018	763.0	194.6	88.1	87.7	71.9	60.1	25.2	13.2	14.6	11.7	8.5
남 자	1099.6	338.3	110.1	134.6	108.0	68.7	59.1	28.5	19.8	0.3	-
여 자	512.4	87.6	71.7	52.8	45.0	53.6	-	1.9	10.7	20.2	14.9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14. 건강보험 상 진료비¹⁾

(단위: 억원, %, 천원)

	전체 진료비	1인당 진료비 ²⁾	65세 이상	구성비 ³⁾	고령자 1인당 진료비 ²⁾
2005	247,968	523	60,556	24.4	1,545
2006	285,580	602	73,931	25.9	1,815
2007	322,590	675	90,813	28.2	2,070
2008	350,366	728	104,904	29.9	2,281
2009	394,296	811	120,391	30.5	2,494
2010	436,570	893	137,847	31.6	2,769
2011	460,760	935	148,384	32.2	2,862
2012	482,349	971	160,382	33.3	2,933
2013	507,426	1,015	175,283	34.5	3,054
2014	545,275	1,084	193,551	35.5	3,223
2015	580,170	1,149	213,615	36.8	3,433
2016	646,623	1,274	245,643	38.0	3,811
2017	696,271	1,367	271,357	39.0	3,987
2018	779,141	1,526	311,173	39.9	4,38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각년도

주: 1) 진료비는 심사실적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보험자부담금 + 환자본인부담금) 비용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적용대상자(해당년도 12월말 기준)

3) 구성비 =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 / 전체 진료비) × 100

15-1. 산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

		취업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제조업	사회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 운수통신 금융업
2014	전체 ²⁾	26,112	1,649	4,475	4,459	19,987	1,855	5,836	9,207	3,090
	(구성비)	(100.0)	(6.3)	(17.1)	(17.1)	(76.5)	(7.1)	(22.4)	(35.3)	(11.8)
	55~79세	6,132	1,163	640	636	4,329	465	1,199	2,048	618
	(구성비)	(100.0)	(19.0)	(10.4)	(10.4)	(70.6)	(7.6)	(19.5)	(33.4)	(10.1)
	55~64세	4,176	482	547	543	3,147	383	886	1,399	480
	65~79세	1,956	680	94	93	1,182	81	313	649	138
2015	전체 ²⁾	26,431	1,526	4,593	4,580	20,312	1,894	5,998	9,336	3,084
	(구성비)	(100.0)	(5.8)	(17.4)	(17.3)	(76.8)	(7.2)	(22.7)	(35.3)	(11.7)
	55~79세	6,376	1,055	684	681	4,637	498	1,316	2,192	632
	(구성비)	(100.0)	(16.5)	(10.7)	(10.7)	(72.7)	(7.8)	(20.6)	(34.4)	(9.9)
	55~64세	4,413	450	575	572	3,389	423	989	1,482	495
	65~79세	1,963	605	109	109	1,248	74	327	710	137
2016	전체 ²⁾	26,613	1,420	4,627	4,608	20,566	1,862	5,987	9,637	3,080
	(구성비)	(100.0)	(5.3)	(17.4)	(17.3)	(77.3)	(7.0)	(22.5)	(36.2)	(11.6)
	55~79세	6,715	992	766	759	4,958	548	1,358	2,344	708
	(구성비)	(100.0)	(14.8)	(11.4)	(11.3)	(73.8)	(8.2)	(20.2)	(34.9)	(10.5)
	55~64세	4,708	426	644	637	3,639	478	1,043	1,557	561
	65~79세	2,007	566	122	122	1,319	70	316	787	147
2017	전체 ²⁾	26,992	1,420	4,610	4,586	20,963	2,031	6,068	9,836	3,027
	(구성비)	(100.0)	(5.3)	(17.1)	(17.0)	(77.7)	(7.5)	(22.5)	(36.4)	(11.2)
	55~79세	7,117	1,019	838	829	5,259	617	1,416	2,516	710
	(구성비)	(100.0)	(14.3)	(11.8)	(11.7)	(73.9)	(8.7)	(19.9)	(35.3)	(10.0)
	55~64세	5,029	435	701	695	3,894	549	1,099	1,676	569
	65~79세	2,087	585	137	134	1,366	68	317	839	142
2018	전체 ²⁾	27,064	1,481	4,528	4,507	21,054	2,035	5,967	9,914	3,139
	(구성비)	(100.0)	(5.5)	(16.7)	(16.7)	(77.8)	(7.5)	(22.0)	(36.6)	(11.6)
	55~79세	7,421	1,067	875	866	5,480	646	1,456	2,639	740
	(구성비)	(100.0)	(14.4)	(11.8)	(11.7)	(73.8)	(8.7)	(19.6)	(35.6)	(10.0)
	55~64세	5,213	454	732	726	4,028	561	1,146	1,746	575
	65~79세	2,209	613	143	140	1,453	85	310	893	165
2019	전체 ²⁾	27,322	1,497	4,449	4,434	21,376	2,041	6,028	10,182	3,127
	(구성비)	(100.0)	(5.5)	(16.3)	(16.2)	(78.2)	(7.5)	(22.1)	(37.3)	(11.4)
	55~79세	7,739	1,064	901	897	5,774	665	1,532	2,819	758
	(구성비)	(100.0)	(13.8)	(11.6)	(11.6)	(74.6)	(8.6)	(19.8)	(36.4)	(9.8)
	55~64세	5,350	459	753	750	4,138	573	1,184	1,798	583
	65~79세	2,389	605	148	147	1,636	92	348	1,021	17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15-2. 직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

		취업자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4	전체 ²⁾	26,112	5,520	4,414	5,884	1,530	5,390	3,374
	(구성비)	(100.0)	(21.1)	(16.9)	(22.5)	(5.9)	(20.6)	(12.9)
	55~79세	6,132	535	320	1,274	1,076	1,296	1,631
	(구성비)	(100.0)	(8.7)	(5.2)	(20.8)	(17.6)	(21.1)	(26.6)
	55~64세	4,176	448	263	1,001	449	1,078	937
	65~79세	1,956	86	56	273	628	218	694
2015	전체 ²⁾	26,431	5,560	4,450	5,921	1,403	5,559	3,539
	(구성비)	(100.0)	(21.0)	(16.8)	(22.4)	(5.3)	(21.0)	(13.4)
	55~79세	6,376	581	368	1,336	972	1,398	1,722
	(구성비)	(100.0)	(9.1)	(5.8)	(20.9)	(15.2)	(21.9)	(27.0)
	55~64세	4,413	480	317	1,044	413	1,150	1,009
	65~79세	1,963	101	51	291	559	248	713
2016	전체 ²⁾	26,613	5,658	4,599	5,952	1,322	5,598	3,485
	(구성비)	(100.0)	(21.3)	(17.3)	(22.4)	(5.0)	(21.0)	(13.1)
	55~79세	6,715	618	435	1,432	929	1,550	1,752
	(구성비)	(100.0)	(9.2)	(6.5)	(21.3)	(13.8)	(23.1)	(26.1)
	55~64세	4,708	532	382	1,097	397	1,292	1,008
	65~79세	2,007	86	53	335	532	259	744
2017	전체 ²⁾	26,992	5,754	4,678	6,033	1,322	5,605	3,599
	(구성비)	(100.0)	(21.3)	(17.3)	(22.4)	(4.9)	(20.8)	(13.3)
	55~79세	7,117	682	488	1,555	959	1,638	1,795
	(구성비)	(100.0)	(9.6)	(6.9)	(21.9)	(13.5)	(23.0)	(25.2)
	55~64세	5,029	587	437	1,202	411	1,367	1,026
	65~79세	2,087	95	51	353	548	272	769
2018	전체 ²⁾	27,064	5,876	4,780	5,985	1,383	5,462	3,578
	(구성비)	(100.0)	(21.7)	(17.7)	(22.1)	(5.1)	(20.2)	(13.2)
	55~79세	7,421	781	517	1,640	1,015	1,658	1,810
	(구성비)	(100.0)	(10.5)	(7.0)	(22.1)	(13.7)	(22.3)	(24.4)
	55~64세	5,213	670	452	1,280	439	1,359	1,014
	65~79세	2,209	111	65	360	577	300	796
2019	전체 ²⁾	27,322	5,967	4,728	6,169	1,416	5,410	3,632
	(구성비)	(100.0)	(21.8)	(17.3)	(22.6)	(5.2)	(19.8)	(13.3)
	55~79세	7,739	811	547	1,778	1,024	1,699	1,880
	(구성비)	(100.0)	(10.5)	(7.1)	(23.0)	(13.2)	(22.0)	(24.3)
	55~64세	5,350	677	480	1,344	451	1,363	1,035
	65~79세	2,389	134	67	434	573	336	8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16-1.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

(단위: 천명, %)

55~64세		계 ¹⁾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근속기간
2009	전 체 (구성비)	4,530 (100.0)	678 (15.0)	721 (15.9)	1,246 (27.5)	1,008 (22.3)	877 (19.4)	16년 11.7개월
	남 자	2,316	147	227	677	673	592	20년 5.0개월
	여 자	2,213	531	494	569	335	285	13년 4.5개월
2010	전 체 (구성비)	4,816 (100.0)	775 (16.1)	771 (16.0)	1,384 (28.7)	1,018 (21.1)	868 (18.0)	16년 4.4개월
	남 자	2,452	180	217	749	706	601	20년 0.5개월
	여 자	2,364	595	555	635	312	267	12년 6.7개월
2011	전 체 (구성비)	5,136 (100.0)	807 (15.7)	804 (15.6)	1,476 (28.7)	1,126 (21.9)	924 (18.0)	16년 5.8개월
	남 자	2,612	189	235	788	770	629	20년 0.9개월
	여 자	2,525	618	569	687	356	296	12년 9.3개월
2012	전 체 (구성비)	5,391 (100.0)	879 (16.3)	867 (16.1)	1,515 (28.1)	1,151 (21.4)	979 (18.2)	16년 4.2개월
	남 자	2,745	211	261	813	797	662	19년 11.2개월
	여 자	2,646	668	606	701	354	317	12년 7.7개월
2013	전 체 (구성비)	5,651 (100.0)	1,025 (18.1)	916 (16.2)	1,564 (27.7)	1,147 (20.3)	999 (17.7)	15년 10.4개월
	남 자	2,888	259	270	871	801	688	19년 5.2개월
	여 자	2,763	766	646	694	346	311	12년 1.7개월
2014	전 체 (구성비)	6,014 (100.0)	1,094 (18.2)	1,051 (17.5)	1,724 (28.7)	1,215 (20.2)	930 (15.5)	15년 4.3개월
	남 자	3,054	284	305	951	850	665	19년 0.4개월
	여 자	2,960	810	746	774	365	265	11년 6.9개월
2015	전 체 (구성비)	6,406 (100.0)	1,263 (19.7)	1,172 (18.3)	1,803 (28.1)	1,229 (19.2)	939 (14.7)	14년 9.5개월
	남 자	3,236	330	331	1,013	875	687	18년 7.9개월
	여 자	3,170	933	841	789	355	252	10년 10.2개월
2016	전 체 (구성비)	6,866 (100.0)	1,214 (17.7)	1,327 (19.3)	2,012 (29.3)	1,306 (19.0)	1,007 (14.7)	14년 11.0개월
	남 자	3,467	301	366	1,111	935	754	18년 10.1개월
	여 자	3,399	913	961	901	371	253	10년 11.1개월
2017	전 체 (구성비)	7,150 (100.0)	1,225 (17.1)	1,284 (18.0)	2,147 (30.0)	1,401 (19.6)	1,094 (15.3)	15년 3.5개월
	남 자	3,618	284	362	1,149	1,008	815	19년 3.5개월
	여 자	3,533	941	921	998	394	279	11년 2.4개월
2018	전 체 (구성비)	7,483 (100.0)	1,215 (16.2)	1,308 (17.5)	2,283 (30.5)	1,445 (19.3)	1,233 (16.5)	15년 4.9개월
	남 자	3,789	287	383	1,193	1,013	913	19년 3.0개월
	여 자	3,695	927	925	1,090	433	320	11년 5.7개월
2019	전 체 (구성비)	7,705 (100.0)	1,214 (15.8)	1,358 (17.6)	2,348 (30.5)	1,517 (19.7)	1,268 (16.5)	15년 5.7개월
	남 자	3,899	322	378	1,210	1,059	931	19년 2.2개월
	여 자	3,806	892	981	1,138	459	337	11년 8.1개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현재 취업자(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 포함)와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

16-2.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그만둔 이유

(단위: 천명, %)

55~64세		계 ¹⁾	정년 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었 다고 생각해서	기타 ²⁾
2009	전 체	3,041	272	306	1,026	460	619	105	252
	(구성비)	(100.0)	(8.9)	(10.1)	(33.7)	(15.1)	(20.4)	(3.5)	(8.3)
	남 자	100	16.8	15.8	40.6	0.9	14.8	2.5	8.7
	여 자	100	1.7	4.8	27.5	28.2	25.5	4.4	7.9
2010	전 체	3,258	283	342	1,051	509	687	104	282
	(구성비)	(100.0)	(8.7)	(10.5)	(32.3)	(15.6)	(21.1)	(3.2)	(8.7)
	남 자	100.0	16.3	17.2	39.3	1.2	15.1	2.5	8.5
	여 자	100.0	1.9	4.6	26	28.5	26.4	3.8	8.8
2011	전 체	3,345	273	314	1,068	502	706	115	366
	(구성비)	(100.0)	(8.2)	(9.4)	(31.9)	(15.0)	(21.1)	(3.4)	(11.0)
	남 자	100.0	15.7	16.2	38.3	1.2	14.5	2.8	11.2
	여 자	100.0	1.8	3.7	26.6	26.5	26.6	4	10.8
2012	전 체	3,446	272	339	1,127	520	734	119	335
	(구성비)	(100.0)	(7.9)	(9.8)	(32.7)	(15.1)	(21.3)	(3.4)	(9.7)
	남 자	100.0	14.4	16.7	40	1.5	16.1	2.8	8.5
	여 자	100.0	2.4	4.1	26.5	26.6	25.6	4	10.8
2013	전 체	3,644	285	323	1,254	529	767	110	378
	(구성비)	(100.0)	(7.8)	(8.9)	(34.4)	(14.5)	(21.0)	(3.0)	(10.4)
	남 자	100.0	14	14.8	41.3	0.9	15.6	2.5	10.9
	여 자	100.0	2.4	3.6	28.3	26.5	25.8	3.5	9.9
2014	전 체	3,854	292	391	1,339	602	749	99	381
	(구성비)	(100.0)	(7.6)	(10.2)	(34.8)	(15.6)	(19.4)	(2.6)	(9.9)
	남 자	100.0	13.4	16.9	40.9	1.2	14.3	2.3	11
	여 자	100.0	2.6	4.4	29.6	27.8	23.8	2.8	9
2015	전 체	4,118	334	431	1,405	661	808	107	373
	(구성비)	(100.0)	(8.1)	(10.5)	(34.1)	(16.1)	(19.6)	(2.6)	(9.1)
	남 자	100.0	14.4	18.4	39.9	1	15.2	2	9.1
	여 자	100.0	2.8	3.8	29.2	28.7	23.3	3.1	9
2016	전 체	4,332	355	414	1,327	565	861	369	442
	(구성비)	(100.0)	(8.2)	(9.6)	(30.6)	(13.0)	(19.9)	(8.5)	(10.2)
	남 자	100.0	14.6	16.4	37.9	3.5	10.1	6.7	10.8
	여 자	100.0	2.8	3.9	24.6	21	28	10	9.7
2017	전 체	4,475	352	534	1,389	697	857	185	460
	(구성비)	(100.0)	(7.9)	(11.9)	(31.1)	(15.6)	(19.2)	(4.1)	(10.3)
	남 자	100.0	13.7	20	37.8	1.4	12.2	2.8	12.1
	여 자	100.0	2.9	5.1	25.4	27.5	25	5.3	8.8
2018	전 체	4,599	346	514	1,468	728	898	105	540
	(구성비)	(100.0)	(7.5)	(11.2)	(31.9)	(15.8)	(19.5)	(2.3)	(11.7)
	남 자	100.0	12.7	17.8	38.5	1.3	13.9	1.5	14.3
	여 자	100.0	3.1	5.6	26.3	28.2	24.3	3	9.6
2019	전 체	4,934	350	602	1,628	683	979	96	596
	(구성비)	(100.0)	(7.1)	(12.2)	(33.0)	(13.8)	(19.8)	(1.9)	(12.1)
	남 자	100.0	11.9	18.9	39.1	1.1	14.0	1.0	14.0
	여 자	100.0	2.9	6.3	27.6	25.0	25.0	2.8	1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

2)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자영업을 하기 위해', '기타' 포함

17.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단위: 천명, %)

55~79세	계	장애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 2009 > (구성비)	9,040 (100.0)	5,214 (57.7)	5,214 (100.0)	1,753 (33.6)	2,951 (56.6)	103 (2.0)	135 (2.6)	262 (5.0)	10 (0.2)
남 자	4,177 (100.0)	3,022 (72.3)	3,022 (100.0)	1,133 (37.5)	1,605 (53.1)	86 (2.8)	81 (2.7)	111 (3.7)	7 (0.2)
여 자	4,864 (100.0)	2,192 (45.1)	2,192 (100.0)	621 (28.3)	1,346 (61.4)	16 (0.7)	55 (2.5)	152 (6.9)	3 (0.1)
< 2012 > (구성비)	10,348 (100.0)	6,126 (59.2)	6,126 (100.0)	2,235 (36.5)	3,337 (54.5)	119 (1.9)	130 (2.1)	291 (4.7)	14 (0.2)
남 자	4,814 (100.0)	3,502 (72.7)	3,502 (100.0)	1,413 (40.3)	1,771 (50.6)	94 (2.7)	77 (2.2)	143 (4.1)	5 (0.1)
여 자	5,534 (100.0)	2,624 (47.4)	2,624 (100.0)	822 (31.3)	1,566 (59.7)	26 (1.0)	54 (2.0)	147 (5.6)	10 (0.4)
< 2013 > (구성비)	10,845 (100.0)	6,515 (60.1)	6,515 (100.0)	2,402 (36.9)	3,571 (54.8)	124 (1.9)	112 (1.7)	292 (4.5)	14 (0.2)
남 자	5,077 (100.0)	3,758 (74.0)	3,758 (100.0)	1,520 (40.4)	1,951 (51.9)	96 (2.6)	62 (1.7)	124 (3.3)	5 (0.1)
여 자	5,768 (100.0)	2,757 (47.8)	2,757 (100.0)	883 (32.0)	1,620 (58.8)	27 (1.0)	50 (1.8)	168 (6.1)	10 (0.3)
< 2014 > (구성비)	11,328 (100.0)	7,046 (62.2)	7,046 (100.0)	2,736 (38.8)	3,809 (54.1)	116 (1.6)	106 (1.5)	271 (3.8)	8 (0.1)
남 자	5,316 (100.0)	4,051 (76.2)	4,051 (100.0)	1,741 (43.0)	2,052 (50.7)	93 (2.3)	56 (1.4)	108 (2.7)	1 0.0
여 자	6,012 (100.0)	2,995 (49.8)	2,995 (100.0)	995 (33.2)	1,757 (58.7)	23 (0.8)	50 (1.7)	163 (5.4)	7 (0.2)
< 2015 > (구성비)	11,807 (100.0)	7,231 (61.2)	7,231 (100.0)	2,597 (35.9)	4,128 (57.1)	127 (1.8)	115 (1.6)	258 (3.6)	6 (0.1)
남 자	5,565 (100.0)	4,146 (74.5)	4,146 (100.0)	1,636 (39.5)	2,255 (54.4)	93 (2.2)	65 (1.6)	96 (2.3)	2 0.0
여 자	6,242 (100.0)	3,085 (49.4)	3,085 (100.0)	961 (31.1)	1,873 (60.7)	34 (1.1)	50 (1.6)	162 (5.3)	4 (0.1)
< 2016 > (구성비)	12,438 (100.0)	7,649 (61.5)	7,649 (100.0)	2,661 (34.8)	4,444 (58.1)	166 (2.2)	118 (1.5)	255 (3.3)	4 0.0
남 자	5,864 (100.0)	4,359 (74.3)	4,359 (100.0)	1,643 (37.7)	2,426 (55.7)	124 (2.9)	68 (1.6)	97 (2.2)	0 0.0
여 자	6,574 (100.0)	3,290 (50.0)	3,290 (100.0)	1,018 (30.9)	2,018 (61.3)	42 (1.3)	50 (1.5)	158 (4.8)	3 (0.1)
< 2017 > (구성비)	12,929 (100.0)	8,098 (62.6)	8,098 (100.0)	2,783 (34.4)	4,722 (58.3)	188 (2.3)	130 (1.6)	269 (3.3)	5 (0.1)
남 자	6,122 (100.0)	4,594 (75.0)	4,594 (100.0)	1,699 (37.0)	2,566 (55.9)	144 (3.1)	75 (1.6)	107 (2.3)	2 (0.1)
여 자	6,807 (100.0)	3,504 (51.5)	3,504 (100.0)	1,084 (30.9)	2,156 (61.5)	45 (1.3)	54 (1.5)	162 (4.6)	3 (0.1)
< 2018 > (구성비)	13,441 (100.0)	8,613 (64.1)	8,613 (100.0)	2,923 (33.9)	5,085 (59.0)	191 (2.2)	126 (1.5)	284 (3.3)	3 0.0
남 자	6,395 (100.0)	4,836 (75.6)	4,836 (100.0)	1,764 (36.5)	2,744 (56.7)	146 (3.0)	62 (1.3)	120 (2.5)	1 0.0
여 자	7,046 (100.0)	3,776 (53.6)	3,776 (100.0)	1,159 (30.7)	2,341 (62.0)	45 (1.2)	64 (1.7)	164 (4.4)	2 (0.1)
< 2019 > (구성비)	13,843 (100.0)	8,979 (64.9)	8,979 (100.0)	2,949 (32.8)	5,403 (60.2)	178 (2.0)	157 (1.7)	289 (3.2)	4 (0.0)
남 자	6,587 (100.0)	4,975 (75.5)	4,975 (100.0)	1,763 (35.4)	2,864 (57.6)	138 (2.8)	86 (1.7)	122 (2.5)	2 (0.0)
여 자	7,256 (100.0)	4,005 (55.2)	4,005 (100.0)	1,187 (29.6)	2,538 (63.4)	40 (1.0)	71 (1.8)	167 (4.2)	2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18. 일자리 선택기준

(단위: 천명, %)

55~79세	계 ¹⁾	임금수준	일의양과 시간대	일의내용	출퇴근 거리등 편리성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 취업경험 연관성	그 외 ²⁾
< 2009 > 근로 희망자 (구성비)	5,214 (100.0)	2,010 (38.6)	904 (17.3)	416 (8.0)	184 (3.5)	1,130 (21.7)	462 (8.9)	107 (2.1)
< 2010 > 근로 희망자 (구성비)	5,669 (100.0)	1,862 (32.8)	1,134 (20.0)	520 (9.2)	209 (3.7)	1,285 (22.7)	524 (9.3)	135 (2.4)
< 2011 > 근로 희망자 (구성비)	5,803 (100.0)	1,586 (27.3)	1,239 (21.4)	670 (11.5)	263 (4.5)	1,294 (22.3)	610 (10.5)	140 (2.4)
< 2012 > 근로 희망자 (구성비)	6,126 (100.0)	1,801 (29.4)	1,329 (21.7)	647 (10.6)	291 (4.7)	1,334 (21.8)	605 (9.9)	119 (1.9)
< 2013 > 근로 희망자 (구성비)	6,515 (100.0)	1,619 (24.9)	1,690 (25.9)	820 (12.6)	343 (5.3)	1,226 (18.8)	714 (11.0)	103 (1.6)
< 2014 > 근로 희망자 (구성비)	7,046 (100.0)	1,631 (23.2)	1,965 (27.9)	917 (13.0)	379 (5.4)	1,313 (18.6)	742 (10.5)	98 (1.4)
< 2015 > 근로 희망자 (구성비)	7,231 (100.0)	1,682 (23.3)	1,997 (27.6)	974 (13.5)	380 (5.3)	1,303 (18.0)	820 (11.3)	75 (1.0)
< 2016 > 근로 희망자 (구성비)	7,649 (100.0)	1,840 (24.1)	2,045 (26.7)	985 (12.9)	397 (5.2)	1,331 (17.4)	941 (12.3)	110 (1.4)
< 2017 > 근로 희망자 (구성비)	8,098 (100.0)	2,030 (25.1)	2,120 (26.2)	1,084 (13.4)	486 (6.0)	1,343 (16.6)	921 (11.4)	114 (1.4)
< 2018 > 근로 희망자 (구성비)	8,613 (100.0)	2,084 (24.2)	2,377 (27.6)	1,127 (13.1)	536 (6.2)	1,422 (16.5)	945 (11.0)	122 (1.4)
< 2019 > 근로 희망자 (구성비)	8,979 (100.0)	2,139 (23.8)	2,547 (28.4)	1,183 (13.2)	595 (6.6)	1,488 (16.6)	892 (9.9)	137 (1.5)
남 자	4,975 (100.0)	1,287 (25.9)	1,104 (22.2)	707 (14.2)	217 (4.4)	938 (18.9)	612 (12.3)	109 (2.2)
여 자	4,005 (100.0)	851 (21.3)	1,443 (36.0)	476 (11.9)	378 (9.4)	549 (13.7)	280 (7.0)	28 (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장래근로 희망자

2) '사업장규모', '사회적 지위유지 가능성', '기타' 포함

19. 연금¹⁾ 수령

(단위: 천명, %)

55~79세	연금	구성비 ²⁾	10만원 미만	10~25 만원 미만	25~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평균 수령액 (만원)
< 2009 > (구성비)	3,966 (100.0)	43.9	1,770 (44.6)	1,150 (29.0)	447 (11.3)	206 (5.2)	114 (2.9)	278 (7.0)	34
남자	2,067	49.5	556	703	318	170	81	239	48
여자	1,899	39	1,215	447	128	36	33	39	19
< 2010 > (구성비)	4,335 (100.0)	46	1,977 (45.6)	1,165 (26.9)	550 (12.7)	241 (5.6)	108 (2.5)	293 (6.8)	35
남자	2,239	51.3	609	690	391	210	76	263	51
여자	2,096	41.3	1,368	474	160	31	32	31	18
< 2011 > (구성비)	4,641 (100.0)	46.9	2,074 (44.7)	1,172 (25.3)	643 (13.8)	307 (6.6)	129 (2.8)	316 (6.8)	36
남자	2,406	52.4	646	677	457	264	89	273	51
여자	2,236	42.2	1,429	496	186	43	39	43	19
< 2012 > (구성비)	4,696 (100.0)	45.4	2,026 (43.1)	1,108 (23.6)	748 (15.9)	346 (7.4)	128 (2.7)	340 (7.2)	38
남자	2,446	50.8	620	618	524	303	87	293	55
여자	2,250	40.7	1,406	490	224	43	41	46	20
< 2013 > (구성비)	5,046 (100.0)	46.5	1,821 (36.1)	1,378 (27.3)	920 (18.2)	418 (8.3)	155 (3.1)	355 (7.0)	39
남자	2,620	51.6	569	648	631	368	106	299	56
여자	2,426	42.1	1,252	730	289	50	49	56	22
< 2014 > (구성비)	5,117 (100.0)	45.2	1,078 (21.1)	2,007 (39.2)	1,010 (19.7)	464 (9.1)	167 (3.3)	392 (7.7)	42
남자	2,636	49.6	377	746	681	391	115	326	60
여자	2,481	41.3	702	1,261	329	73	52	66	24
< 2015 > (구성비)	5,251 (100.0)	44.5	81 (1.5)	2,648 (50.4)	1,308 (24.9)	581 (11.1)	193 (3.7)	440 (8.4)	50
남자	2,713	48.7	29	912	795	466	146	364	67
여자	2,538	40.7	51	1,736	513	115	47	76	31
< 2016 > (구성비)	5,379 (100.0)	43.2	50 (0.9)	2,649 (49.2)	1,337 (24.9)	661 (12.3)	213 (4.0)	470 (8.7)	51
남자	2,788	47.5	15	905	791	521	169	387	69
여자	2,591	39.4	34	1,744	547	139	44	83	32
< 2017 > (구성비)	5,763 (100.0)	44.6	39 (0.7)	2,686 (46.6)	1,510 (26.2)	789 (13.7)	231 (4.0)	509 (8.8)	53
남자	2,999	49.0	11	903	890	611	178	406	69
여자	2,764	40.6	28	1,783	619	178	53	103	34
< 2018 > (구성비)	6,129 (100.0)	45.6	35 (0.6)	2,629 (42.9)	1,690 (27.6)	918 (15.0)	261 (4.3)	596 (9.7)	57
남자	3,181	49.7	15	821	945	725	204	472	76
여자	2,947	41.8	20	1,809	745	193	58	123	37
< 2019 > (구성비)	6,358 (100.0)	45.9	23 (0.4)	1,718 (27.0)	2,539 (39.9)	1,176 (18.5)	289 (4.5)	614 (9.6)	61
남자	3,283 (100.0)	49.8	8 (0.2)	536 (16.3)	1,155 (35.2)	876 (26.7)	229 (7.0)	479 (14.6)	79
여자	3,075 (100.0)	42.4	16 (0.5)	1,181 (38.4)	1,385 (45.0)	300 (9.7)	59 (1.9)	134 (4.4)	4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주: 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

2) 55~79세 인구 중 연금수령자 구성비

2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명, %)

	전체 (일반수급자)	남 자	여 자	65세 이상	구성비 ¹⁾	남 자	여 자
2001	1,345,526	567,025	778,501	324,832	24.1	83,127	241,705
2002	1,275,625	533,167	742,458	331,780	26.0	83,893	247,887
2003	1,292,690	541,233	751,457	340,716	26.4	85,667	255,049
2004	1,337,714	562,074	775,640	352,348	26.3	88,862	263,486
2005	1,425,684	604,255	821,428	367,657	25.8	93,995	273,662
2006	1,449,832	616,511	833,311	373,595	25.8	96,523	277,066
2007	1,463,140	622,400	840,740	386,157	26.4	101,228	284,929
2008	1,444,010	617,015	826,995	382,050	26.5	100,772	281,278
2009	1,482,719	638,061	844,658	387,847	26.2	104,014	283,833
2010	1,458,198	626,798	831,400	391,214	26.8	106,723	284,491
2011	1,379,865	594,955	784,910	378,411	27.4	104,901	273,510
2012	1,300,499	562,115	738,384	376,098	28.9	107,156	268,942
2013	1,258,582	547,323	711,258	376,112	29.9	110,189	265,923
2014	1,237,386	543,391	693,995	379,048	30.6	114,731	264,317
2015 ²⁾	1,554,484	700,222	854,262	419,452	27.0	133,292	286,160
2016	1,539,539	699,735	839,804	420,731	27.3	137,078	283,653
2017	1,491,650	682,893	808,757	430,549	28.9	145,164	285,385
2018	1,653,781	745,306	908,475	543,256	32.8	184,047	359,209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주: 1) 구성비 = (65세 이상 / 전체) × 100

2) 2015년 상대 빈곤선 도입,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등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 후 전체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21. 노인 복지시설

(단위: 개소)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합 계 >		66,854	69,237	70,643	71,873	72,860	73,774	75,029	75,708	76,371	77,382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360	397	414	416	435	443	427	425	404	390
	양로시설	285	300	303	285	285	272	265	265	252	238
	노인공동생활가정	56	75	87	108	125	142	131	128	119	117
	노인복지주택	19	22	24	23	25	29	31	32	33	35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계	2,712	3,852	4,079	4,352	4,585	4,841	5,063	5,163	5,242	5,287
	노인요양시설	1,642	2,429	2,489	2,610	2,497	2,707	2,933	3,136	3,261	3,39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09	1,346	1,590	1,742	2,088	2,134	2,130	2,027	1,981	1,897
	노인전문병원 ¹⁾	61	77	-	-	-	-	-	-	-	-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소계	61,065	62,469	63,375	64,077	64,983	65,665	66,292	66,787	67,324	68,013
	노인복지관	237	259	281	300	319	344	347	350	364	385
	경로당	59,543	60,737	61,537	62,442	63,251	63,960	64,568	65,044	65,604	66,286
	노인교실	1,280	1,464	1,557	1,335	1,413	1,361	1,377	1,393	1,356	1,342
	노인휴양소 ¹⁾	5	9	-	-	-	-	-	-	-	-
재가	소계	2,696	2,496	2,750	3,003	2,832	2,797	3,089	3,168	3,216	3,494
노인	방문요양서비스	1,228	1,118	1,180	1,113	1,042	992	1,021	1,009	1,001	1,051
복지	주야간보호서비스	714	786	842	840	848	913	1,007	1,086	1,174	1,312
시설	단기보호서비스	288	67	95	94	110	96	112	95	80	73
	방문목욕서비스	466	525	633	633	603	588	617	588	609	650
	방문간호서비스	-	-	-	-	-	-	-	-	10	21
	재가지원서비스 ²⁾	-	-	-	323	229	208	332	390	342	387
	노인보호전문기관	21	23	25	25	25	28	29	29	32	3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³⁾	-	-	-	-	-	-	129	136	153	165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각년도

주: 1) 노인전문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휴양소(노인여가복지시설) 삭제('11. 12. 8.)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재가노인복지시설) 신설('10. 2. 24.)

3)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신설('13. 12. 5.)

22. 인터넷 이용률

(단위: %)

	인터넷 이용률 ¹⁾	인터넷 이용 빈도				
		계	하루 1회 이상	일주일 1회 이상	한 달 1회 이상	한 달 1회 미만
< 2015 >						
60대	59.6	100.0	76.8	17.9	5.0	0.3
70대 이상	17.9	100.0	45.5	32.6	21.6	0.2
< 2016 >						
60대	74.5	100.0	73.2	23.0	3.6	0.1
70대 이상	25.9	100.0	50.8	37.3	11.6	0.3
< 2017 >						
60대	82.5	100.0	93.1	1.2	5.6	0.0
70대 이상	31.8	100.0	81.0	8.5	10.1	0.3
< 2018 >						
60대	88.8	100.0	88.6	7.3	4.1	0.0
70대 이상	38.6	100.0	72.6	17.1	10.1	0.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년도

주: 1)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23. 선거투표율

(단위: %)

	전 체 ¹⁾	60대	70대	80대 이상
< 대통령 선거 >				
2007	63.0	76.3	-	-
2012	75.8	80.9	-	-
2017	77.2	84.1	81.8	56.2
< 국회의원 선거 >				
2008	46.1	65.5	-	-
2012	54.2	68.6	-	-
2016	58.0	71.7	73.3	48.3
< 지방의회의원 선거 >				
2010	54.5	69.3	-	-
2014	56.8	74.4	67.3 ²⁾	-
2018	60.2	72.5	74.5	50.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선거총람」

주: 1) 19세 이상 모든 연령층의 선거투표율

2) 70대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

24. 일반인, 기관에 대한 신뢰¹⁾

(단위: 점)

60대	일반인	TV방송사	검찰	경찰	공기업	교육기관	국회	군대	금융기관
2013	2.6	2.5	2.4	2.4	-	2.6	1.9	2.7	2.6
2014	2.7	2.5	2.3	2.3	-	2.6	1.9	2.3	2.6
2015	2.6	2.5	2.3	2.4	-	2.6	1.9	2.6	2.6
2016	2.7	2.5	2.1	2.3	2.3	2.6	1.8	2.5	2.5
2017	2.6	2.4	2.2	2.4	2.4	2.6	1.8	2.5	2.5
2018	2.7	2.4	2.2	2.3	2.3	2.5	1.8	2.4	2.5

(단위: 점)

60대	노동조합 단체	대기업	법원	시민단체	신문사	의료기관	종교기관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 단체
2013	2.3	2.3	2.4	2.4	2.5	2.6	2.5	2.4	2.5
2014	2.2	2.4	2.3	2.4	2.5	2.7	2.5	2.3	2.4
2015	2.3	2.4	2.3	2.4	2.5	2.6	2.6	2.3	2.5
2016	2.3	2.3	2.2	2.4	2.5	2.6	2.5	2.1	2.4
2017	2.3	2.3	2.2	2.4	2.4	2.6	2.4	2.3	2.5
2018	2.3	2.3	2.2	2.4	2.3	2.6	2.5	2.4	2.5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주: 1) 신뢰도 평균. 1~4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

2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65세 이상	계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보통이다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매우 안전하지 않다
< 전반적 안전 >		< 전반적인 사회안전 >				
2016	100.0	1.1	12.3	44.1	37.2	5.2
2018	100.0	1.0	16.4	49.0	31.1	2.7
< 국가안보 >		< 국가 안보 (전쟁가능성, 북핵문제 등) >				
2016	100.0	1.6	15.1	30.4	43.7	9.3
2018	100.0	2.0	23.0	32.8	34.8	7.4
< 자연재해 >		<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등) >				
2016	100.0	1.4	18.8	42.0	33.2	4.5
2018	100.0	1.4	18.4	37.6	37.3	5.2
< 건축·시설물 >		< 건축물 및 시설물 (붕괴, 폭발 등) >				
2016	100.0	2.2	21.4	46.3	26.7	3.5
2018	100.0	2.1	21.2	45.3	28.1	3.3
< 교통사고 >		< 교통사고 >				
2016	100.0	1.3	11.0	37.1	41.8	8.8
2018	100.0	1.0	12.7	38.9	39.8	7.6
< 화재 >		< 화재 (산불포함) >				
2016	100.0	2.0	17.9	48.9	27.5	3.7
2018	100.0	1.9	18.2	45.7	29.5	4.7
< 먹거리 >		< 먹거리 (불량식품, 식중독 등) >				
2016	100.0	2.0	18.1	43.5	30.2	6.2
2018	100.0	2.4	24.8	43.4	25.8	3.6
< 식량안보 >		< 식량 안보 (곡물가 폭등, 식량부족 등) >				
2016	100.0	5.3	27.0	46.4	18.8	2.5
2018	100.0	6.0	32.3	43.5	16.2	1.9
< 정보보안 >		< 정보 보안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 >				
2016	100.0	1.7	11.9	46.1	34.4	6.0
2018	100.0	1.2	14.5	47.9	30.7	5.6
< 신종질병 >		< 신종 질병 (신종 바이러스 등) >				
2016	100.0	1.2	9.3	28.7	48.7	12.1
2018	100.0	1.0	14.2	40.2	37.6	6.9
< 범죄발생 >		< 범죄 발생 >				
2016	100.0	0.8	8.1	22.0	49.9	19.2
2018	100.0	1.1	12.6	31.1	44.3	10.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6-1. 자신의 준법수준¹⁾

(단위: %)

65세 이상	계	아주 잘 지킨다	비교적 잘 지킨다	보통이다	비교적 지키지 않는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
< 2014 >	100.0	21.7	52.2	24.7	1.4	0.0
남자	100.0	21.7	51.5	25.2	1.6	0.0
여자	100.0	21.7	52.7	24.3	1.2	0.0
65~69세	100.0	19.5	54.6	23.9	1.9	0.0
70~79세	100.0	21.8	51.7	25.4	1.1	0.0
80세 이상	100.0	25.3	49.4	24.0	1.2	-
< 2016 >	100.0	21.8	55.1	21.5	1.6	0.0
남자	100.0	21.3	55.4	21.4	1.9	0.1
여자	100.0	22.1	54.9	21.6	1.3	0.0
65~69세	100.0	19.6	56.1	22.4	1.9	-
70~79세	100.0	22.6	55.1	20.8	1.4	0.1
80세 이상	100.0	23.9	53.2	21.6	1.2	0.0
< 2018 >	100.0	21.4	55.2	22.0	1.3	0.1
남자	100.0	21.6	53.6	23.2	1.5	0.2
여자	100.0	21.2	56.4	21.1	1.2	0.1
65~69세	100.0	18.6	57.8	22.0	1.5	0.1
70~79세	100.0	22.5	54.3	21.8	1.3	0.1
80세 이상	100.0	23.2	53.1	22.5	1.1	0.1
중졸 이하	100.0	20.7	55.5	22.4	1.4	0.0
고졸	100.0	20.6	53.8	24.2	1.3	0.1
대졸 이상	100.0	27.2	56.1	15.3	0.8	0.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자신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26-2. 타인의 준법수준¹⁾

(단위: %)

65세 이상	계	아주 잘 지킨다	비교적 잘 지킨다	보통이다	비교적 지키지 않는다	전혀 지키지 않는다
< 2014 >	100.0	3.8	32.9	34.7	25.8	2.8
남자	100.0	3.2	32.0	33.6	27.8	3.4
여자	100.0	4.3	33.5	35.5	24.4	2.3
65~69세	100.0	3.6	30.1	35.2	28.7	2.5
70~79세	100.0	3.7	33.9	33.8	25.7	2.9
80세 이상	100.0	4.8	34.8	36.5	21.1	2.8
< 2016 >	100.0	4.5	30.9	41.0	22.0	1.6
남자	100.0	4.5	28.2	40.3	25.5	1.5
여자	100.0	4.5	32.9	41.5	19.4	1.7
65~69세	100.0	4.0	29.0	42.2	23.4	1.5
70~79세	100.0	4.6	30.8	40.1	22.7	1.7
80세 이상	100.0	5.1	35.0	41.1	17.3	1.4
< 2018 >	100.0	5.3	36.8	40.4	16.6	0.9
남자	100.0	5.5	35.4	38.7	19.3	1
여자	100.0	5.1	37.9	41.7	14.5	0.8
65~69세	100.0	4.7	34.6	43.0	16.8	1.0
70~79세	100.0	5.3	37.0	39.5	17.3	0.9
80세 이상	100.0	6.3	40.1	38.5	14.4	0.8
중졸 이하	100.0	4.9	37.8	40.9	15.5	0.8
고졸	100.0	5.7	33.8	40.6	18.9	0.9
대졸 이상	100.0	6.5	36.4	37.1	18.7	1.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27. 학대피해 노인¹⁾

(단위: 점)

	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010	5,076	1,304	1,981	39	574	891	196	91
(비율)	(100.0)	(25.7)	(39.0)	(.8)	(11.3)	(17.6)	(3.9)	(1.8)
2011	5,765	1,419	2,307	72	607	1,038	236	86
(비율)	(100.0)	(24.6)	(40.0)	(1.2)	(10.5)	(18.0)	(4.1)	(1.5)
2012	5,570	1,326	2,134	63	540	1,042	394	71
(비율)	(100.0)	(23.8)	(38.3)	(1.1)	(9.7)	(18.7)	(7.1)	(1.3)
2013	5,832	1,430	2,235	90	526	1,087	375	89
(비율)	(100.0)	(24.5)	(38.3)	(1.5)	(9.0)	(18.6)	(6.4)	(1.5)
2014	5,772	1,426	2,169	131	521	984	463	78
(비율)	(100.0)	(24.7)	(37.6)	(2.3)	(9.0)	(17.0)	(8.0)	(1.4)
2015	6,154	1,591	2,330	102	542	919	622	48
(비율)	(100.0)	(25.9)	(37.9)	(1.7)	(8.8)	(14.9)	(10.1)	(0.8)
2016	6,811	2,132	2,730	91	491	778	523	66
(비율)	(100.0)	(31.3)	(40.1)	(1.3)	(7.2)	(11.4)	(7.7)	(1.0)
2017	7,287	2,651	3,064	150	411	649	291	71
(비율)	(100.0)	(36.4)	(42.0)	(2.1)	(5.6)	(8.9)	(4.0)	(1.0)
2018	8,176	3,046	3,508	228	381	718	240	55
(비율)	(100.0)	(37.3)	(42.9)	(2.8)	(4.7)	(8.8)	(2.9)	(0.7)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각년도

주: 1) 학대피해노인이 경험한 한 가지 이상의 학대 유형을 중복하여 집계

28. 현재 체감 환경¹⁾

(단위: %)

65세 이상	계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 전반적 환경 ²⁾ >	< 전반적인 체감 환경 >					
2018	100.0	13.4	31.0	42.4	12.0	1.3
남자	100.0	13.1	30.1	43.8	11.9	1.2
여자	100.0	13.6	31.6	41.4	12.0	1.3
65~69세	100.0	9.9	30.6	45.1	12.8	1.5
70~79세	100.0	13.7	30.4	42.9	11.8	1.1
80세 이상	100.0	18.3	33.0	36.6	10.9	1.1
< 대기 >	< 대기 >					
2016	100.0	16.5	28.9	33.0	18.0	3.5
2018	100.0	13.8	26.0	31.2	21.8	7.2
< 하천 >	< 하천 >					
2016	100.0	15.4	32.1	41.3	9.9	1.2
2018	100.0	12.1	26.9	43.3	15.2	2.5
< 토양 >	< 토양 (쓰레기로 인한 오염) >					
2016	100.0	13.2	28.8	42.2	13.9	1.9
2018	100.0	11.4	26.9	41.5	17.1	3.1
< 소음·진동 >	< 소음·진동 >					
2016	100.0	14.4	26.8	34.5	19.4	4.9
2018	100.0	14.2	26.0	34.6	20.1	5.0
< 녹지환경 >	< 녹지환경 (산, 공원 등) >					
2016	100.0	18.3	33.4	35.0	11.0	2.4
2018	100.0	21.6	37.5	31.3	8.3	1.3
< 5년 전 비교 >	< 5년 전과 비교 시 현재 체감 환경 ³⁾ >					
2016	100.0	3.2	27.0	44.2	23.7	1.9
2018	100.0	2.7	24.6	42.1	26.7	3.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

2) 2018년 신규 추가 문항

3) 왼쪽부터 "합계, "매우 좋아짐", "좋아짐", "변함 없음", "약간 나빠짐", "매우 나빠짐"